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2015. 08.



저자

---

**책임연구원**    이 재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별연구원**    ▶ 알제리:

박 영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다 연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튀니지: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Maher Gassab    Université Hassan, 1<sup>er</sup>

▶ 모로코: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Driss Baakil    L'école supérieur de commerce

▶ 세네갈: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 건 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 민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코트디부아르: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윤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신 혜 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 서 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획하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한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즉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겪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정세불안이 지속되며 경기침체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식수 부족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등의 보건 문제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여러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한국의 비중점 협력국으로서 체계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 향후 협력증대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환경 분석 및 구체적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KOICA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불어권 5개국을 대상으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KDS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기본적인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협력틀을 바탕으로 대상국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파악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상기의 협력틀과 실행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흐름과의 일치 여부와 더불어, 국제사회 여러 지원 기관과의 구체적 공조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별로 일반현황 및 개발환경 조사를 통해 개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가개발전략 및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여 해당 정부가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형태별·분야별·규모별로 분석하고 주체별로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KOICA를 비롯한 한국 지원 기관들의 협력현황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기본 목표와 함께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과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은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 방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며 실제적인 현지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수요와 공여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정량적 분석 방법과 정책적 타당성,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KOICA의 지원경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중점지원 분야를 모색하되, 수원국의 실질적인 「니즈」와 KOICA의 공급능력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채용한 첫 연구 사례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연구위원, 안동대 박찬용 교수, KDS 전홍민 연구위원 등 주 연구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황재상 KOICA 서아프리카팀장과 라갑채 과장, 송은의 과장, 김정민 대리, 이규홍 대리, 이지현 대리 등 서아프리카팀원을 비롯하여, 정회진 모로코 사무소장, 김상철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 송기정 세네갈 사무소장, 서호진 알제리 사무소장, 윤지현 튀니지 사무소장 등 KOICA 현지 사무소장과 사무소 직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S 최다연, 이은샘, 김민주, 이윤주, 신혜림 연구원 등 실무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KOICA의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과의 향후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에 있어 생생한 정보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양국간 협력효과가 주변 국가들의 국가발전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5년 8월  
연구책임자 이재훈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
| 1. 연구의 배경                        | 3   |
| 2. 연구의 목적                        | 4   |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
| 1. 연구의 방법                        | 5   |
| 2. 연구의 구성                        | 6   |
|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 7   |
| 1. 연구의 의의                        | 7   |
| 2. 연구의 한계                        | 8   |
| 제2장 코트디부아르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 11  |
| 제1절 일반현황                         | 13  |
| 1. 개요                            | 13  |
| 2. 정치 현황                         | 17  |
| 3. 경제 현황                         | 20  |
| 4. 사회·문화 현황                      | 31  |
|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 35  |
| 1. 개발환경                          | 35  |
| 2. 분야별 개발과제                      | 64  |
| 제3절 국가개발정책                       | 67  |
| 1. 국가개발전략(NDS)                   | 67  |
| 2. 분야별 전략                        | 77  |
| 제3장 국제사회의 코트디부아르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 87  |
|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 89  |
|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 89  |
|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98  |
|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08 |
|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 117 |

|                                       |         |
|---------------------------------------|---------|
|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20     |
| 1. 한국-코트디부아르 협력현황                     | 120     |
| 2. KOICA의 지원현황                        | 121     |
|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 125     |
| <br>제4장 KOICA의 코트디부아르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 <br>127 |
| 제1절 기본방향                              | 129     |
| 1. 코트디부아르 국가의 특징                      | 129     |
| 2. 코트디부아르 지원 기본방향                     | 132     |
|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 135     |
|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 135     |
| 2. 분석 결과                              | 144     |
|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 148     |
| 1. 보건의료                               | 148     |
| 2. 인프라                                | 153     |
|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 163     |
| <br>제5장 결론                            | <br>165 |
| 제1절 연구의 결론                            | 167     |
| 제2절 정책 제언                             | 169     |
| <br>참고문헌                              | <br>171 |
| <br>부록                                | <br>179 |

## 표 목차

|                                           |    |
|-------------------------------------------|----|
| 〈표 2-1〉 코트디부아르 개황                         | 14 |
| 〈표 2-2〉 코트디부아르 행정구역 구분                    | 14 |
| 〈표 2-3〉 코트디부아르 주요 경제 지표                   | 20 |
| 〈표 2-4〉 산업별 GDP 비중                        | 25 |
| 〈표 2-5〉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2013)          | 26 |
| 〈표 2-6〉 주요 수출입 품목(2012)                   | 27 |
| 〈표 2-7〉 아프리카 역내 국가별 FDI 유입액 비교            | 28 |
| 〈표 2-8〉 코트디부아르 비즈니스 환경평가 순위 변화 및 역내국가 비교  | 29 |
| 〈표 2-9〉 서아프리카 지역 신용등급(2014)               | 30 |
| 〈표 2-10〉 코트디부아르 MDG 달성경과 추세               | 35 |
| 〈표 2-11〉 코트디부아르 및 서아프리카 지역 타 국가 인간개발지수 비교 | 37 |
| 〈표 2-12〉 코트디부아르 및 서아프리카 지역 타 국가 MPI 변화 비교 | 37 |
| 〈표 2-13〉 코트디부아르 기초 보건지표 현황(2014)          | 38 |
| 〈표 2-14〉 코트디부아르 인프라 현황                    | 53 |
| 〈표 2-15〉 역내 국가별 물류성과지수(LPI)(2014)         | 56 |
| 〈표 2-16〉 서아프리카 인터넷 보급 정도(2012)            | 57 |
| 〈표 2-17〉 서아프리카 국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NRI) 비교      | 58 |
| 〈표 2-18〉 서아프리카 국가 및 코트디부아르 이브라힘 지수(2013)  | 63 |
| 〈표 2-19〉 서아프리카 국가 및 코트디부아르 부패인식지수(2014)   | 64 |
| 〈표 2-20〉 코트디부아르 PRSP 세부목표 및 추진방향          | 68 |
| 〈표 2-21〉 코트디부아르 PRSP 예산분배                 | 68 |
| 〈표 2-22〉 2012-2015 NDP 분야별 예산             | 70 |
| 〈표 2-23〉 2012-2015 PND 예상 재원조달 도표         | 72 |
| 〈표 2-24〉 국가발전계획 공공 프로젝트                   | 73 |
| 〈표 2-25〉 국가발전계획 민관협력 프로젝트                 | 74 |
| 〈표 2-26〉 1차 PND 전략적 목표별 2012-2014 계획 이행정도 | 75 |
| 〈표 2-27〉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전략 개요                 | 77 |

|                                                    |     |
|----------------------------------------------------|-----|
| 〈표 2-28〉 PNDS 달성 지표                                | 78  |
| 〈표 2-29〉 e-Government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                  | 82  |
| 〈표 2-30〉 e-Government 진행 중 횡단 프로젝트 현황              | 83  |
| 〈표 2-31〉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 현황                            | 84  |
| 〈표 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ODA 수원 현황                 | 89  |
| 〈표 3-2〉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부문                             | 91  |
| 〈표 3-3〉 ODA 공여주체별 코트디부아르 지원 현황                     | 92  |
| 〈표 3-4〉 對 코트디부아르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현황       | 95  |
| 〈표 3-5〉 對 코트디부아르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지원형태별 세부 지원현황        | 96  |
| 〈표 3-6〉 주요 공여체의 분야별 지원현황                           | 98  |
| 〈표 3-7〉 AFD의 1차·2차 C2D 부문별 예산 비교                   | 99  |
| 〈표 3-8〉 AFD의 對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개요               | 100 |
| 〈표 3-9〉 J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전략                        | 103 |
| 〈표 3-10〉 J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지원현황                   | 103 |
| 〈표 3-11〉 GIZ의 對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진행 프로젝트                 | 108 |
| 〈표 3-12〉 세계은행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전략목표 및 성과                | 109 |
| 〈표 3-13〉 세계은행의 對 코트디부아르 진행사업(2014)                 | 110 |
| 〈표 3-14〉 EU의 10차 FED(2008-2013) 분야별 세부 목표 및 예산 구성비 | 113 |
| 〈표 3-15〉 EU의 11차 FED(2014-2020) 분야별 세부 목표 및 예산 구성비 | 114 |
| 〈표 3-16〉 EU의 對 코트디부아르 주요 사업(2011년도 이후)             | 114 |
| 〈표 3-17〉 AfDB의 2013-2017 프로그램 및 세부프로젝트 예산 구성       | 116 |
| 〈표 3-18〉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관계                            | 120 |
| 〈표 3-19〉 한국-코트디부아르 교역액                             | 121 |
| 〈표 3-20〉 KO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 프로젝트 개요                | 123 |
| 〈표 3-21〉 對 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 사업(안)                       | 124 |
| 〈표 3-22〉 국내 공공기관의 코트디부아르 지원현황                      | 125 |
| 〈표 3-23〉 새마을운동 사업 개요                               | 126 |

|          |                                                |     |
|----------|------------------------------------------------|-----|
| 〈표 4-1〉  | 분야별 세부 지표 및 데이터 출처 -----                       | 137 |
| 〈표 4-2〉  |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                        | 138 |
| 〈표 4-3〉  |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                    | 138 |
| 〈표 4-4〉  |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                 | 141 |
| 〈표 4-5〉  | 분석 지표 및 가중치 -----                              | 143 |
| 〈표 4-6〉  | 정량분석 결과 -----                                  | 145 |
| 〈표 4-7〉  | 정성분석 결과 -----                                  | 146 |
| 〈표 4-8〉  | 종합분석 결과 -----                                  | 147 |
| 〈표 4-9〉  | JICA의 불어권 아프리카 보건분야 인력양성 사업 개요 ----            | 152 |
| 〈표 4-10〉 | 도로시스템,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KOICA 기존사업<br>내역 ----- | 153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2-1]  | 코트디부아르 지도                          | 13 |
| [그림 2-2]  | 도·농간 인구 및 인구증가율 비교                 | 16 |
| [그림 2-3]  |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인구분포                    | 17 |
| [그림 2-4]  | 코트디부아르의 GDP 성장률 변화                 | 22 |
| [그림 2-5]  |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10년 GDP 성장률 및 역내 평균 비교  | 23 |
| [그림 2-6]  | 서아프리카 국가별 GDP 전망                   | 23 |
| [그림 2-7]  | 코트디부아르 산업구조(2013)                  | 24 |
| [그림 2-8]  | 지역별 내전발생 빈도                        | 31 |
| [그림 2-9]  | 지역별 내전 피해                          | 32 |
| [그림 2-10] | 코트디부아르 종교 분포도                      | 34 |
| [그림 2-11] |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MPI 지수                  | 38 |
| [그림 2-12] | 5세 미만 영아 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변화 추이         | 39 |
| [그림 2-13] | 코트디부아르 모성사망 원인(2013)               | 40 |
| [그림 2-14] | 코트디부아르 의료시스템 피라미드                  | 41 |
| [그림 2-15] | 지역별 의료기관 접근성(2012)                 | 42 |
| [그림 2-16] |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ESPC 1개 당 인구수(2012)     | 42 |
| [그림 2-17] |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HG/CHR 1개 당 인구수(2013)   | 43 |
| [그림 2-18] |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의사 1명 당 인구수(2012)       | 44 |
| [그림 2-19] |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간호사 및 산파 1명 당 인구수(2012) | 44 |
| [그림 2-20] | OCHA 지정 식수위생 취약지역                  | 46 |
| [그림 2-21] | 15-24세 청소년의 교육 달성 정도               | 47 |
| [그림 2-22] | 초·중등학교 교육 이수 현황                    | 47 |
| [그림 2-23] | 지역별 벼 생산 잠재력 정도                    | 51 |
| [그림 2-24] | 코트디부아르 도로망 및 여건(2010)              | 54 |
| [그림 2-25] | 서아프리카 항구의 컨테이너 수송량 비교              | 55 |
| [그림 2-26] | 코트디부아르 ICT 전국망(2010)               | 57 |
| [그림 2-27] | 아비장 지구 간 교량 및 도로 현황                | 60 |
| [그림 2-28] | 아비장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률 변화(1992-2009)     | 61 |

|                                             |     |
|---------------------------------------------|-----|
| [그림 2-29] 아비장의 폐기물 관리현황                     | 61  |
| [그림 2-30] 아비장의 하수처리 현황                      | 62  |
| [그림 2-31]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예상                  | 69  |
| [그림 2-32] SNDR 2012-2020 쌀 지역 거점 지도         | 81  |
| [그림 2-33] e-Government 분야별 프로젝트             | 82  |
| [그림 3-1] 코트디부아르의 ODA 수원 추이                  | 90  |
| [그림 3-2] ODA 분야별 지원 현황                      | 91  |
| [그림 3-3] 공여국 협의체 구도 및 분야별 리더                | 97  |
| [그림 3-4] 코트디부아르 내 JICA 지원현황                 | 106 |
| [그림 3-5] 마노강연합국 도로인프라 구축사업 대상구간             | 117 |
| [그림 3-6] KO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 동향              | 122 |
|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 136 |
|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 140 |
| [그림 4-3] 코트디부아르 의료기관 분포지도(2008)             | 149 |
| [그림 4-4] 식수공급 관련 유관부처 및 실행기관                | 150 |
| [그림 4-5]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의사, 간호사 및 산파 분포현황(2008) | 151 |
| [그림 4-6] INFAS 개요                           | 152 |
| [그림 4-7] 경제인프라부 및 교통부 소관업무 및 산하기관 편제        | 155 |
| [그림 4-8] 코트디부아르 폐기물 관련 유관부처 및 실행기관          | 156 |
| [그림 4-9] 코트디부아르 상하수도 유관부처 및 실행기관            | 157 |
| [그림 4-10] KOICA-코트디부아르 간 협력 프레임워크           | 163 |

## 글상자 목차

|                                            |     |
|--------------------------------------------|-----|
| [글상자 3-1] AFD의 C2D 개요 -----                | 99  |
| [글상자 3-2] AFD의 보건시스템 역량강화 프로젝트(PRSS) ----- | 101 |
| [글상자 3-3] JICA의 지역공동체 기반 행정역량 강화사업 -----   | 104 |
| [글상자 3-4] 세계은행 르네상스 프로젝트 -----             | 111 |
|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                 | 139 |
|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                 | 139 |
|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             | 144 |
| [글상자 4-4] 세계은행의 PUIUR 사업 개요 -----          | 157 |

## 주요 약어

|        |                                                                                       |
|--------|---------------------------------------------------------------------------------------|
| AFD    |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佛개발청)                                               |
| AfDB   |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
| AGEDI  | Agence de Gestion et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Industrielles<br>(산업인프라개발관리공사) |
| ANADER | Agence Nationale d'Appui au Développement Rural(농촌개발지원청)                              |
| ANASUR | Agence Nationale de la Salubrité Urbaine(도시위생청)                                       |
| ANSUT  | Agence Nationalde du Service Universel des Télécommunications<br>(국가정보통신서비스기구)        |
| AU     | African Union(아프리카연맹)                                                                 |
| BTS    |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직업훈련과정)                                                |
| CARD   | Coalition for African Rice Development(日지역쌀증진프로젝트)                                    |
| C2D    | Contrat de Désendettement et de Développement(부채탕감 메커니즘)                              |
| CdC    | Chefs de Coopération(협력기관장)                                                           |
| CDD    | Community-driven Development(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                                            |
| CHR    | Centre Hospitalier Régional(Région 단위의 2차 의료기관)                                       |
| CHU    | 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                                       |
|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부재인식지수)                                                  |
| CPIA   |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국가정책 및 기관평가)                              |
| CSP    | Country Strategic Partnership(국가전략파트너십)                                               |
| CSR    | Centre de Santé Rural(지방보건소)                                                          |
| CSU    | Centre de Santé Urbain(꼬뮌보건소)                                                         |
| DEEP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개발컨설팅프로젝트)                                |
| DFID   |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英국제개발부)                                   |
| ECHO   |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br>(유럽인도주의적지원 및 시민보호협회)   |
| ECOWAS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

|        |                                                                                   |
|--------|-----------------------------------------------------------------------------------|
| 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Korea(대외경제협력기금)                             |
| EPI    |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환경수행지수)                                             |
| ESPC   | Etablissements Sanitaires de Première Contact(1차 의료기관)                            |
| EU     | European Union(유럽연합)                                                              |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식량농업기구)                   |
| FED    | 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유럽개발기금)                                           |
|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
| GCI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세계경쟁력지수)                                             |
| GDP    |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
| GIZ    |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獨국제개발본부)                  |
| HDI    |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
| HG     | Hôpital Général(Département 단위의 2차 의료기관)                                          |
| HIPC   | High Indebted Poor Countries(과다채무빈곤국)                                             |
| ICCO   | 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국제코코아기구)                                         |
| 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                                     |
| IDP    | Internally Displaced Person(국내실향민)                                                |
| IFAD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
| IFPRI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국제식량정책연구소)                           |
| IIAG   |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이브라힘거버넌스지수)                                   |
|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
| INFAS  | Institut National de Formation des Agents de Santé(보건인력양성기관)                      |
| INGO   |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국제 비정부 비영리기구)                         |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 JICA   |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日국제개발청)                                 |
| KAFACI |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br>(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 KOAFEC |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한-아프리카장관급회의)                         |

|        |                                                                                                       |
|--------|-------------------------------------------------------------------------------------------------------|
| LPI    | Logistics Performance Index(물류성과지수)                                                                   |
| MCC    |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美새천년도전공사)                                                            |
| MCLAU  | Ministère de la Construction, du Logement, de l'Assainissement et de l'Urbanisme<br>(건설주택위생 및 도시개발부)  |
| MEASFO | Ministère de l'Emploi,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br>(고용·사회복지 및 직업훈련부) |
| MENET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br>(국가교육 및 기술교육부)                   |
| MESRS  |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br>(고등교육 및 과학연구부)               |
| MDG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
| MPI    |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다차원적 빈곤지수)                                                             |
| MPTIC  | Ministère de la Poste et des TIC(우정·정부기술·통신부)                                                         |
| NPSP   | Nouvelle Pharmacie de Santé Publique(신의약품공급망)                                                         |
| NRI    | Networked Readiness Index(네트워크 준비지수)                                                                  |
| 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유엔인도지원조정국)                                        |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r>(경제협력개발기구)                                  |
| ONAD   | Office National de l'Assainissement et du Drainage(배수정화청)                                             |
| ONEP   | Office National de l'Eau Potable(식수청)                                                                 |
| ONDR   | 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a Rizculture(쌀발전진흥국)                                             |
| OSDA   | Observatoire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Agricole(농업발전전략관측소)                                           |
| PAA    | Port Autonome d'Abidjan(아비장항구관리공사)                                                                    |
| PAMT   | Plan d'Action à Moyen Term(교육분야 중기활동계획)                                                               |
| PND    | 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국가발전계획)                                                                |
| PNDS   |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보건발전국가전략)                                                    |
| 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
| PRSP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빈곤완화전략)                                                             |

|        |                                                                          |
|--------|--------------------------------------------------------------------------|
| PRSS   | Projet d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br>(보건시스템 역량강화 프로젝트)          |
| SNDR   |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ere Riz<br>(쌀 분야 발전 국가전략) |
| SODECI | Société de Distribution d'Eau de la Côte d'Ivoire(코트디부아르수도회사)            |
| UEMOA  | 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Ouest-Africaine<br>(서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
| 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br>(유엔무역개발회의)         |
|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
| UNFPA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유엔인구기금)                                   |
| UNICEF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유엔아동기금)                                   |
| UNIDO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공업개발기구)             |
| UNOCI  | UN Operation in Côte d'Ivoire(유엔코트디부아르임무단)                               |
| USAID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미국국제개발청)              |
| WDI    | World Development Index(세계개발지수)                                          |
| WEF    |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                                             |
| WFP    |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요 약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은 한반도의 1.4배에 해당하는 322,465km<sup>2</sup>의 국토면적을 지니며, 동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서쪽으로 기니와 라이베리아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다. 인구는 2,280만 명으로서 다민족·다종교를 특징으로 하며 2002년부터 10년 간 지속된 내전의 결과로 교육·보건 등 기초사회 환경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2011년 5월 공식 취임한 와타라 대통령은 “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PND)”라는 다음해 3월 4개년 국가개발전략을 발표하고 착실히 이행에 옮긴 바, 최근 8%가 넘는 고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AfDB 본부가 튀니지에서 복귀하는 등 대외신인도 및 외국투자자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10월 대선에서 무난히 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는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14년 7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투자, 인프라, 에너지, 농업, 제약 분야 및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또한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고속도로 및 항만인프라 등 다양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시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외교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반영하여 KOICA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코트디부아르의 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코트디부아르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의 틀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분야별 핵심 지표와 벤치마킹 국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급능력을 정량화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수요와 개발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으려고 노력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사회·경제 일반현황 및 분야별 개발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국가적 개발과제를 도출하였다.

- 내전 영향지역의 기초서비스 접근성 미비
-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정부행정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 미흡
- 아비장의 도시화에 따른 낙후된 인프라 및 환경문제
- 서아프리카 지역 물류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코트디부아르의 장기내전으로 인하여 특히 아비장과 서북부지역의 식수 및 위생시설 사용이 어려워지며, 영양문제가 심화되었고 모자보건 상태도 악화되었다. 또한, 학교와 병원이 붕괴되거나 폐쇄되고 인력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는 등 기초 사회접근성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내전의 영향으로 행정시스템의 붕괴 및 자료 유실과 부패가 심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의 거버넌스가 악화되었다. 기존 행정문서가 대부분 전자화 되어있지 않아 손실이 컸으며, 급증하는 외국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및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촉진을 가속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급증하여 현재 청년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내전을 거치며 제대로 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청년 실업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해 인력공급 측면에서 기업체는 곤란을 겪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은 현재 국가 전체 인구의 20%인 430만명의 인구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국제기구 등이 계속해서 아비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향후에도 아비장의 도시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비장의 도시인프라 규모나 서비스는 증가하는 도시인구에 대응할 만큼 발전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상하수도 관리 및 폐기물 관리 역시 인구대비 적절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비록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역할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비장항의 물류량이나 주변 국가와의 내륙 운송량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비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모와 서비스를 갖춘 물류운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서아프리카 내 Logistics Hub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로 및

철도의 경우, 주변 내륙 국가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항만 및 항공의 경우, 국제적 규모 및 서비스로 확장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인 「2012-2015 국가발전계획(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 2012-2015; PND 2012-2015)」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코트디부아르를 신흥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 빈곤률을 절반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PND의 전략적 목표로는 (1)굿 거버넌스가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조화로운 삶 영위, (2)국부 창출과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추구, (3)여성, 아동 및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제고, (4)건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의 삶 영위, (5)코트디부아르 지역적·국제적 지위 재조정으로 요약된다.

2015년 10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PND 2012-2015의 이행기간이 끝나면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다음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차 PND 검토 보고서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2,848개 중 우선순위계획 459개에 대해, 2012-2014년 간 167개가 완료되어 이행률 36.38%를 달성하였으며, 목표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계획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환경 및 도시화 관련 계획이 가장 적게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4년까지 경제구조 전환을 통한 빈곤퇴치 및 이를 위한 기반 인프라 건설(교통, 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고 1차 PND를 이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전략에서는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정세안정 및 치안, 의무교육, 내전 희생자 보상 등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초점을 맞춰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개발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덧붙여 의무교육 실현(L'école pour tous), 위생·보건 인프라 재개발, 국민건강보험의 효과적인 실행, 공공행정 도덕성 강화 및 내전 희생자 및 가족 보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략으로는 보건, 교육, 농업, 공공행정 분야 전략이 있다. 보건발전 국가전략(PNDS 2012-2015)은 내전으로 인해 붕괴된 공공 보건시스템 재건 및 모자보건 등

국민의 기초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부에서 작성하였으며, 세부 목표는 ①보건부의 리더십 및 보건 분야 거버넌스 강화, ②보건 분야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③5살 이하의 유아와 모성건강 강화, ④병원 내 감염을 포함한 질병 퇴치 강화, ⑤예방, 보건 캠페인,약품 접근성 강화이다. 교육 및 훈련 증기행동계획 2012-2014(PAMT 2012-2014)은 교육 관련 3대 부처인 국가교육 및 기술교육부(MENET),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부(MESRS), 고용·사회복지 및 직업훈련부(MEASFP) 합동으로 준비되었으며, 세부 전략은 ①재정적·물리적·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공정·건전한 분야별 개발기반 확립, ②직업교육 역량 회복, ③학생 수용능력 제고 및 기존 학교의 기능 복원, ④교실 건축비용의 효율화, ⑤공공재정과 부합하는 교육자 고용의 접근법 도입 등이다. 농업분야의 쌀 개발 국가전략 2012-2020(SNDR 2012-2020) 전략의 장기 비전 및 목적은 쌀 관련 농업활동을 통한 고소득 창출,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 코트디부아르 빈곤퇴치 및 식량안보 구현 등으로 이를 위한 단계적 목표는 1단계 2016년까지 쌀 자급 달성, 2단계 2018년까지 안전재고 및 규정수립, 3단계 쌀 수출국으로의 성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 전략 축으로 생산기술 지원 강화와 농촌지역 쌀 개발 및 밸류체인 강화를 설정하여 생산성과 시장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했다. 공공행정 분야의 정부 행정정보화 전략(e-Government)은 우정·정보기술·통신부(MPTIC)와 국가정보통신서비스기구(ANSUT) 합동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e-Government 프로젝트는 코트디부아르 공공행정 정보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및 기업들에게 적시에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크게 e-Administration과 e-Service의 2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개발계획에 동참하여 꾸준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대 코트디부아르 ODA는 2009년 및 2012년의 대규모 부채탕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으나, 평균적으로 15~20억불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원 분야별 ODA 수원현황을 살펴보면, 부채탕감의 비중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 지원 16%,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1%, 인도주의적 지원 4% 순이다. 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ODA 지원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1%에 달하는 채무구제이며, 이 외에 예산지원은 17.9%를, 프로젝트 지원은 18.12%를 차지하고 있다. 채무구제에 있어서는 세계은행과 프랑스가 30.4%와 2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뒤를 잇는다.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보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상위 공여국으로 활동 중이며 다자 공여기구인 세계은행(IDA), EU, AfDB 순이며, 한국은 양자 공여국 기준으로 21위 수준이다. AFD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원국가로서 부채 경감 및 개발계획(C2D)에 따라 주로 도시개발/식수위생, 교통인프라, 교육/직업훈련, 농업/농촌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1차 C2D(2012-2015) 대비 2차 C2D(2015-2020)의 예산총액은 거의 2배에 달하며, 2차 C2D 상의 일반예산지원 비중은 30%에 달한다. JICA는 1993년 자원봉사단 파견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2002년 잠정 철수, 2010년 내전 격화에 따른 양자협력 중단, 2011년 내전 종식과 함께 현지 사무소를 재개소하는 등 협력을 재개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회복, 행정 역량강화, 경제 인프라 강화, 산업발전 증진, 1차 산업부문 증진 등 5가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 연수, 기술협력, 무상원조 등 3가지 협력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현재 기술협력 10백만 달러, 무상원조 30-40백만 달러 정도이며, 향후 지원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USAID는 2011년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재개소 이후 HIV/AIDS 부문을 중심(75%)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GIZ는 농업, 인프라, 치안,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2차 PND 수립에 맞춰 국가원조전략(CPS)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거버넌스, 농업, 민간부문 개발, 인프라 및 기초서비스를 중점 분야로 지원하고 있다. 후속 전략은 기존 예산 규모의 2배인 750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11차 유럽개발기금(2014-2020)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에 2.73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국가안보 및 평화구축, 농업 및 식량확보, 에너지 등 세 가지 우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AfDB는 국가전략계획(CSP, 2013-2017)에 근거하여 (1) 거버넌스 및 책무성 강화, (2)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부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경우, 농업, 교통, 에너지 등 다부문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대상지역 역시 국가차원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차원으로 폭넓게 계획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 정부의 차기 대선 및 2차 PND 수립 계획에 따라 새로운 협력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력규모는 약 2배 정도로 증액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FD는 1차 C2D(2012-2015/630백만 유로) 종료 후 작년 말 2차 C2D(2015-2020 /1,120백만 유로)를 2배 예산규모로 체결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 역시 기존전략

(2010-2014/350백만 달러)을 마무리하고 신규전략(2015-2018/750백만 달러)을 수립할 계획이다. USAID의 경우에도 현재 연간 140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지원액을 2배로 증액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 확대 추세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활성화 및 정세안전에 따라 서아프리카 내에서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독일계 제약회사 Bayer 등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AfDB 등)들의 지역본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어 공여국에서도 원조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MCC의 경우에도 코트디부아르를 주요 전략국으로 설정, 향후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검토 중으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 ODA 규모 및 기업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CA는 1991년 이후 코트디부아르에 총 961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해왔으며,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지원 4건, 물자지원 22건, 초청 연수생 227명을 비롯하여 봉사단 2명과 의료단 2명을 파견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지원이 2000년도 내전 발발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2년에 재개, 2006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전체 무상원조 금액의 약 60% 이상이 2006년 이후에 진행되었다. 형태별로는 프로젝트 36%, 물자지원 27%, 연수생초청 20%, 의료단 파견 13% 순으로 지원하였다. 분야별로는 말라리아, 부롤리 귀양, 누관 치료 등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아비장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 등 교육 및 공공행정 IT 정보화를 지원한 바 있다. 2014년 정상회담 이후 협력 분위기가 심화되어 향후 KOICA에서는 UNFPA와의 누관치료 후속사업, AFD와의 식수위생 사업, 한-코 스포츠문화 ICT 협력센터 건립,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EDCF에서는 KOAFEC을 통해 새마을운동 사업, 국가정보화 전략수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KAFACI를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상에서의 코트디부아르 개발환경 및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특징과 한국의 지원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KOICA의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지원 기본방향으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 후 국가재건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협력 목표로 하여, 내전으로 무너진 커뮤니티의 재건과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첫번째 전

략적 우선순위와 역시 내전 과정에서 붕괴된 공공행정 및 낙후된 도시인프라의 현대화를 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은 현재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특히 내전이 격화되었던 아비장 및 서북부 지역의 경우, 사회인프라 전반이 무너지며 이에 공동체 붕괴의 위기까지 안고 있다. 이에, KOICA는 내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식수위생, 보건 및 교육 등 기초 사회부문 발전 역량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해당국 정부 핵심과제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 공공행정 및 도시인프라 역시 내전의 영향으로 손실되거나 낙후되어 국가 재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행정의 경우, 행정시스템의 붕괴 및 자료손실, 비즈니스 환경 및 행정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고, 아비장 등 주요 대도시의 인프라 역시 내전으로 인해 낙후되거나 증가하는 수요에 미처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KOICA가 코트디부아르 공공행정 및 도시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한다면, 안정적인 국가 재건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타(공공행정, 교육) 분야가 도출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10년 간 내전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해졌고, 현지 면담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개발의지 및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KOICA에서 최근 10년 내 부롤리퀘양, 말라리아 예방 및 누관치료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한 점, 향후 예정사업으로 누관치료 2차사업 및 식수위생 사업을 고려 중인 점,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 따른 대응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우선 지원 분야로 도출되었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내전으로 전국적인 인프라 복구 및 아비장 도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점, 주무 부처인 경제인프라부의 적극적인 수원태세, 향후 예정사업으로 아비장 교통시스템 개선 관련 프로젝트가 확정된 점, 역내 경제거점 구축에 따른 물류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순위로 선정되었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행정전산화 및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필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관련 협력의사가 높았던 점, 향후 예정사업으로 공공행정부와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점, 에볼라 방지 및 경제거점 구축을 위해 공공행정 강화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3순위로 선정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내전지를 중심으로 교육접근성 강화 및 청년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았고, 부처 면담과정에서 개발의지와 협력의사가 높은 점이 확인되었으나, 과거 KOICA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수 없고 해당 사업이 범분야에 해당되어 교육 분야의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은 아닌 점 등이 고려되어 4순위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세부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1) 지역 개발형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과 2) 기초 보건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제시하였고, 현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 및 INGO와의 협력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아비장 도시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1)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 사업 및 2) 아비장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관리 개선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발컨설팅(DEEP) 사업과 소규모 시범사업(Pilot)을 엮은 형태로 추진 시 예산 대비 높은 성과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JICA, World Bank 등 선행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의 사전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행정 현대화 및 인적자원 육성을 목표로 국가정보화 및 부처별 전자정부 도입 지원, 직업훈련 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개발형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 등을 통하여 내전 후 긴급히 요구되는 커뮤니티 및 사회서비스망 복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될 공공행정 부문과 아비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한 전략의 수립과 pilot사업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성과 측정,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엮은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역내 전략적 위상, 정부의 안정적 리더십, 급속한 경제성장 전망 및 여타 공여기관의 지원확대 동향, 양국 간 고위 협력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코트디부아르의 협력국 위상은 향후 중점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금번 3월에 발표된 제2차 중점협력국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해당국의 아프리카 중점 협력국 지정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 시점부터 3-4년 후를 바라보며 체계적으로 사업발굴과 함께 현지 사무소의 인력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지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현지 사무소장 및 인턴1명의 관리체제로는 향후 늘어날 업무를 관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사무소가 설립된 지 1년 남짓 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으로 업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부 인력의 사무소 배치가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타 공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리자급 현지 직원을 2-3명 채용하고 인근의 세네갈 사무소의 경험이 풍부한 현지 직원들을 단기간 파견하여 현지직원 워크숍 등을 추진함으로써 현지직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KOICA 업무 몰입도 및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지 공여국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역시 관리자급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 원활하게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Abstract





Côte d'Ivoire stretches over 322,465km<sup>2</sup> along the coast of West Africa and borders five countries: Ghana in the east, Burkina Faso and Mali in the north, and Guinea and Liberia in the west. The country's population of 22.8 million is ethnically rich and religiously diverse, but it has gone through a 10-year civil war, which deteriorated basic social conditions and system in education and health. With the end of the civil war, President Alassane Dramane Outtara was formally inaugurated in May 2011 and has announced the '4-year National Development Plan (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 PND)' in March 2012. With the implementation of PND, Côte d'Ivoire has maintained a high GDP growth rate above 8% and has recovered its international creditworthiness with the return of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headquarters from Tunis to Abidjan, the capital. It is thus expected that the President will win the second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end of 2015 without contest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in 1961, Côte d'Ivoire and Korea has strengthened ties through the Summit in July 2014, ranging from cooperation in trade, investment, infrastructure, energy, agriculture, pharmaceuticals, education to sports. Reflecting the strengthened economic and diplomatic ties between two countries, KOICA has pursued this research project to design the overall bilateral grant-aid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plan.

In pursuit of setting the course for KOICA's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ôte d'Ivoire, the research project reviewed Côte d'Ivoire'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trends. In order to establish an overarching strategic framework and specific action plans, the research team utilized a variety of analytic tools, such as quantit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experts, and field study. The research project adds valu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n local demands by weaving in results from a field study and quantitative analysis. Côte d'Ivoire's development needs and Korea's capacity for

ODA assistance were drawn from gaps between Côte d'Ivoire and benchmarking countries, as measured by key indicators in relevant sector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Côte d'Ivoire'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as well as sectoral development conditions, the research team has identified Côte d'Ivoire's national development challenges as follows:

- Limited access to basic social services in areas affected by the civil war
- Inefficient public administration
- Insufficient HRD system corresponding to industrial demands
- Aging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urbanization of Abidjan
- Regaining the position as a logistics hub in West Africa

A decade of civil conflict has limited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in Abidjan and northwestern regions, worsened nutrition issues and deteriorated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blems. Accessibility to basic social services has been hampered, as schools and hospitals were destroyed or closed. Crucial human resources have also been displaced to other regions, owing to political instability in Côte d'Ivoire. In addition, political instability has weakened national governance, especially due to the damage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loss of non-digitalized documents and worsened corruption. Moreover,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has been limited as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related administrative system are still far from reaching its potential. Meanwhile, youth unemployment has remained significantly high, due to the lack of adequat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during the political unrest, while the proportion of youth population has rapidly increased in the last decade. Although recent flourish of jobs stemming from expanding economy has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the youth, there is still a shortage of good quality labor force that may satisfy the market demands and meet the labor supply.

The population of Abidjan has reached its peak at 4.3 million, or 2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with recent surge of foreign investors,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o the city. Meanwhile, urban infrastructure in Abidjan is insufficient to accommodate a rising population in terms of scale and services. Hence, conditions of numerous traffic problems (e.g., congestion, high traffic accident rate and poorly 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adequate water facilities, poor waste management system, have aggravated.

Notwithstanding these issues and despite the weakened role in the region, Côte d'Ivoire has a considerable growth potential as a gateway to West Africa, given its significant freight volume to and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its port, rail and road infrastructure. Thus, Côte d'Ivoire needs to regain its position as a logistics hub in West Africa by investing in logistics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rail and road infrastructure will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landlocked neighboring countries. Moreover, it needs to equally expand and improve maritime and aviation infrastructur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tackle aforementioned national challenges, the government of Côte d'Ivoire has been implementing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2012-2015 PND. The PND aims to transform Côte d'Ivoire into an emerging country by 2020 and to halve the poverty rate. The strategic goals of PND include (1) leading a harmonious life in a stable society where good governance is assured, (2) pursuit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through fair distribution and creation of national wealth, (3) improvement of access to high quality social services for women, children and other vulnerable groups, (4) enabling life in a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nd (5) reaffirming Côte d'Ivoir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sition.

As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2012-2015 PND end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October 2015, the government of Côte d'Ivoire has published a review report on the 1st phase of PND in May 2015. Of 2,848 action plans, 459 plans have been identified as priority action plans and 167 plans were finalized during 2012-2014, with the completion rate of 36.38%. The Ivori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1st PND until 2014 with a focus on economic transition as a means to reduce poverty as well as on the construction of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and energ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focus on inclusive growth by strengthening social sectors (i.e. education, health, etc.) in the next development plan. Specific areas of focus include employment of women and youth, political security and stability, universal education and compensations for the victims of conflicts. Also, realization of universal education (L'école pour tous), rebuilding health and sanitation infrastruct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trengthening sound governance for fai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families affected by long political unrest will be the primary focus of the next plan.

Furthermore, Côte d'Ivoire has established sectoral strategies in health, education, agriculture and public governance. The Ministry of Health formulated 2012-2015 National Health Plan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 2012-2015) to rebuild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to improve national primary health care, includ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It aims ①to strengthen governance and leadership of the health ministry, ②to improve th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healthcare services, ③to improve the health of mothers and children under five, ④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diseases and hospital infections, and ⑤to strengthen infection prevention, promote awareness in health and increase access to proper medicine. Meanwhile, the Mid-term Action plan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2012-2014 (Plan d'Action à Moyen Term 2012-2014; PAMT 2012-2014) was jointly formulated by three releva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nd technical training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 MENET),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MESR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vocational training (Ministère de l'Emploi,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MEASFP). The goals of the strategy include ①efficient use of financial/physical/human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fair and sound educational platform, ②recovery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③enhancement of capacity for accommodating more students and restoring existing schools' functions, ④improvement of cost efficiency in constructing new classrooms, and ⑤introduction of a new scheme for hiring teachers in alignment with public finance.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Rice for 2012-2020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Riz; SNDR 2012-2020) aims to generate high income through rice-related agricultural activities, to produce high quality rice products, to reduce national poverty and to achieve food security. Detailed objectives are 100% self-sufficiency in national rice until 2016 (Phase 1), build-up of a safety or buffer stock until 2018 (Phase 2) and growth as a rice-exporting country (Phase 3). To improve productivity and market access, the government plans to 1) strengthen assistance on production technology and 2)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rice products and value chain in the rural area. Lastly, the e-Government initiative was jointly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post and ICT (Ministère de la Poste et des TIC; MPTIC) and National Agency for universal telecommunication service (Agence Nationale du Service Universel des Télécommunications; ANSUT), which mainly aims to foster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vide high-qualit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compan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joined Côte d'Ivoire's efforts towards achieving the development plan. The total ODA amount for the last ten years averaged 1.5-2 billion USD, with a temporary surge in 2009 and 2012 for a large scale debt relief. Further breakdown of Côte d'Ivoire's ODA by sector shows that

debt relief accounts for 64% of the total ODA, followed by program support (16%),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11%) and humanitarian aid (4%). In terms of ODA types, debt relief amounted to 61%, while budget support and projects amounted to 17.9% and 18.12%, respectively. In addition, 30.4% and 27.7% of debt relief respectively came from the World Bank and France, followed by other European countries.

France, Germany, USA and Japan are among the main donors, while the World Bank (IDA), EU, AfDB stand out from multilateral agencies. Meanwhile, Korea ranked 21st among bilateral partners, with respect to the average amount of aid during 2011-2013. AFD is the largest donor agency in Côte d'Ivoire that mainly supports urbanization/water and sanitation, transport infrastructure, education/vocational training, agriculture/rural development, based on the C2D (Contrat de Désendettement et de Développement mechanism). The total budget of the 2nd C2D for 2015-2020 will likely be doubled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1st C2D, with general budget support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30% of the total budget. JICA initiated bilateral cooperation with Côte d'Ivoire in 1993 by dispatching volunteers. JICA temporarily withdrew in 2002 and suspended its involvement in 2010 due to the post-election crisis. By the end of the civil war in 2011, however, JICA resumed cooperation by reopening its office in Abidjan, and is currently supporting five major programs (i.e., restoration of governance, restoration of confidence in administration, reinforcement of economic infrastructure, promo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rimary sector). About 10 million USD of JICA's budget goes to technical assistance, while 30-40 million USD is given out as grant aid. The ODA amount for both modalities will likely remain at the current level. USAID has reopened the Abidjan Office in 2011 and has supported Côte d'Ivoire with a focus on HIV/AIDS (75%). It plans to expand and focus coope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ivate sector. GIZ has been active in Côte d'Ivoire in areas of agriculture, infrastructure, security and environment.

World Bank focuses on governance, agriculture, 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and basic social services. It is also updating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in accordance with the 2nd PND. The World Bank is expected to support approximately 750 million USD in the next CPS, which is twice the budget of the current CPS. EU pledged 2.73 billion Euros under the 11th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NIP, 2014-2020) in order to support national security and peace building,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energy. AfDB operates based on the Country Strategic Plan (CSP, 2013-2017) that focuses on (1)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nd (2) supporting economic revival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 in various areas, such as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energy. It also aims to widen the scope of cooperation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regional level in West Africa.

Most donor agencies are preparing for new cooperation strategies and doubling the budge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PND. AFD signed the 2nd C2D (2015-2020/1,120 million Euros) with twice the budget of the 1st C2D (2012-2015/630 million Euros), while the World Bank is planning on establishing a new strategy (2015-2018/750 million USD) by this year, which replaces the existing strategy (2010-2015/350 million USD). USAID is also aiming to double the current annual budget of 140 million USD. This trend of budget expansion is based on the recovery of Côte d'Ivoire's political and economic importance in West Africa. In particular, as international companies (e.g., German pharmaceutical company 'Bayer')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ional headquarters (e.g., AfDB) are returning to Côte d'Ivoire, donors are actively supporting the reemergence of Côte d'Ivoire through increased aid. Furthermore, 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a bilateral United States foreign aid agency, has selected Côte d'Ivoire for the Threshold Program in infrastructure with half a billion USD, and is expected to expand the ODA scale and business in Côte d'Ivoire.

Since 1991, KOICA Côte d'Ivoire Office has supported a total grant aid of 961 million USD, which comprises of four projects, 22 cases of aid in kind/in cash and invitational training for 227 persons as well as dispatch of two volunteers and two medical personnels. KOICA's cooperation was suspended after the civil war but resumed in 2002 and has been rising since 2006. In fact, 60% of the total ODA grant was given after 2006. Types of aid include projects (36%), aid in kind/in cash (27%), invitational training (20%) and dispatch of medical personnels (13%). KOICA has been active in the health sector, especially in the treatment of diseases, such as malaria, buruli ulcer and fistula. Moreover, it has assisted informatization in education by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developing IT system for the national university in Abidjan. KOICA has also supported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by designing the intranet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Following the 2014 summit, KOICA has been planning to launch the phase II project of fistula treatment in cooperation with UNFPA, as well as to support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in cooperation with AFD. Other projects include construction of Korea-Côte d'Ivoire Sport, Culture and ICT cooperation center and project for improving the transport system in Abidjan. Aside from KOICA, EDCF provides assistance in the Saemaul Undong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through KOAFEC, whil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perates through KAFACI.

This research further laid out KOICA's cooperation framework for Côte d'Ivoire based on the analyses on Côte d'Ivoire'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olicy,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assistance, and Korea's ODA outcomes.

A new direction in KOICA's cooperation strategy in Côte d'Ivoire should be to support Côte d'Ivoire's post-war challenges, such as nation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It is thereby recommended that the first strategic priority be to reintegrate communities and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while the

second strategic priority should be to modernize public administration and urban infrastructure, both of which have been affected by political conflicts.

The civil war from 2002 to 2011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national development, especially as it destroyed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collapsed communities in the Abidjan and northwestern areas, where conflicts have been most intense. Taking this into account, KOICA should focus on rebuilding basic social services (i.e. water/sanitation, health and education, etc.) in the affected areas in order to give greater support to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urban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damaged or outdated by the civil war are also major obstacles to national reconstruction. There are numerous problems in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the weakened administrative system, loss of documents, inadequate business environment as well as insufficient urban infrastructure in major cities like Abidjan, especially given the increasing population. Thus, KOICA can contribute to national reconstruction by moderniz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urban infrastructure.

After a careful synthe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health and infrastructure have been identified as priority sectors, followed by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Health is not only KOICA's top priority sector, but also the nation's priority, especially due to weakened national health system and new challenges in the region, like the Ebola crisis. The order of priority also stems from the fact that three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for Buruli ulcer treatment, the project for malaria prevention and the project for fistula treatment, were successfully implemented by KOICA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Health in the last 10 years. In addition, phase II project of fistula treatment and project for water and sanitation are firmly placed in KOICA's pipeline.

Infrastructure has been selected as the second priority sector, especially in response to a growing need of assistance to reconstruct and improve urban infrastructure in Abidjan. Upon considering the Ministry of Economic Infrastructure's high willingness to cooperate, KOICA is also planning on implementing a project for improving the transport system in Abidjan.

With regard to public administration, there is a political need and strong support to computerize and improve administration in order to tackle national challenges and position Côte d'Ivoire as an economic hub in West Africa. As KOICA is considering to support e-government initiatives of the government of Côte d'Ivoire, the sector deserves to be selected as the 3rd priority sector.

Education has a high political priority, especially with respect to improving access to education in affected areas and training youth professionals in the industry. Moreov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lso shows activeness and high willingness to cooperate. However, it was selected as the 4th priority sector, as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prior assistance have not been formally evaluated.

The sectoral cooperation program and plans are as follows.

With regards to health sector, the main goal is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enhance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Projects that may fulfill these goals are 1) community-driven health project for maternal/child health and improved access on water/sanitation and 2) training basic healthcare professionals. These projects may benefit from partnering with multilateral or bilateral agencies and international NGOs that possess ample experience and capacity in the sector.

In case of infrastructure sector, the overarching goal should be to improve urban infrastructure in Abidjan. As such, the following projects are recommended for Abidjan: 1) Project for improving the traffic system and 2) Project for improving water supply, drainage and waste management. These projects may be pursued as a joint program that ties in development consulting project (DEEP) and small-scaled pilot project. Cooperating with experienced agencies like JICA and the World Bank may contribute to greater cost-effectiveness and could mitigate risk factors.

With the goal of moderniz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ing human resources, it is advisable to pursue stand-alone projects for national and ministerial e-government initiatives and vocational training projects.

In the short-term, KOICA should focus on community-driven health projects for maternal/child health and water/sanitation in order to support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network, which is the most pressing post-conflict issue. In the mid-to long-term, KOICA should focus on improving urban infrastructure in Abidjan and supporting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erms of sectors for mid- to long-term intervention, it is advisable for KOICA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program which includes conducting a thorough basic study, establishing the strategy, implementing pilot projects and improving the capacity of relevant stakeholders.

Given Côte d'Ivoire's strategic position in West Africa, strong government leadership, prospects of rapid economic growth, upward trend of ODA as well as willingness of both governments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it is advisable to position Côte d'Ivoire as KOICA's priority partner country in the near future. Although Côte d'Ivoire has been excluded from the list of 2nd phase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nounced in March 2015, KOICA needs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on selecting Côte d'Ivoire as future priority partner country in the

African region. It is thu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velop projects and to expand human resources of KOICA Côte d'Ivoire Office over the next three to four years.

As identified in the field study, the current workforce of KOICA Côte d'Ivoire Office needs to be expanded significantly. In case of difficulties in dispatching new Korean staffs to KOICA Côte d'Ivoire Office, KOICA should consider recruiting two or three senior local staffs who have experience in other donor agenc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reased local staff capacity would also benefit KOICA Côte d'Ivoire Office to actively participate in donor working group meetings, which would lay strong basis for KOICA to become a leading emerging donor in Côte d'Ivoire.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Résumé





La Côte d'Ivoire s'étend sur une superficie de 322.465 km<sup>2</sup> sur la côte ouest africaine et est limitée par 5 pays : A l'Est, le Ghana; Au Nord, le Burkina Faso et le Mali; Et à l'Ouest, la Guinée et le Liberia. Avec une population de 22,8 millions d'habitants, elle dispose d'une diversité ethnique et religieuse. Durant une décennie, la Côte d'Ivoire a connu une guerre civile qui a détérioré les infrastructures sociales de base et les systèmes dans les secteurs de l'éducation et de la santé. A la fin de cette crise, le Président Alassane Ouattara, investi en Mai 2011, a annoncé un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PND) pour une période de 4 ans en Mars 2012. La mise en œuvre de ce Plan a permis à la Côte d'Ivoire d'obtenir un fort taux de croissance du PIB supérieur à 8% et de renouer d'avec sa crédibilité sur la scène internationale avec le retour du siège social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 de Tunis à Abidjan, la capitale. Ainsi on s'y attend à une réélection du Président Alassane Ouattara à la fin de l'année 2015 sans contestation.

Depuis l'établissemen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bilatérales en 1961, la Côte d'Ivoire et la Corée ont renforcé davantage leurs liens de coopération à l'occasion du Sommet de Juillet 2014 dans les domaines du commerce, de l'investissement, de l'infrastructure, de l'énergie, de l'agriculture, des produits pharmaceutiques, de l'éducation et du sport. Dans le cadre du renforcement des liens économiques et diplomatiques entre les deux pays, KOICA (Agenc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Coréenne) a réalisé un projet de recherche (étude) pour concevoir un cadre global de subventions bilatérales et un plan de mise en œuvre.

En vue développer la coopération future entre KOICA et la Côte d'Ivoire, cette étude a passé en revue l'environnement de développement de la Côte d'Ivoire et s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nationale aussi bien que les différentes aides internationales. Pour élaborer le cadre stratégique global et les plans d'actions spécifiques, l'équipe de recherche a utilisé une variété d'outils analytiques,

comme l'analyse quantitative, la revue de littérature, des entretiens et des réunions avec des experts ainsi qu'une visite de terrain. Cette étude réalisée sur la base d'une visite de terrain et d'une analyse quantitative a permis de mettre en exergue les besoins locaux du pays. Le plan d'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de la Corée a été élaboré par rapport aux besoins de développement de la Côte d'Ivoire en s'appuyant sur les gaps qui prévalent entre la Côte d'Ivoire et les pays développés, comme le révèlent les indicateurs dans les secteurs clés.

Suite à une analyse approfondie de l'environnement socio-économique et politique de la Côte d'Ivoire et des conditions de développement sectorielles, l'équipe de recherche (d'experts) a identifié les défis de développement nationaux comme suit :

- Accès limité aux services sociaux de base dans les zones affectées par la guerre civile ;
- Inefficacité de l'administration publique ;
- Insuffisance du système d'Information aux ressources humaines (SIRH) correspondant aux exigences industrielles ;
- Infrastructure vieillissante et problèmes environnementaux liés à l'urbanisation d'Abidjan ;
- Repositionnement de la Côte d'Ivoire comme modèle en matière de logistique en Afrique de l'Ouest.

Cette décennie de guerre civile a limité l'accès à l'eau potable et ralenti les travaux d'assainissement à Abidjan et dans certaines régions du nord-ouest. Elle a également aggravé les questions relatives à la nutrition et les problèmes liés à la santé de la mère et de l'enfant. L'accessibilité aux services sociaux de base a été entravée par la destruction ou la fermeture de certaines écoles et centres de santé. De plus, l'instabilité politique qu'a connue la Côte d'Ivoire a occasionné

un déplacement crucial des ressources humaines vers d'autres régions, et affaibli la gouvernance nationale, essentiellement dus aux dégâts du système administratif, à la perte de documents non informatisés et à l'aggravation de la corruption. Par ailleurs, l'attraction des investissements étrangers a été ralentie à cause de l'environnement des affaires et du système administratif qui sont loin d'atteindre leur meilleur niveau. Pendant ce temps, le taux de chômage des jeunes s'est accru considérablement du fait d'un manque de formation adéquate et de services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pendant la crise socio- politique, tandis que la proportion de la population jeune a rapidement augmenté la décennie dernière. Bien que récemment les fruits de la croissance économique aient offert des opportunités à la jeunesse en générant un nombre considérable d'emplois, le pays est toujours confronté à un déficit de main-d'œuvre de bonne qualité qui puisse satisfaire et respecter les demandes du marché de l'emploi.

La population d'Abidjan a grimpé considérablement à 4,3 millions d'habitants, soit 20% de la population totale, et ne fera qu'augmenter avec cette montée récente d'investisseurs étrangers, d'entreprises et d'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ntre temps, la ville d'Abidjan dispose d'infrastructures insuffisantes pour accueillir une population grandissante en termes d'échelle et de services, d'où les problèmes de trafic (par exemple, la congestion, le taux élevé des accidents de circulation et le système des transports communs mal organisé) les installations inadéquates de production d'eau potable et le système de gestion des déchets déjà affaibli se sont empirés.

En dépit de ces problèmes, la Côte d'Ivoire dispose d'un énorme potentiel économique avec des atouts portuaires d'une capacité significative qui facilitent l'échange avec les pays de la sous-région par le biais de son infrastructure portuaire, ferroviaire et routière. Ainsi, il faut investir dans le secteur du transport pour permettre à la Côte d'Ivoire d'être à nouveau un modèle en matière de logistique en Afrique de l'ouest car l'amélioration de son

infrastructure ferroviaire et routière va renforcer ses relations avec les pays enclavés de la sous-région. De plus, il faut également étendre et améliorer son infrastructure maritime et aéroportuaire pour qu'elle respecte les normes internationales.

Pour aborder les défis de développement mentionnés ci-dessus, le gouvernement de Côte d'Ivoire a mis en œuvre des projets de développement basés sur le PND 2012-2015. Ce Plan vise à faire de la Côte d'Ivoire un pays émergent et à réduire de moitié le taux de pauvreté d'ici 2020. Les objectifs stratégiques du PND sont comme suit: (i) les populations vivent dans une société sécurisée dans laquelle la bonne gouvernance est assurée, (ii) la création de richesses nationales est accrue et soutenue et les fruits de la croissance sont distribués dans l'équité, (iii) les populations, en particulier les femmes, les enfants et autres groupes vulnérables ont accès aux services sociaux de qualité dans l'équité, (iv) les populations vivent dans un environnement sain et un cadre de vie adéquat et (v) le repositionnement de la Côte d'Ivoire sur la scène régionale et internationale est effectif.

S'agissant de la mise en œuvre du PND sur la période 2012-2015 qui s'achève avant l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d'octobre 2015, le Gouvernement de Côte d'Ivoire a publié le rapport de la revue globale de la 1ère phase du PND en mai 2015. Sur 2.848 plans d'actions, 459 ont été identifiées comme actions majeures dont 167 ont été réalisées, soit un taux d'exécution de 36,38%. Le gouvernement Ivoirien a exécuté le 1er PND jusqu'en 2014 en mettant l'accent sur la transition économique comme moyen de réduction de la pauvreté aussi bien que sur le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e base, notamment dans les secteurs du transport et de l'énergie. Dans son prochain Plan, L'Etat a prévu de se concentrer sur la création de richesses nationales en renforçant les secteurs sociaux (par exemple : l'éducation, la santé etc.). Les domaines spécifiques de concentration incluent l'insertion des femmes et des jeunes, la stabilité du climat

politique dans une société sécurisée, l'école pour tous et les indemnités des victimes de guerre. Aussi, la réalisation de « l'école pour tous », le renforcement de l'infrastructure sanitaire, la mise en œuvre effective de l'assurance maladie universelle, et le renforcement de la gouvernance à travers une compensation équitable des victimes et familles qui ont souffert de cette longue période de soubresauts politiques seront les objectifs principaux du prochain PND.

Par ailleurs, la Côte d'Ivoire a élaboré des stratégies sectorielles pour la santé, l'éducation et la gouvernance publique. En effet, le ministère de la santé a élaboré le PNDS 2012-2015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en vue de renforcer le système sanitaire et développer le niveau primaire de la santé incluant la santé de la mère et de l'enfant. Ce plan vise à : (i) renforcer la gouvernance et le leadership du ministère ; (ii) améliorer la qualité et l'accessibilité des services de santé ; (iii) prendre en charge la mère et l'enfant de 0 à 5 ans ; (iv) renforcer la lutte contre les maladies et les infections et (v) prendre des mesures préventives efficaces en cas d'épidémie, stimuler la prise de conscience des populations sur la question de la santé et leur faciliter l'acquisition des médicaments appropriés.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et la formation, un plan d'action à moyen terme 2012-2014 (PAMT 2012-2014) a été élaboré conjointement par les trois ministères concernés notamment le Ministère de l'Education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 (MENET), le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MESRS) et le Ministère de l'Emploi,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MEASFP). Les objectifs de cette stratégie sont : (i) l'utilisation efficiente des ressources financières, physiques et humaines et la création d'une bonne plate-forme éducative, (ii)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iii) le renforcement du dispositif éducatif pour accueillir plus d'étudiants et la restauration du dispositif existant, (iv) la

mobilisation de plus de fonds pour construire davantage de salles, (v) l'exécution d'un nouveau plan de recrutement des enseignants conformément au fonds publics disponibles.

Quant au secteur de l'Agriculture, la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Riz (SNDR 2012-2020) a pour but de générer un revenu important à travers des activités agricoles, produire du riz de bonne qualité, réduire le taux de pauvreté et réaliser la sécurité alimentaire sur le territoire national. Les objectifs détaillés sont comme suit : (Phase 1) l'autosuffisance en riz à 100% sur le plan national jusqu'en 2016, (Phase 2) l'amélioration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ou accumulation des stocks alimentaires jusqu'en 2018, (Phase 3) et le positionnement de la Côte d'Ivoire en tant que pays exportateur du riz sur la scène internationale. Pour améliorer la productivité et faciliter l'accès au marché, le gouvernement envisage (i) améliorer les techniques de production et (ii) promouvoir le développement du riz local et la chaîne de valeurs dans le milieu rural. Enfin, l'initiative e-gouv a été prise conjointement par le Ministère de la poste et des TIC (MPTIC) et l'Agence Nationale du Service Universel des Télécommunications (ANSUT) et vise particulièrement à renforcer l'efficacité de l'administration et à fournir des prestations ou services de haute qualité aux citoyens et entreprise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est jointe aux efforts de la Côte d'Ivoire pour l'exécution du PND. Le montant total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pour les dix dernières années était compris entre 1.5 et 2 milliards de Dollars US avec une hausse temporaire entre 2009 et 2012 pour les allègements de dettes à grande échelle. Les prochaines répartitions d'APD pour la Côte d'Ivoire par secteur montrent que l'allègement de dettes représente 64% du montant total de l'APD, suivis d'un programme d'appui (16%) ; des infrastructures sociales et services (11%) ; et des aides Humanitaires (4%). Au niveau des types d'APD, l'allègement des dettes s'est élevé à 61% tandis que l'appui budgétaire et

de projets est passé respectivement de 17.9% à 18.12%. De plus, la Banque Mondiale et la France représentent les 30,4% des allègements des dettes, suivis par d'autres pays d'Europe 27,7%.

La France, l'Allemagne, les Etats-Unis d'Amérique et le Japon sont parmi les principaux donateurs tandis que la Banque Mondiale (IDA), l'Union Européenne, la BAD surpassent les agences multilatérales. Entre temps, la Corée est classée 21ème parmi les partenaires bilatéraux par rapport à la moyenne du montant d'aide de 2011 à 2013. L'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est la plus grande agence donatrice en Côte d'Ivoire qui appuie principalement les secteurs de l'urbanisation et l'assainissement ; de l'infrastructure du transport; de l'éducation/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 l'Agriculture/le Développement rural sur la base du Contrat de Désendettement et de Développement (C2D). Le budget total du 2ème C2D sera probablement doublé par rapport à celui du 1er C2D avec l'appui budgétaire général représentant approximativement 30% du budget total. La JICA a établi sa coopération bilatérale avec la Côte d'Ivoire en envoyant des volontaires. Elle s'est retirée temporairement en 2002 et a suspendu ses activités en 2010 due à la crise post-électorale. Toutefois, à la fin de la guerre en 2011, la JICA a repris sa coopération en rouvrant ses bureaux à Abidjan et appuie actuellement cinq (5) programmes majeurs (l'amélioration de la gouvernance, l'amélioration de l'image de l'administration, le renforcement de l'infrastructure économique,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industriel, et la promotion du secteur primaire). Environ 10 millions de Dollars Américain du budget de la JICA sont alloués à l'appui technique pendant que 30 à 40 millions de Dollars sont distribués comme des subventions. Le montant de l'APD pour les deux modalités (appui technique et subventions) restera probablement au niveau actuel. USAID a rouvert son bureau à Abidjan en 2011 et a appuyé la Côte d'Ivoire dans la lutte contre le VIH/SIDA (75%). Elle envisage étendre et renforcer sa coopération dans les domaines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du secteur privé. La GIZ a été actif en Côte d'Ivoire dans les domaines de l'Agriculture, de l'infrastructure, de sécurité et de l'environnement.

La Banque Mondiale se concentre sur les domaines de l'Agriculture, du secteur privé, de l'infrastructure et des services sociaux de base. Elle met également à jour la Stratégie de Partenariat Pays (CPS) conformément au 2ème PND. Dans la prochaine CPS, elle envisage apporter une aide à hauteur de 750 millions de Dollars US, équivalent à deux fois le budget de la CPS en cours. L'Union Européenne (UE) envisage mettre à la disposition de la Côte d'Ivoire un montant de 2,73 milliards de Dollars US sous le 11ème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IN 2014-2020) en vue d'appuyer les domaines de la sécurité nationale et de la consolidation de la paix, de l'agriculture,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et de l'énergie. La BAD intervient sur la base de son Plan Stratégique Pays (CSP 2013-2017) qui vise à (i) renforcer la gouvernance et la transparence et (ii) à appuyer le redressement économique en construisant des infrastructures dans divers domaines tels que l'agriculture, le transport et l'énergie. Elle a aussi pour but d'élargir son cadre de coopération du niveau national au niveau régional en Afrique de l'Ouest.

La plupart des agences donatrices préparent de nouvelles stratégies de coopération et doublent leurs budgets en prenant en compte les prochain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t l'élaboration du 2ème PND. L'AFD a signé le 2ème C2D (2015-2020/1.120 millions d'Euros) équivalent à deux fois le budget du 1er (2012-2015/630 millions d'Euros), tandis que la Banque Mondiale envisage élaborer une nouvelle stratégie (2015-2018/750 millions de Dollars US) cette année qui remplace la stratégie existante (2010-2015/350 millions de Dollars US). USAID vise également à doubler son budget annuel actuel d'un montant 140 millions de Dollars US. Cette tendance d'expansion budgétaire est justifiée par le rétablissement de l'importance politique et économique de la Côte d'Ivoire en Afrique de l'Ouest. En effet, le retour de certaines entreprises internationales (telles que le laboratoire pharmaceutique Allemand « BAYER ») et les sièges sociales régionale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par exemple la BAD) en Côte d'Ivoire, amènent les donateurs à appuyer activement sa renaissance à

travers des subventions accrues. En outre, le «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 qui est une Agence bilatérale d'aide américaine, a choisi la Côte d'Ivoire pour le Programme Threshold dans le domaine des infrastructures à hauteur d'un demi-milliard de Dollars US et envisage étendre le montant de l'APD et ses activités en Côte d'Ivoire.

Depuis 1991, le montant total des subventions de KOICA en Côte d'Ivoire s'élève à 961 millions de Dollars US, et comprend quatre (4) projets, 22 cas d'aide en nature et en espèce. En outre, elle a distribué 227 bourses étrangères et envoyé deux volontaires et deux personnels médicaux. KOICA avait suspendu sa coopération après le coup d'Etat, mais elle a repris en 2002 et a évolué depuis 2006. En effet, 60% des subventions totales de l'APD ont été alloués après 2006. Les types d'aide incluent les projets (36%) ; les aides en nature et en espèce (27%) ; les bourses étrangères (20%) ; et l'envoi de personnels médicaux (13%). KOICA a été active dans le secteur de la santé, particulièrement dans la lutte contre des maladies, telles que le paludisme, l'ulcère de buruli et la fistule. De plus, elle a assisté le Gouvernement dans l'informatisation du secteur éducatif en mettant en œuvre le Projet de Développement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Université Nationale d'Abidjan (Université Félix Houphouët Boigny). Elle a également appuyé l'informatisation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n concevant l'Intranet du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Formation Technique (MENET). Suite au sommet de 2014, KOICA a envisagé lancer la phase II du projet de lutte contre la fistule en collaboration avec l'UNFPA et appuyer le projet d'assainissement en collaboration avec l'AFD. D'autres projets comprennent la construction d'un centre sportif Ivoirien-Coréen, d'un centre de coopération de la culture et des TIC et un projet d'amélioration du système de transport à Abidjan. A part KOICA, EDCF apporte une aide dans le cadre du projet Saemaul Undong dans l'élaboration de la stratégie d'informatisation nationale à travers KOAFEC tandis que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s Affaires Alimentaires et Rurales intervient à travers KAFACI.

Cette étude présente plus loin le cadre de Coopération de KOICA pour la Côte d'Ivoire basée sur l'analyse de son environnement de développement et de sa politique, les tendances et les caractéristiques d'aide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t les résultats de l'APD de la Corée. Une nouvelle orientation dans la stratégie de coopération de KOICA en Côte d'Ivoire devrait appuyer les défis de l'après-guerre tels que la reconstruction nationale et la revitalisation de l'économie. On recommande de ce fait que la première priorité stratégique devrait réintégrer les communautés et cultiver des ressources humaines pendant que la deuxième priorité stratégique devrait moderniser l'administration publique et l'infrastructure urbaine, lesquels ont été affectés par les conflits politiques.

La guerre civile de 2002 à 2011 est le facteur limitant du développement national, d'autant plus qu'elle a détruit des infrastructures sociales et divisé des communautés à Abidjan et dans le nord-est du pays où les conflits ont été plus intenses. Tenant compte de cette donne, KOICA devrait se concentrer sur la reconstruction des services sociaux de base (par exemple l'eau/l'assainissement, la santé et l'éducation etc.) dans les zones affectées en vue de apporter un grand appui à la réconciliation nationale et au rapprochement des communautés. L'administration publique et les infrastructures urbaines qui sont démodées ou endommagées en raison de la guerre civile sont des obstacles majeurs à la reconstruction nationale. Il y a de nombreux problèmes dans le domain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tels que la lenteur du système administratif, la perte des documents non informatisés, un environnement d'affaires inadéquat aussi bien que l'insuffisance des infrastructures urbaines dans de grandes villes comme Abidjan, particulièrement en raison de la croissance de la population. Ainsi, KOICA peut contribuer à la réconciliation nationale en modernisant l'administration publique et les infrastructures urbaines.

Après une synthèse soignée des analyses quantitatives et qualitatives, les secteurs de la santé et de l'infrastructure ont été identifiés comme des secteurs

prioritaires, y compris ceux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éducation. Le secteur de la santé n'est non seulement la priorité absolue de KOICA mais celle de la nation notamment à cause de son système sanitaire affaibli et de nouveaux défis dans la région tels que la crise Ebola. Cet ordre de priorité est établi du fait que trois projets, tels que le projet de la lutte contre l'ulcère de buruli, le projet de la prévention du paludisme et le projet de la lutte contre la fistule ont été mis en œuvre avec succès par KOICA suivi d'un grand soutien du Ministère de la santé dans les 10 dernières années. De plus, la phase II du projet de la lutte contre la fistule et celui de l'eau/de l'assainissement sont fermement placés au premier plan des priorités de KOICA.

Le secteur de l'infrastructure a été choisi comme le 2ème secteur prioritaire, particulièrement en raison d'un besoin croissant d'aide pour la reconstruction et l'amélioration des infrastructures urbaines à Abidjan. Considérant la bonne volonté de collaboration du Ministère des infrastructures Economiques, KOICA envisage exécuter un projet pour l'amélioration du système de transport d'Abidjan.

En ce qui concerne l'administration publique, il y a un besoin crucial d'informatisation et d'amélioration de l'administration en vue d'aborder les défis nationaux et de positionner la Côte d'Ivoire en tant que modèle économique en Afrique de l'Ouest. Partant du fait que KOICA envisage appuyer l'initiative e-gouv du gouvernement de Côte d'Ivoire, ce secteur mérite d'être choisi comme le 3ème secteur prioritaire.

Le secteur de l'éducation est significativement une priorité politique, notamment en raison de l'amélioration de l'accès à l'éducation dans les zones affectées et de la formation des jeunes professionnels dans l'industrie. De plus,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Formation Technique (MENET) fait preuve de sa bonne volonté de collaborer avec KOICA. Cependant, ce secteur a été choisi comme le 4ème secteur prioritaire étant donné que l'efficacité et l'impact de l'aide antérieure n'ont pas été formellement évalués.

Le programme de coopération sectoriel et les projets se présentent comme suit :

En ce qui concerne le secteur de la santé, l'objectif principal est d'améliorer la santé de la mère et de l'enfant, et d'améliorer l'accès à l'eau potable et l'assainissement. Les projets qui peuvent atteindre ces objectifs sont : (i) le projet communautaire axé sur la santé de la mère et de l'enfant et sur l'amélioration de l'accès à l'eau potable et de l'assainissement et ; (ii) la formation de professionnels de la santé de base. La mise en œuvre de ces projets peut se faire en partenariat avec des agences multilatérales ou bilatérales et des ONG (organisations non-gouvernementales) internationales qui ont de plus amples expériences et compétence dans ce secteur.

Dans le secteur de l'infrastructure, l'objectif principal devrait être d'améliorer les infrastructures urbaines à Abidjan. A ce titre, on recommande les projets suivants pour la ville d'Abidjan: (i) projet de l'amélioration du système de trafic et ; (ii) projet de l'amélioration de l'approvisionnement en eau potable, du système de drainage et de la gestion de déchets. Ces projets peuvent être poursuivis comme un programme conjoint qui lie le projet de consultation de développement (DEEP) au projet pilote. Notre collaboration avec des agences expérimentées telles que la JICA et la Banque Mondiale pourrait contribuer à une plus grande rentabilité et à mitiger des facteurs de risque.

En vue de moderniser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développer des ressources humaines, il est recommandé de poursuivre des projets autonomes pour les initiatives e-gouv au niveau national et administratif et pour des projet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Dans le court terme, KOICA devrait se concentrer sur le projet communautaire axé sur la santé de la mère et de l'enfant et sur l'amélioration de l'accès à l'eau potable et de l'assainissement en vue d'appuyer la cohésion sociale et le

réseau des services sociaux qui est la question urgente de l'après-guerre. En termes d'interventions à moyen ou long terme dans des secteurs, il est recommandé à KOICA de mettre en œuvre un programme complet qui comprend la conduite d'une étude minutieuse de base, l'élaboration de la stratégie, la mise en œuvre des projets pilotes et l'amélioration de la compétence des parties prenantes.

Compte tenu de la position stratégique de la Côte d'Ivoire en Afrique de l'Ouest, de son leadership gouvernemental remarquable, de ses perspectives de croissance économique rapide, de son APD accrue aussi bien que la bonne volonté des deux gouvernements de renforcer leurs relations bilatérales ; on recommande à KOICA de positionner la Côte d'Ivoire comme pays partenaire prioritaire dans un avenir proche. Bien que la Côte d'Ivoire soit exclue de la liste de la 2ème phase des pays partenaires prioritaires annoncée en Mars 2015, KOICA a besoin de donner une considération positive à la Côte d'Ivoire en la choisissant comme pays partenaire prioritaire futur en Afrique. Il est ainsi nécessaire d'élaborer systématiquement des projets et d'augmenter le personnel de KOICA Côte d'Ivoire dans les trois ou quatre prochaines années.

Le personnel actuel de KOICA a besoin d'être renforcé significativement comme il a été mentionné dans l'étude de terrain. En cas de difficulté pour l'envoi d'un nouveau personnel Coréen en Côte d'Ivoire, KOICA devrait envisager recruter un personnel local de deux ou trois cadres expérimentés qui ont travaillé pour d'autres agences donatrices ou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La capacité du personnel local accrue permettrait au bureau de KOICA Côte d'Ivoire de participer activement aux réunions de groupe de travail des donateurs afin de permettre à KOICA de devenir une agence donatrice émergente en Côte d'Ivoire.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La République de Côte d'Ivoire)은 한반도의 1.4배에 해당하는 322,465km<sup>2</sup>의 국토면적을 지니며, 동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서쪽으로 기니와 라이베리아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다. 인구는 2,280만 명으로서 다민족·다종교를 특징으로 하며 2002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내전의 결과로 교육·보건 등 기초사회 환경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2011년 공식 취임한 와타라 대통령은 “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PND)”라는 4개년 국가 개발전략을 발표하고 착실히 이행에 옮긴 바, 최근 8%가 넘는 고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AfDB 본부가 튀니지에서 복귀하는 등 대외신인도 및 외국투자자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10월 대선에서 무난히 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전 피해 지역의 기초서비스 접근성 약화, 정부 행정시스템의 붕괴 및 자료유실과 부패심화, 양질의 인력양성 체계 미비, 아비장의 심각한 도시문제 등 국가적인 개발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교육 및 보건 등 기초서비스를 강조한 포용적 개발을 주제로 2차 PND 수립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다양한 원조기관 및 다국적 민간 기업들과 의욕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는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14년 7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투자, 인프라, 에너지, 농업, 제약 분야 및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또한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고속도로 및 항만인프라 등 다양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시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외교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반영하여 KOICA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원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코트디부아르의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 전략 및 국제사회·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코트디부아르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앞서 도출된 협력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행 방안의 수립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코트디부아르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파악하여, KOICA가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 아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지원 사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KOICA가 수행하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와의 협력 사업이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연구의 초점이다. 더불어 코트디부아르 내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공조가능 분야도 가늠해 보아, KOICA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KOICA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가능성 타진도 본 연구 목적의 하나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KOICA의 향후 협력사업이 해당국은 물론 해당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인근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기획 및 수행 프로세스를 구조화하려는 KOICA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헌자료는 각종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통계 D/B, 신문·잡지 등 다양하며 관련 기관 전문가와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특히 한국 주재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KOICA 현지사무소 및 현지 컨설턴트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 과정에서 현장감이 넘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각 요소들을 어떤 비중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지원유망분야 선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것인데,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영호 외(2014)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문헌의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벤치마킹 기법은 해당 국가의 어떤 분야에서 발전정도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관측 가능한 지수들을 비교하여 부족한 크기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문헌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지조사에서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진의 평가에 따른 정성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양국 관계와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평가지표는 총 4가지로서, 수원국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의 지표를 고려한 모형을 채용하여 앞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서아프리카 역내 경제판도의 변화 등 2개 특수 요인을 반영하여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상이한 두 지표값을 표준화(Normalization)하여, 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어진 지표값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였다. 중점 분야별 ODA 추진방안과 협력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및 현지조사, 현지 컨설팅 및 해당분야 공무원 그룹과의 심층적인 면담 등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낙후성이 저개발 문제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코트디부아르가 직면해 있는 개발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디부아르의 개발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분석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코트디부아르의 개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개발협력의 국제적 추세나 다른 공여국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코트디부아르 ODA 전략수립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코트디부아르 ODA 기본목표와 함께 중점지원 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어떤 개발협력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수단들은,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KOICA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 1. 연구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발협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국이 아닌 코트디부아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대외협력 공적기관(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정기적인 시장동향 및 신용등급 조사보고서에 불과하다. 더욱이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ODA 좌표를 설정하고, 중점분야를 찾아 개발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對코트디부아르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는 경사연(2011), KIEP(2011) 등을 들 수 있으나, 동 연구들은 아프리카 지역차원의 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서 코트디부아르를 살펴본 것인 데 본 연구의 깊이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학계나 기타 관련 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답론 수준에 머물러 정책적 함의는 높지 않다. 이들 연구는 개발협력보다는 문화인류학 또는 지역학 차원에서 연구된 것으로서 코트디부아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외국문헌으로 개발협력 관점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AfDB(2015), KPMG(2013), NCCR(2012), OBG(2015), UNCTAD(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주로 분야별 현황을 고찰하고 총론 차원에서 개발협력 이슈를 다루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첫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트디부아르 ODA는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서아프리카 불어권 신흥경제국인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큰 틀에서 우리의 ODA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부실했다.

셋째,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인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일반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 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코트디부아르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헌조사 이후 2014년 말 1차 현지조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에볼라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확산 등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본 연구의 전체 일정이 지연되어, 현지조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인 연구 일정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점이 본 연구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채용한 모형은 동태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에 내생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의 모형은 “시간”이란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태적(情態的)인 모델로서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

니고 있다. 정량분석 모형은 가까운 과거 한 시점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계점을 현지방문 면담을 통한 “현재”의 데이터로 보완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이에 따른 현지의 개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KOICA의 전략들에 반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지표 등 주요 개발환경 지표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지는 않기에 이러한 한계점이 일부 감소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전략 방향과 실행 분야는 “최근(up-to-date)” 수원국의 개발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한계점은 KOICA가 향후 일정한 시점에서,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제2장

# 코트디부아르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 제1절 일반현황

### 1. 개요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La République de Côte d'Ivoire)은 한반도의 1.4배에 해당하는 322,465km<sup>2</sup>의 국토면적을 지니며, 동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서쪽으로 기니와 라이베리아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대서양 연안의 기니 만을 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은 540km에 해당한다. 연중 기온변화가 적고 국토 전반에 걸쳐 평균 27℃의 고온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 특성을 보이거나, 북쪽 지역의 경우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Sahel)지대의 영향을 받아 건조한 사반나성 기후의 특성을 띤다.

[그림 2-1] 코트디부아르 지도



자료: Jeune Afrique 홈페이지

〈표 2-1〉 코트디부아르 개황

|          |                                                                        |          |                                         |
|----------|------------------------------------------------------------------------|----------|-----------------------------------------|
| 면적       | 322,463 km <sup>2</sup> (한반도의 1.4배)                                    | 위치       | 서아프리카                                   |
| 인구       | 2,280만 명('14)                                                          | 접경국      | 말리, 가나, 기니 등<br>5개국과 접경                 |
| 정치<br>체제 | 공화제                                                                    | 언어       | 프랑스어(공식),<br>줄라(Dioula), 60여개 토착어       |
| 수도       | 야무수크로(행정)<br>아비장(경제)                                                   | 기후       | 열대성 및 반건조 기후                            |
| 행정<br>구역 | 14개 지역(District)<br>31개 주(Région)                                      | 주요<br>도시 | 아비장, 부아케, 달로아                           |
| 건국일      | 1960년 8월 7일<br>(프랑스로부터 독립)                                             | 통화<br>단위 | 세파프랑(CFAF)                              |
| 민족       | 아칸족(42.1%), 구르족(17.6%),<br>북방 멘데족(16.5%),<br>크로우족(11%),<br>남방 멘데족(10%) | 종교       | 이슬람교(38.6%), 기독교(32.8%),<br>토착신앙(11.9%) |

자료: World Bank(2015), CIA World Factbook(2014), 주 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2015)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4개 지역(District), 31개 주(Régions)로 구성되어 있다. 1983년 3월 21일 이후 야무수크로(Yamoussoukro)가 법적 행정수도이나 대통령궁, 정부기관 등은 경제수도인 아비장(Abidjan)에 소재하고 있다.

〈표 2-2〉 코트디부아르 행정구역 구분

| 지역<br>(District) | 주<br>(Région)    | 주 수도<br>(Région Capital) | 2014년 인구<br>(명) |
|------------------|------------------|--------------------------|-----------------|
| Abidjan          | -                | -                        | 4,707,404       |
| Yamoussoukro     | -                | -                        | 355,573         |
| Lacs             | N'zi             | Dimbokro*                | 247,578         |
|                  | Iffou            | Daoukro                  | 311,642         |
|                  | Bélier           | Toumodi                  | 346,768         |
|                  | Moronou          | Bongouanou               | 352,616         |
| Comoé            | Indénié-Djuablin | Abengourou*              | 560,432         |
|                  | Sud-Comoé        | Aboisso                  | 642,620         |
| Denguélé         | Folon            | Minignan                 | 96,415          |
|                  | Kabadougou       | Odienné*                 | 193,364         |

| 지역<br>(District)       | 주<br>(Région)  | 주 수도<br>(Région Capital) | 2014년 인구<br>(명) |
|------------------------|----------------|--------------------------|-----------------|
| Gôh-Djiboua            | Gôh            | Gagnoa*                  | 876,117         |
|                        | Lôh-Djiboua    | Divo                     | 729,169         |
| Lagunes                | Agnéby-Tiassa  | Agboville                | 606,852         |
|                        | Mé             | Adzopé                   | 514,700         |
|                        | Grands Ponts   | Dabou*                   | 356,495         |
| Montagnes              | Tonkpi         | Man*                     | 992,564         |
|                        | Cavally        | Guiglo                   | 459,964         |
|                        | Guémon         | Duékoué                  | 919,392         |
| Sassandra-<br>Marahoué | Haut-Sassandra | Daloa*                   | 1,430,960       |
|                        | Marahoué       | Bouaflé                  | 862,344         |
| Savanes                | Poro           | Korhogo*                 | 763,852         |
|                        | Tchologo       | Ferkessédougou           | 467,958         |
|                        | Bagoué         | Boundiali                | 375,687         |
| Bas-Sassandra          | Nawa           | Soubré                   | 1,053,084       |
|                        | San-Pédro      | San-Pédro*               | 826,666         |
|                        | Gbôklé         | Sassandra                | 400,798         |
| Vallée du<br>Bandama   | Hambol         | Katiola                  | 429,977         |
|                        | Gbêkê          | Bouaké*                  | 1,010,849       |
| Woroba                 | Béré           | Mankono                  | 389,758         |
|                        | Bafing         | Touba                    | 183,047         |
|                        | Worodougou     | Séguéla*                 | 272,334         |
| Zanzan                 | Bounkani       | Bouna                    | 267,167         |
|                        | Gontougo       | Bondoukou*               | 667,185         |

\*지역 수도(District Capital)에 해당함

자료: Statoids 홈페이지 <http://www.statoi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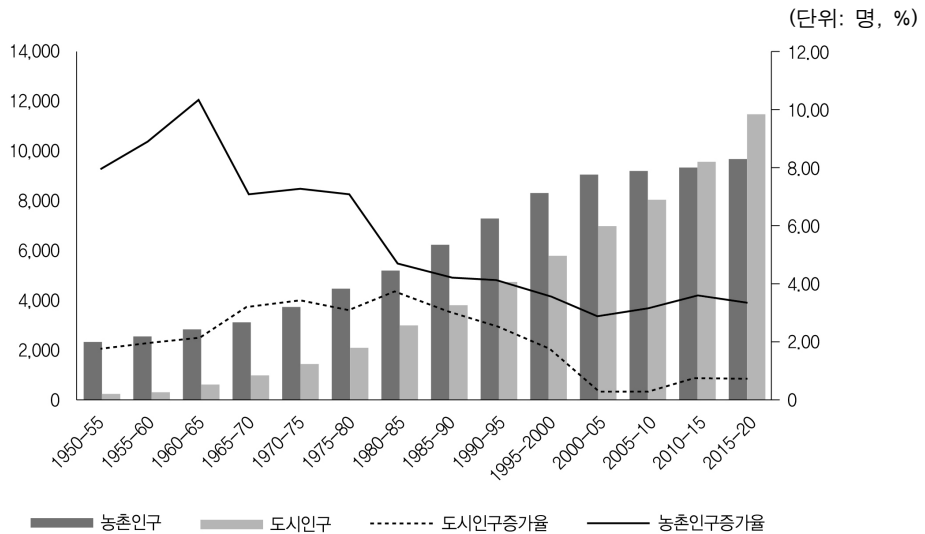
2014년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인구는 2014년 기준 2,280만 명으로 추정된다. 코트디부아르의 도시화 정도를 살펴보면, 도시화율은 45%이며 10만 명 이상이 주거하는 도시에 사는 인구는 전체인구 중 26%이다.<sup>1)</sup> 2011년 기준, 코트디부아르 전체인구 중 51.3%는 도시에, 48.7%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2000년도 대비 7.8%로 나타났다.<sup>2)</sup>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경제 수도 아

1) WHO(2009)

2) FAO(2013)

비장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고 있다.<sup>3)</sup> 2010-2015년 기준 인구 성장률은 2.2%이지만, 도시인구 성장률은 3.6%, 농촌인구 성장률은 0.7%로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sup>4)</sup> 농촌 빈곤인구는 2010년 기준 약 530만 명으로 추산된다.<sup>5)</sup>

[그림 2-2] 도·농간 인구 및 인구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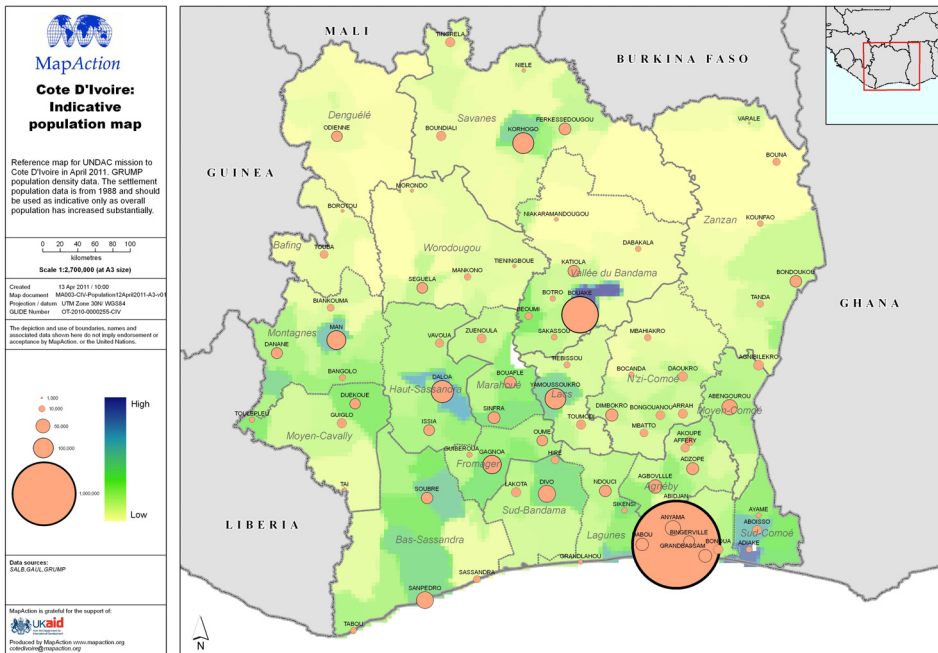
자료: United Nations(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연구진 재구성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4) UN data 2015

5) IFAD Rural Poverty Portal.

[그림 2-3]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인구분포



자료: Map Action 홈페이지(<http://www.mapaction.org>)

## 2. 정치 현황

### 가. 국내 정세

#### 1) 내전 경과(2002-2011)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은 정권이 바뀌면서 반복되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코트디부아르는 1993년까지 코트디부아르민주당(Parti Démocratique de Côte d'Ivoire; PDCI) 출신의 펠릭스 우푸에 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 하에 있었다. 34년 간의 독재 후, 1995년 5월 대선에서는 최초로 다당제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헨리 코난 베디에(Henri Konan Bédié)가 당선되며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이후 1999년 군사쿠데타 및 2000년 대선을 통해 아이보리인민전선(Front Populaire Ivoirien; FPI)의 로랑 바그보(Laurent Gbagbo)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40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2001년 아비장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바그보 정부군과 구웨이를 지지하는 반군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2002년 9월에는 약 7백 명의 강제 퇴출 대상인 군인들이 아비장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남부를 장악한 정부군과 북부를 장악한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발전했다.

2002년 시작된 내전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2007년 공식선언으로 4년 6개월 만에 종료되었지만, 국토는 이미 정부군과 반군, 친정부 민병대로 분열된 상태였다. 2010년 11월 대선 결과 공화주의자연합(Rassemblement Des Républicains; RDR)의 알라싼 드라만 와타라(Alassane Dramane Ouattara)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전임자인 바그보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며 내전이 재개되었다.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2011년 5월 내전이 종식된 바 있다.

## 2) 와타라 정권 및 향후 전망

내전이 종식된 후 공식 취임한 와타라 대통령은 측근들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의회의 여당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우호적인 정치기반을 마련한 와타라 정권은 국가경제 회복과 2020년 신흥국 도약을 위한 4개년 국가개발계획(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 2012-2015; PND 2012-2015)을 수립하는 등 내전으로 무너진 코트디부아르의 정치·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이보리인민전선(FPI)은 2011년 총선 이래로 정부와의 소통을 거부함은 물론, 무장 세력의 활동 또한 이어가고 있어,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안정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재판 보류, 잠정적 석방 및 망명자 송환 등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며 양자 간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에는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된다.<sup>6)</sup>

---

6) EIU Report(2014)

이와 같은 견지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와타라 대통령의 재임을 확신하며 향후 코트디부아르 정세가 당분간 안정세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 대통령이자 현재 코트디부아르민주당(PDCI) 대표인 헨리 코난 베디에(Henri Konan Bédié)가 와타라 대통령의 재임을 지지하면서 와타라 대통령 지지세력에 보다 힘이 실리기도 했다.<sup>7)</sup>

#### 나. 국제관계 및 대외정세

내전기간 중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외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내전 종식 후 와타라 정부는 과거 우방국들과의 관계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대외적 행보는 투자재원 확보 및 국가안보 유지와 관련이 깊다. 국가 재건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 북미 및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의 투자국을 확보하는 중이며, 이러한 투자는 주로 농업, 광업 및 탄화수소 분야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안보 유지를 위해 인근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바그보前 대통령 지지세력으로 인한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가나 및 라이베리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 중이며, 프랑스는 평화유지 및 군력 증강을 위해 코트디부아르로 상주군을 보내는 등 현 정부 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비록 가나와의 해상영토 관련 문제가 있지만 분쟁 시 양국 모두 득보다 실이 큰 관계로 양국 간의 협력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8)</sup>

더불어,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sup>9)</sup> 및 서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West African Economic and

7) EIU Report(2014)

8) EIU Report(2014), OBG The Report(2015)

9) 1975년 5월 라고스 조약에 의해 서아프리카 제국의 교역·경제협력·경제자립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주된 목적은 공동시장의 확립 및 산업, 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천연자원, 금융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통합과 역내 공동번영과 지역 안정이다. 가입국은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

Monetary Union; UEMOA)<sup>10)</sup> 의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다. 내전 이후 와타라 정권 출범과 함께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가며,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코트디부아르 와타라 대통령이 ECOWAS의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UEMOA에서는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UEMOA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코트디부아르는 경제 성장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역내 주요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이 내전 종식 후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등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sup>11)</sup>

### 3. 경제 현황

<표 2-3> 코트디부아르 주요 경제 지표

|       | 경제지표         | 단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국내 경제 | GDP          | 억 달러  | 241    | 277    | 321    | 340    | 382    |
|       | 1인당 GDP      | 달러    | 1,061  | 1,184  | 1,332  | 1,370  | 1,495  |
|       | 경제성장률        | %     | -4.4   | 10.7   | 8.7    | 8.5    | 7.9    |
|       | 재정수지 /GDP    | %     | -5.4   | -3.1   | -2.3   | -2.3   | -3.1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4.4    | 1.3    | 2.6    | 0.6    | 2.6    |
| 대외 거래 | 환율 (달러당, 연중) | 세파프랑  | 471.9  | 510.5  | 494.0  | 491.2  | -      |
|       | 경상수지         | 백만 달러 | 2,665  | -65    | -672   | -1,024 | -1,196 |
|       | 경상수지/ GDP    | %     | 11.1   | -0.2   | -2.1   | -3.0   | -3.1   |
|       | 상품수지         | 백만 달러 | 5,816  | 3,502  | 3,898  | 4,742  | 4,459  |
|       | 수출(fob)      | 백만 달러 | 12,306 | 11,962 | 12,874 | 14,582 | 14,880 |

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베냉, 시에라리온, 토고 등 총 16개국이다. 본부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있다.

10)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불어권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은 1945년 이후 세파 프랑(CFA Franc)을 단일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s Etats de l'Afrique de l'Ouest; BCEAO)에 의하여 발행·관리되고 있다. 2000년에는 관세동맹이 출범되었다. 가입국은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토고 등 총 8개국이다.

11) 한국수출입은행. 2013. 「코트디부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 경제지표       | 단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외<br>채<br>현<br>황 | 수입(fob)    | 백만 달러 | 6,491  | 8,460  | 8,976  | 9,840  | 10,421 |
|                  | 서비스수지      | 백만 달러 | -1,055 | -2,216 | -2,906 | -3,267 | -3,470 |
|                  | 외환보유액      | 백만 달러 | 4,280  | 3,444  | 3,711  | 4,102  | -      |
|                  | 정부채무/GDP   | %     | 67.9   | 45.1   | 40.1   | 38.2   | 37.5   |
|                  | 국내정부채무/GDP | %     | 0.2    | 16.9   | 13.6   | 11.6   | 12.0   |
|                  | 해외정부채무/GDP | %     | 67.7   | 28.2   | 26.5   | 26.6   | 25.5   |
|                  | 총외채잔액      | 백만 달러 | 20,017 | 13,692 | 14,295 | 15,416 | 16,128 |
|                  | 총외채잔액/GDP  | %     | 76.4   | 50.9   | 46.3   | 44.0   | 41.0   |
|                  | 단기외채       | 백만 달러 | 78     | 271    | 346    | 385    | -      |
|                  | 외채상환액/총수출  | %     | 29.8   | 12.7   | 12.5   | 13.3   | 13.3   |

주: 2014, 2015년은 예상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세계국가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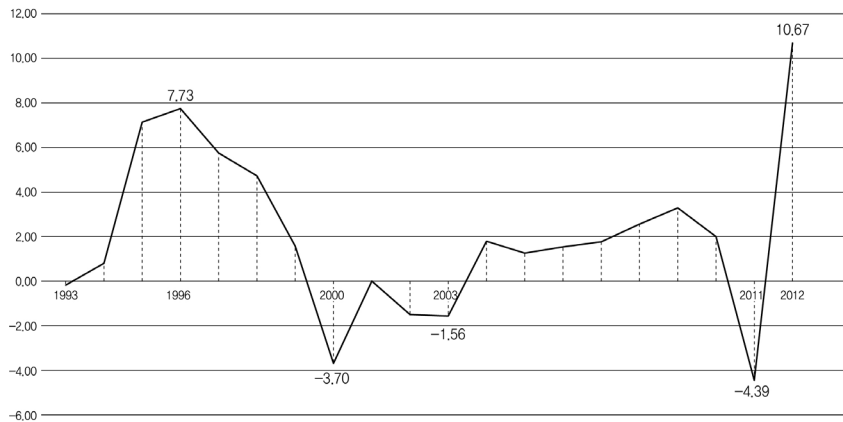
#### 가. 거시경제 여건

코트디부아르는 1960-1970년대 카카오와 커피 생산에 주력하여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78년에는 세계 생산의 40%정도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의 카카오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카카오와 커피의 세계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대외 의존적인 발전모델로, 이 시기 이후 발전의 동력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 등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자, 공급자 중심의 가격인상 정책을 위하여 1987년 7월 ‘카카오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카카오 공급 비중이 40%에서 20%로 하락함에 따라 실패하였다. 이렇듯 코트디부아르는 카카오 산업의 쇠퇴로 인한 1981년 외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 이후 총 세 차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이후 코트디부아르의 국민소득은 1990년대 중반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1999년 군사 쿠데타 이후 급감하여 2000년-2011년 간 평균 연간 GDP 성장률이 0.25%에 달하는 등, 2011년 내전 종식까지 거의 성장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코트디부아르의 GDP 성장률 변화

(단위: %)



자료: World Bank data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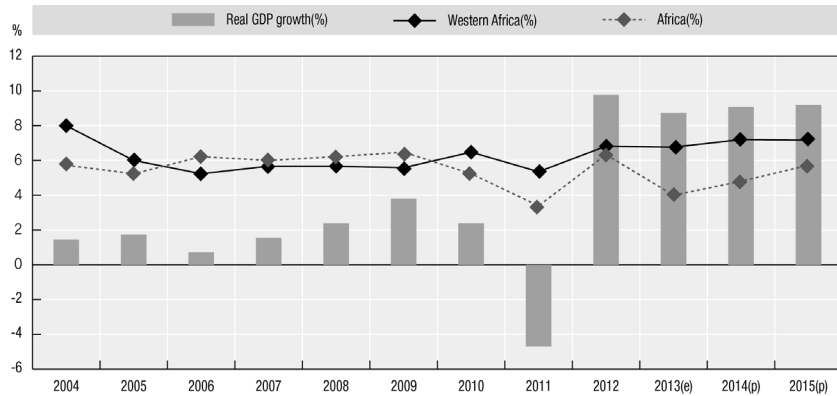
2012년 10%에 달하는 고성장 이후, 2013년도에는 8.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도 8% 가량 성장하면서 내전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잘 수습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12)</sup> 이는 전체 아프리카 평균 및 서아프리카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회복을 여실히 보여준다. OECD 개발센터는 2011년 성장률 -4.7%과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평균 9%를 기록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기업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코트디부아르 전체 투자의 63%가 기업 투자였던 바, 기업투자 비율을 2015년에는 65%, 2020년에는 70%까지 증가시켜야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sup>13)</sup>

12)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요 정세 및 뉴스(2015.4.1.)

13)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요 정세 및 뉴스(2015.3.30.)

[그림 2-5]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10년 GDP 성장률 및 역내 평균 비교

(단위: %, 2004-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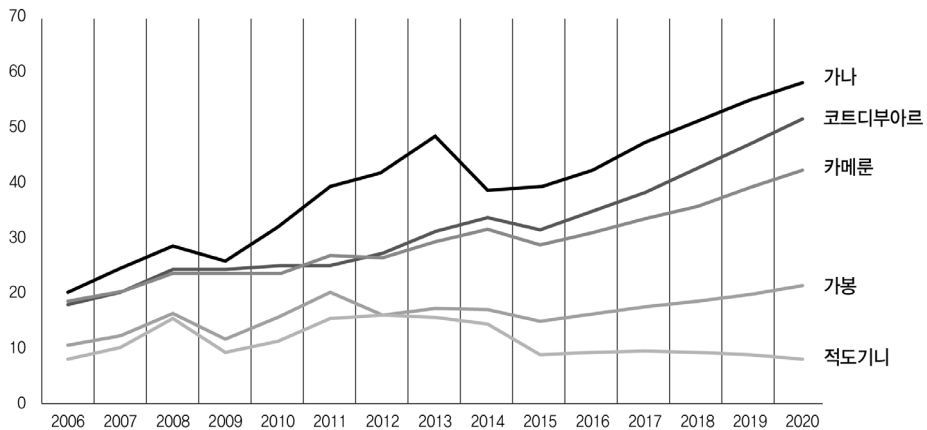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Côte d'Ivoire Country Note 2014

이러한 코트디부아르의 급격한 성장세는 역내 경제판도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아프리카 지역 내 국별 GDP의 현 추세와 비교해볼 때, 2013년까지는 카메룬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나 이후 코트디부아르의 GDP는 상당한 격차를 내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서아프리카 국가별 GDP 전망<sup>14)</sup>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201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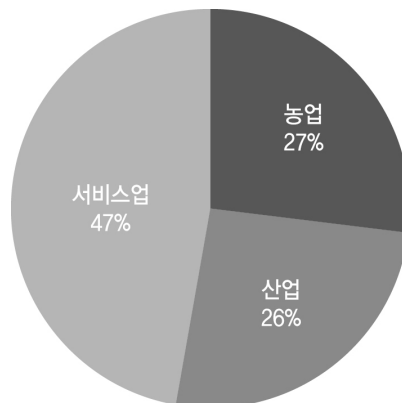
14) 대상 국가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 GDP규모 별 상위 6개국으로,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한 나이지리아는 GDP 규모가 타 국가와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제외하고 조사함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성장은 GDP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3차 산업의 영향이 컸다. 이는 국가 안보 상황이 나아지며 전기통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수입이 급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sup>15)</sup> 2차 산업 역시 13.3%에 해당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가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전체 GDP 대비 27%로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2013년 기준 3.7% 정도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내전으로 악화된 농업 생산 여건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최대 수출작물인 카카오 등의 상품작물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는 향후 석유·가스 생산이 재개되고, 카카오·커피 등 상품작물 관련 개혁으로 농업 분야가 호전되며, 정부의 국가발전계획 프로젝트 시행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확대된다면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6)</sup> 반면, 이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지속되고 국가발전계획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코트디부아르 산업구조(2013)



자료: World Bank data 재구성

15) AfDB(2013)

16) AfDB(2013)

<표 2-4>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산업 |                 | 2009년 | 2014년 |
|----|-----------------|-------|-------|
| 1차 | 농수산업            | 23.6  | 26.1  |
| 2차 | 광업              | 6.8   | 7.2   |
|    | 제조업             | 18.4  | 15.0  |
|    | 전기, 가스 및 수자원 산업 | 0.9   | 0.6   |
|    | 건설업             | 1.9   | 3.2   |
| 3차 | 유통업(도소매·호텔·식당)  | 11.4  | 13.1  |
|    | 운송·통신업          | 8.5   | 7.1   |
|    | 금융·부동산업         | 17.7  | 17.6  |
|    | 공공행정·교육·보건·시민사회 | 10.4  | 9.8   |
|    | 기타              | 0.4   | 0.3   |
| 전체 |                 | 100   | 100   |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Côte d'Ivoire Country Note 2015

## 나. 대외경제 여건

### 1) 경상수지 현황

코트디부아르의 경상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으로, 이는 최근 국정상황 안정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원조가 늘어남에 따른 자재 수입 및 물류비용 증가에 기인한 결과이다. 정권 교체 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및 광업으로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무역수지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최근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하여 흑자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코아 생산량 감소 및 유가 반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현재의 무역수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국내로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으로 송금하여 본원소득수지 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반대로 국정 안정화에 따른 원조액 증가로 경상이전수지는 증가할 전망이다.<sup>17)</sup>

17) EIU Report

2013년 기준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수출국은 가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며, 아프리카의 비중이 총 수출액의 43%이다. 한편, 주요 수입국은 나이지리아, 바하마, 중국, 프랑스, 앙골라 등이며, 아프리카가 전체 수입액의 33%, 나이지리아가 전체 수입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2013)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       |      | 수입    |       |      |
|--------|-------|------|-------|-------|------|
| 국가     | 수출액   | 비중   | 국가    | 수입액   | 비중   |
| 가나     | 1,851 | 15.3 | 나이지리아 | 2,886 | 23.1 |
| 네덜란드   | 965   | 8.0  | 바하마   | 1,460 | 11.7 |
| 나이지리아  | 862   | 7.1  | 중국    | 1,423 | 11.4 |
| 프랑스    | 787   | 6.5  | 프랑스   | 1,305 | 10.5 |
| 독일     | 749   | 6.2  | 앙골라   | 661   | 5.3  |
| 미국     | 740   | 6.1  | 인도    | 320   | 2.6  |
| 부르키나파소 | 479   | 4.0  | 미국    | 291   | 2.3  |
| 벨기에    | 419   | 3.5  | 태국    | 261   | 2.1  |
| 캐나다    | 402   | 3.3  | 독일    | 257   | 2.1  |
| 말리     | 357   | 3.0  | 네덜란드  | 242   | 1.9  |

자료: UN Comtrade. 연구진 재구성

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카 지역 내의 무역은 GDP 중 14.7%(1996-2000년), 19.8%(2001-2006년), 24%(2007-2011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sup>18)</sup> 특히 UEMOA 내 무역 구성비는 1995년-2010년 23.7%로써 가장 높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출 점유율과 가장 낮은 수입률을 보임으로써, 지역 내에서 주 수출국인 것에 반하여 수입과 관련해서는 타 가입국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19)</sup>

주요 무역품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수출품목은 카카오가 약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카카오 가공품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석유, 천연

18) UNCTA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2013

19) Centre for the Study of Economies of Africa. 2013.03

고무 및 금 등의 천연자원 수출이 많다. 한편 주요 수입품목의 약 30% 가량을 석유가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쌀, 냉동어류 등 식료품 수입이 많고 선박, 자동차, 통신기기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표 2-6> 주요 수출입 품목(2012)

(단위: 백만 달러, %)

| 10대 수출품목     | 실적    | 구성비   | 10대 수입품목     | 실적    | 구성비  |
|--------------|-------|-------|--------------|-------|------|
| 카카오          | 2,325 | 21.41 | 석유·역청유(원유)   | 2,752 | 28.2 |
| 석유·역청유(원유 외) | 1,766 | 16.26 | 쌀            | 684   | 7.0  |
| 석유·역청유(원유)   | 1,255 | 11.56 | 소형·특수선박      | 398   | 4.1  |
| 천연고무         | 808   | 7.44  | 냉동어류         | 329   | 3.4  |
| 금            | 641   | 5.90  | 의약품          | 255   | 2.6  |
| 코코아 페이스트     | 437   | 4.02  | 승용차          | 234   | 2.4  |
| 코코넛          | 351   | 3.23  | 말·메슬린        | 218   | 2.2  |
| 팜유           | 272   | 2.50  | 통신기기         | 121   | 1.2  |
| 코코아 버터       | 210   | 1.93  | 석유·역청유(원유 외) | 149   | 1.5  |
| 소형 선박        | 5,5   | 0.05  | 수송차량         | 127   | 1.3  |

자료: UN Comtrade 2013

## 2) FDI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액은 2011년 이후 국가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3억 160만 달러('11)에서 3억 7,100만 달러('13)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아프리카 타국가와 비교해봐도, 상당수의 국가들이 FDI 유입액이 감소하는 반면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시장 또한 2000년 24억 8천만 달러에서 2012년 76억 5천만 달러로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활성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는 2012년 기준 GDP의 2.7%<sup>20)</sup>로 IMF는 2014년까지 3%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20) KPMG. Cote d'Ivoire Snapshot(2013년 3/4분기)

<표 2-7> 아프리카 역내 국가별 FDI 유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 2011         | 2012         | 2013         |
|---------------|--------------|--------------|--------------|
| 아프리카          | 48,020.9     | 55,180.2     | 57,238.8     |
| 서아프리카         | 18,649.0     | 16,575.1     | 14,202.8     |
| 나이지리아         | 8,914.9      | 7,127.4      | 5,609.0      |
| 가나            | 3,222.3      | 3,293.4      | 3,226.3      |
| 모리타니          | 588.7        | 1,383.5      | 1,154.1      |
| 라이베리아         | 508.0        | 984.6        | 1,061.3      |
| 니제르           | 1,065.8      | 841.3        | 631.4        |
| 시에라리온         | 950.5        | 548.5        | 579.1        |
| 말리            | 556.1        | 397.9        | 410.3        |
| 부르키나파소        | 143.7        | 329.3        | 374.3        |
| <b>코트디부아르</b> | <b>301.6</b> | <b>322.1</b> | <b>371.0</b> |
| 배냉            | 161.1        | 281.6        | 320.1        |
| 세네갈           | 338.2        | 276.2        | 298.3        |

자료: UNCTAD. 연구진 재구성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레바논과 프랑스로 각각 전체 FDI의 52.7%, 26.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및 일본 또한 각 8.9%, 8.3% (’12)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다. Nigeria’s Dangote Group이 시멘트 공장 설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시멘트 산업으로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도 탄화수소 관련 산업(18.5%), 호텔 산업(14%) 및 식품 제조업(13.4%)으로의 투자가 이어졌다.<sup>21)</sup>

### 3)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 투자시장의 호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정부개혁의 효과로 코트디부아르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2015년도 비즈니스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전체 189개국 중 147위를 차지하였다. 서아프리카 내 주변국들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11위나 상승하여 가장 큰 개혁을 보인 10개 국가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1)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Cote d’Ivoire

창업환경의 경우, 기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GNI 대비 166.4%(’14)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초기자본의 부담이 큰 환경이었으나, 정부의 경영환경 개선의지 표명 후 최저 자본금이 GNI 대비 3.4% 수준으로 대폭 하락되어 우호적인 창업 환경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건축허가증 발부, 소유 이전, 관세 완화, 단순한 투자조건 등을 위해 관련 부처의 협력을 독려하며, 직장 행정처리 및 투자 환경을 개악하는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sup>22)</sup>

<표 2-8> 코트디부아르 비즈니스 환경평가 순위 변화 및 역내국가 비교

| 지표      | 순위   |      | 전년대비 순위변화 |
|---------|------|------|-----------|
|         | 2015 | 2014 |           |
| 코트디부아르  | 147  | 158  | ▲11       |
| 창업·사업환경 | 44   | 124  | ▲80       |
| 사업개시    | 180  | 179  | ▼ 1       |
| 건설인가 획득 | 161  | 164  | ▲ 3       |
| 전력 이용   | 124  | 138  | ▲14       |
| 재산권 등록  | 131  | 125  | ▼ 6       |
| 신용 획득   | 146  | 153  | ▲ 7       |
| 투자자 보호  | 175  | 173  | ▼ 2       |
| 조세 납부   | 158  | 162  | ▲ 4       |
| 대외 교역환경 | 72   | 80   | ▲ 8       |
| 계약 실행   | 85   | 80   | ▼ 5       |
| 부르키나파소  | 167  | 161  | ▼ 6       |
| 말리      | 146  | 143  | ▼ 3       |
| 세네갈     | 161  | 171  | ▼10       |

주: 비교대상 국가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 FDI 유입액 순에서 코트디부아르 기준 상위 3개 국가임

자료: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2015

22)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요 정세 및 뉴스(2013.5.16., 2014.3.11.)

#### 다. 외채 현황

코트디부아르는 2009년 3월 과다채무빈곤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 대상국으로 선정된 이후, 2012년 6월 완료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부채 탕감이 확정된 바 있다.<sup>23)</sup> 2011년 외채가 GDP의 71.5%에 달함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은 2012년 6월 HIPC 이니셔티브로 31억 달러, MDRI 13억 달러의 부채탕감을 추가적으로 승인하였고, 또한 파리클럽(Paris Club)이 33억 달러를 부채탕감 목적으로 지원하여 총 77억 달러 규모의 외채 탕감이 합의되면서, 대규모의 외채 탕감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71.5%를 기록한 외채잔액 비중이 2012년 말 기준으로 52.6%로 축소되었지만, OECD의 국가신용등급은 최하 등급인 종전과 동일한 7등급으로, 국가 외채상환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4년 7월 7.5억 달러 상당의 유로본드를 발행하며 Moody's와 Fitch로부터 각각 신용등급 B1, B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신용전망 역시 향후 정치적 안정 및 경제성장 유지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sup>24)</sup>

〈표 2-9〉 서아프리카 지역 신용등급(2014)

(2014.11 기준)

| 국가     | Moody's |     | Fitch |     |
|--------|---------|-----|-------|-----|
|        | 등급      | 전망  | 등급    | 전망  |
| 가나     | B2      | 부정적 | B     | 부정적 |
| 코트디부아르 | B1      | 긍정적 | B     | 긍정적 |
| 모리타니   | Baa1    | 안정적 |       |     |
| 나이지리아  | Ba3     | 안정적 | BB-   | 안정적 |
| 세네갈    | B1      | 안정적 |       |     |

자료: IMF(2014) Country Report No. 14/358 Côte d'Ivoire

23) IMF and ID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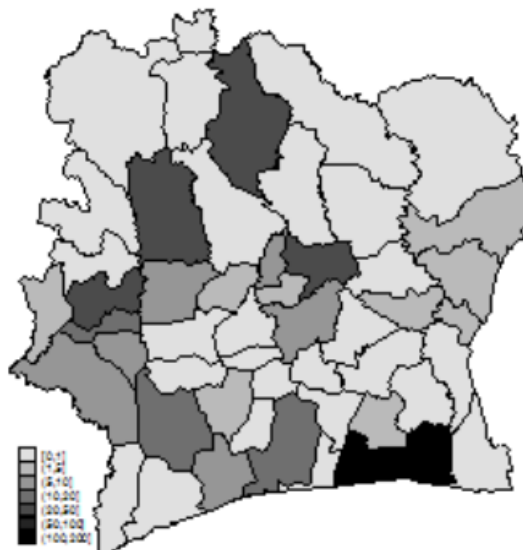
24) IMF(2014)

#### 4. 사회·문화 현황

##### 가. 장기 내전의 사회적 영향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규모의 격전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수도인 아비장 인근과 서북부지역에 그 피해가 컸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집계된 내전 총 횟수는 965건으로, 주된 내전지역은 수도 아비장 인근지역 및 서북부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비장은 2003년에만 150건 이상의 교전이 일어나는 등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난 곳이었다.

[그림 2-8] 지역별 내전발생 빈도



자료: Andrew L. Dabalen 외. 2012. "Estimating the Causal Effects of Conflict on Education in Côte d'Ivoir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코트디부아르 통계청 및 UNICEF(2008)에 따르면, 각 지역별 내전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로 응답자의 30-50%가 가계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농장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내전이 격렬히 일어났던 서부지역의 경우, 기존의 이주민 유입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이 겹쳐지며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 더불어, 가축 등의 고정자산 손실과 인명 피해가 타 지역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빈곤인구가 많고 생활환경이 열악했던 북부지역 역시 내전의 영향으로 인해 농가 손실 및 실업 증가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그림 2-9] 지역별 내전 피해



자료: Andrew L. Dabalen 외(2012) "Estimating the Causal Effects of Conflict on Education in Côte d'Ivoir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내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혼란이 지역별 상대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교육, 보건 등 기초사회 환경 또한 열악해졌다. 이러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사회 환경적 분열은 사회통합 및 경제재건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주 요인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코트디부아르는

거시 경제적 측면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최빈곤층 및 내전 피해자들 까지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전의 참상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와타라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바 있다. 덧붙여, 2000년 이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자원 및 농경지 선점을 위한 산림파괴가 악화되었는데, 환경 정책수립 등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sup>25)</sup>

#### 나.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갈등

코트디부아르는 역사적으로 남북간 지역갈등이 존재하는데, 이에선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적 차이가 빚은 문화적 갈등이 큰 요인 중 하나다. 민족적으로는 아칸(Akan), 구르(Gur), 북방 멘데(Northern Mandes), 크로우(Krou), 남방 멘데(Southern Mandes)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 라이베리아, 베냉 등 국경을 마주하는 주변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으로는 크게 이슬람교(38.6%)와 기독교(32.8%)<sup>26)</sup>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구분되는데, 경제수준이 양호했을 당시 프랑스 및 유럽국가의 투자가 수도 아비장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북간의 경제격차가 발생하였다. 북부지역에는 인근국가인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및 말리 등지에서 넘어온 이주민 대다수가 거주 중이었는데, 이들의 대다수가 무슬림으로 남부지역에서 우세한 기독교와 종교적인 차이가 나타나 복합적인 갈등구조가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 간 갈등의 식이 내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sup>27)</sup>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 및 지역갈등 발생 가능성이 깊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 4.8

26) CIA World Factbook(2008 est.)

27) 수출입은행, 코트디부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그림 2-10] 코트디부아르 종교 분포도



자료: Christian Bouquet(2007)

##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 1. 개발환경

#### 가. 국가개발 전반

코트디부아르의 MDG 경과 추세를 살펴보면, 빈곤 및 기아인구 비율의 경우 오히려 기준년도 대비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도시빈민의 경우에도, 기준년도 대비 악화된 상황을 볼 수 있다. 보편적 초등교육 및 유아사망률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평균 대비 열악한 수준이다. 모성사망률의 경우,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식수위생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사하라이남 평균에 비해 낮다.

〈표 2-10〉 코트디부아르 MDG 달성경과 추세

| 목표                   | 지표                  | 진행 상황       |             | 목표치  | 변동 (%) | 사하라 이남           |
|----------------------|---------------------|-------------|-------------|------|--------|------------------|
|                      |                     | 기준          | 최근          |      |        |                  |
|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             |             |      |        |                  |
|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50% 감축   | 빈곤선이하 인구비율 (%)      | 17.8 (1993) | 23.8 (2008) | 8.9  | 34     | 48.4 (2010)      |
| 기아 비율 50% 감축         | 기아 비율(%)            | 10.6 (1991) | 14.7 (2013) | 6.65 | 39     | 24.8 (2011-2013) |
|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             |             |      |        |                  |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순취학률 (100명 당)  | 48.5 (1991) | 61.9 (2009) | 100  | 27     | 77.9 (2012)      |
|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                     |             |             |      |        |                  |
| 초등학교 남/녀 등록 평등화      | 초등 남아 대비 여아 등록률     | 0.71 (1990) | 0.85 (2012) | 1    | 20     | 0.92 (2012)      |
| 임금노동 남/녀 비율 평등화      | 농업 외 임금노동 여성 고용율(%) | 20.6 (1998) | -           | 50   | -      | 33.4 (2012)      |

| 목표                              | 지표                          |                   | 진행 상황        |              | 목표치   | 변동 (%) | 사하라 이남      |
|---------------------------------|-----------------------------|-------------------|--------------|--------------|-------|--------|-------------|
|                                 |                             |                   | 기준           | 최근           |       |        |             |
| 국회 내 남녀의원 비율 평등화                | 여성의원의 단일 또는 하원의석 점유율(%)     |                   | 5.7 (1990)   | 9.4 (2014)   | 50    | 66     | 22.9 (2014) |
| 목표 4: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                             |                   |              |              |       |        |             |
|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3분의 2 감소       |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 당)       |                   | 151.6 (1990) | 100.0 (2013) | 50.6  | -34    | 92 (2013)   |
| 목표 5: 산모건강의 증진                  |                             |                   |              |              |       |        |             |
| 모성 사망률 4분의 3 감소                 | 산모 사망률 (출산 10만 건당)          |                   | 740 (1990)   | 720 (2013)   | 177.5 | -3     | 510 (2013)  |
| 피임 및 산전관리 등 생식보건 증진             | 피임법을 실천하는 15-49세 여성 비율      |                   | 11.4 (1994)  | 18.2 (2012)  | -     | 60     | 25.7 (2012) |
|                                 | 4회 이상 산전 관리 받은 15-49세 여성 비율 |                   | 30.4 (1994)  | 22.2 (2012)  | -     | -27    | 25.1 (2012) |
|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                   |              |              |       |        |             |
| HIV/AIDS 확산 중지                  | 15-49세 HIV 감염률              |                   | 0.57 (2001)  | 0.24 (2012)  | 0     | -58    | 0.31 (2012) |
| 결핵 확산 중지                        | 발병률 및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 신규환자수 (100,000명당) | 238 (1990)   | 172 (2012)   | 0     | -28    | 255 (2012)  |
|                                 |                             | 사망자수 (100,000명당)  | 40.0 (1990)  | 22.0 (2012)  | 0     | -45    | 27 (2012)   |
|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                   |              |              |       |        |             |
| 산림 손실 복원 및 면적 확대                | 산림면적 비율(%)                  |                   | 32.1 (1990)  | 32.7 (2010)  | -     | 2      | 28.1 (2010) |
| 식수 접근권이 없는 인구 비율 50% 감축         |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비율(%)        |                   | 76.0 (1990)  | 80.2 (2012)  | 88    | 6      | 64.0 (2012) |
| 위생시설 접근권이 없는 인구 비율 50% 감축       | 안전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비율(%)      |                   | 14.9 (1990)  | 21.9 (2012)  | 57.45 | 47     | 30.0 (2012) |
| 빈민가 거주인구 감축                     |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                   | 53.4 (1990)  | 57.0 (2009)  | -     | 7      | 61.7 (2012) |
|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증진        |                             |                   |              |              |       |        |             |
| 인터넷 사용자 확대                      | 100명 당 인터넷 사용자              |                   | 0.0 (1990)   | 2.6 (2013)   |       | 20.9   | 14.8 (2012) |

주: 진행상황의 목표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 숫자는 년도를 말함

자료: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한편, 2013년 발표된 코트디부아르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수치는 0.452로 사하라이남 평균인 0.502보다 낮게 나타나며, 서아프리카 지역 내 타 국가와 비교해도 지수나 순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00년, 2007년 순위와 비교해보면, 17위 이상 하락하여 주변국에 비해 하락폭이 큰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11> 코트디부아르 및 서아프리카 지역 타 국가 인간개발지수 비교

| 국가            | 2000<br>HDI | 2007<br>HDI | 2013 HDI |       | 기대<br>수명 | 기대<br>교육년수 | 평균<br>교육년수 | 1인당<br>GNI    |
|---------------|-------------|-------------|----------|-------|----------|------------|------------|---------------|
|               | 순위          | 순위          | 순위       | 지수    | 년        | 년          | 년          | 2011<br>PPP\$ |
| 가나            | 129         | 135         | 138      | 0.573 | 61.1     | 11.5       | 7.0        | 3,532         |
| 나이지리아         | 151         | 158         | 152      | 0.504 | 52.5     | 9.0        | 5.2        | 5,353         |
| 세네갈           | 155         | 156         | 163      | 0.485 | 63.5     | 7.9        | 4.5        | 2,169         |
| 코트디부아르        | 154         | 166         | 171      | 0.452 | 50.7     | 8.9        | 4.3        | 2,774         |
| 부르키나파소        | 172         | 176         | 181      | 0.388 | 56.3     | 7.5        | 1.3        | 1,602         |
| 사하라이남<br>아프리카 | -           | -           | -        | 0.502 | 56.8     | 9.7        | 4.8        | 3,152         |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Data 재구성

다차원적 빈곤지수(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살펴보면 코트디부아르 지수는 2011/2012년 기준 0.307로 역내 주변국과 비교하여 중간값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년 이내의 기준 값과 비교해보면, 주변국이 모두 지수가 낮아지는 것과 반대로, 코트디부아르만 MPI 지수가 높아지며 국가적으로 빈곤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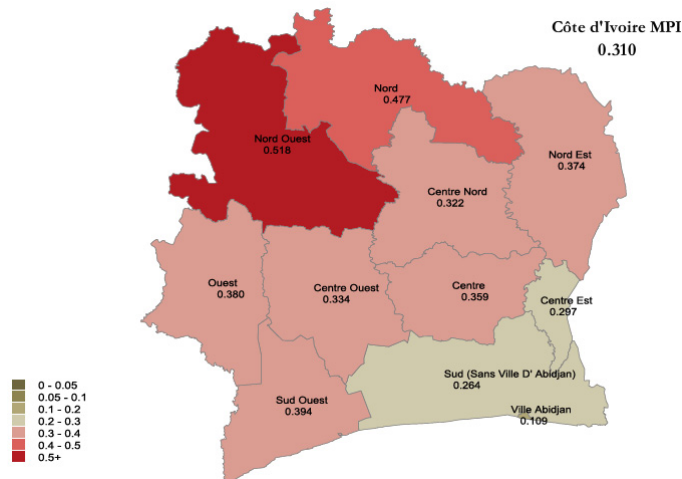
<표 2-12> 코트디부아르 및 서아프리카 지역 타 국가 MPI 변화 비교

| 국가     | MPI 지수(년도)  |                  | 변화      |
|--------|-------------|------------------|---------|
|        | 기준          | 최근               |         |
| 가나     | 0.186(2008) | 0.144(2011)      | ▽ 0.042 |
| 나이지리아  | 0.294(2008) | 0.239(2011)      | ▽ 0.055 |
| 코트디부아르 | 0.269(2005) | 0.307(2011/2012) | △ 0.038 |
| 세네갈    | 0.436(2005) | 0.390(2010/2011) | ▽ 0.046 |
| 부르키나파소 | 0.538(2006) | 0.508(2010)      | ▽ 0.030 |

자료: UNDP(2014) 2014 Human Development Statistical Tables 6A 재구성

또한, 아래 [그림 2-11]과 같이 MPI 지수를 통해 코트디부아르 내에서도 아비장을 중심으로 한 남부 해안지역의 빈곤정도가 낮고, 중북부지역의 빈곤 문제가 극심하여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MPI 지수



자료: OPHI(2014) Country Briefing

## 나. 보건의료

<표 2-13> 코트디부아르 기초 보건지표 현황(2014)

| 구분                     | 코트디부아르 | 서아프리카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
| 평균 수명(년)               | 51     | 54    | 57          |
| 1세 이하 영아 사망률(1,000명당)  | 71     | 72    | 61          |
| 5세 이하 영아 사망률(1,000명 당) | 100    | 109   | 92          |
| 모성 사망률(100,000명 당)     | 720    | 590   | 510         |
| HIV 감염률(%)             | 2.7    | 2.2   | 4.6         |
| 안전한 식수원 사용(%)          | 80     | 65    | 64          |
| 안전한 위생시설 사용(%)         | 22     | 26    | 29          |

자료: UNICEF. 2014. Statistical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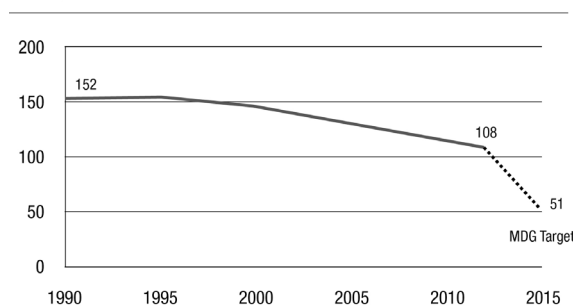
## 1) 기초 보건 현황

코트디부아르 모자보건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감소 추이에 있으나,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비 10명이나 많으며 MDG 달성목표인 51명과는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모성 사망률 역시 십만 명 출산 시 720건으로 15년 전(740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달성목표인 190건과는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또한 서아프리카 평균인 590, 사하라 이남 평균인 510과 비교해도 매우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5세 미만 영아 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변화 추이

### Under-five mortali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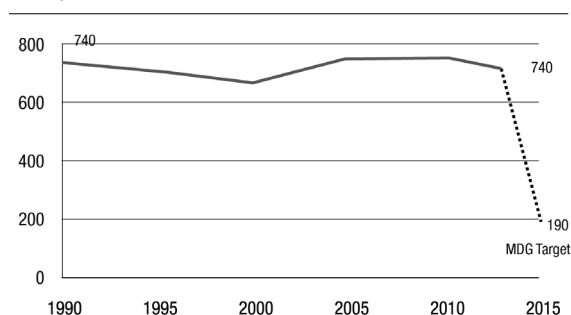
Deaths per 1000 live births



Source: IGME 2013

### Maternal mortality ratio

Deaths per 1000 live bir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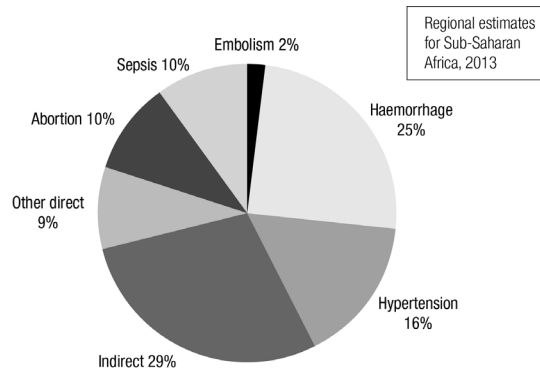


Source: IGME 2014

자료: Countdown to 2015, The 2014 report(2014)

모성 사망의 원인은 간접 산과적 사망<sup>28)</sup>이 29%로 가장 크며, 출혈과 같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사망원인도 약 25%를 차지하는데, 이는 모자보건 인력 및 인프라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3] 코트디부아르 모성사망 원인(2013)



## 2)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앞서 언급되듯 코트디부아르 보건현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은, 국가 공공 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 인력이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전이 계속되는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많은 의료물자가 약탈당했으며 보건인력이 지역을 이탈하는 등 공공의료체계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국민의 보건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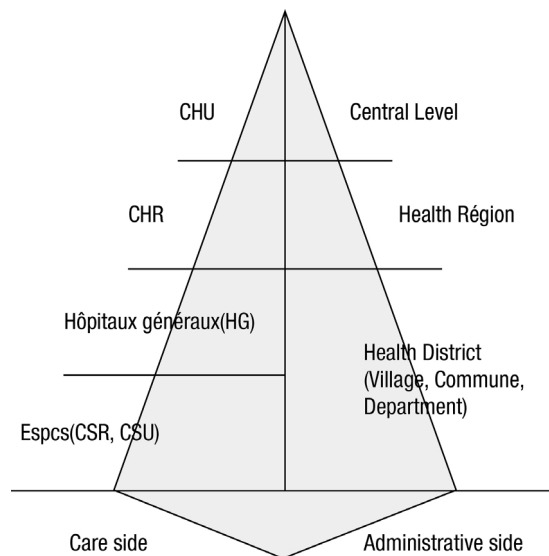
2011년 UNOCI 보고서<sup>29)</sup>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해 전국 의료인력 50%(서부 지역의 75%)가 근무지를 떠나 많은 의료기관이 폐쇄되었다. 또한 내전 중 수출입 문제로 인해 아동 의약품, 모자보건 의약품, ARV 의약품과 백신 등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서부지역 및 아비장 내 질병감시시스템이 작동 중지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마비되었다.

28) 간접 산과적 사망이란 기존의 질병 혹은 임신 중에 발전하고 임신의 생리적 영향에 의해 악화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이룸.

29) Crise sociopolitique en Côte d'Ivoire : l'impact sur la population et les groupes vulnérables en particulier. Equipe humanitaire Côte d'Ivoire(ONUCI). Rapport du 7 mars 2011

코트디부아르 보건체계를 살펴보면, 보건 구역(Health District) 구분<sup>30)</sup>에 따라 1차-2차-3차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의료기관은 ESPC(Etablissements Sanitaires de Première Contact)로 지방 보건소 CSR(Centre de Santé Rural)와 꼬뮌 보건소 CSU(Centre de Santé Urbain)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차 의료기관은 Département단위의 HG(Hôpital Général)과 레지옹(Région) 단위의 CHR(Centre Hospitalier Régional)로 나뉜다. 3차 의료기관은 대학병원(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 CHU)을 말한다.

[그림 2-14] 코트디부아르 의료시스템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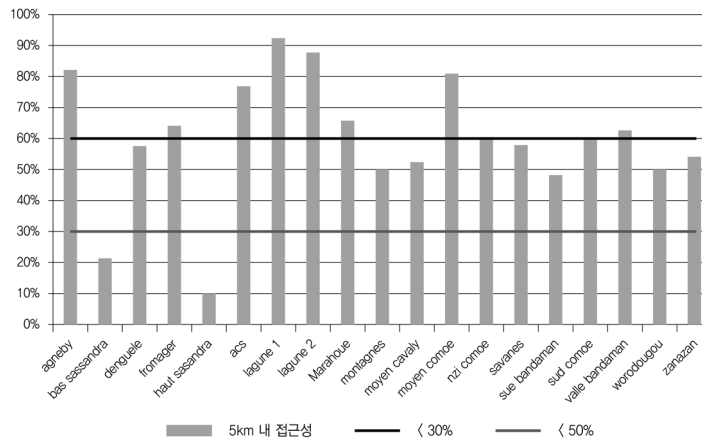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Health, Projet pour l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de Côte d'Ivoire(2015.2)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의료시설은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부지역인 Bas-Sassandra와 Haut-Sassandra의 경우 30% 미만의 인구만이 의료기관과 5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그 외 서부의 Montagnes, Moyen Cavally 및 북부의 Savanes, Worodougou 등에서는 거주지 5km 이내에서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한 인구가 채 50%가 되지 않는다.

30) Village-Commune-Département-Région-Cent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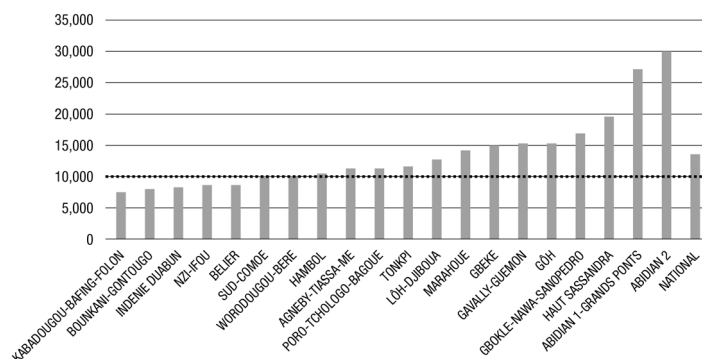
[그림 2-15] 지역별 의료기관 접근성(2012)



자료: PND5 2012-2015.(2012)

의료기관 접근성은 기관 유형별로도 지역적 차이가 크다. 2012년 기준 ESPC는 인구 11,858명 당 1개로 정도로 운영되어, WHO 기준인 10,000명 당 1개에 미치지 못하며,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전체 381개의 ESPC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별로 봤을 때, 7개의 지역이 WHO 기준을 만족했으나 아비장(인구 6백만, ESPC 25,000명당 1개) 및 그베케(인구 1.2백만)를 비롯하여 인구밀도가 크게 높은 도시지역과 서북부 지역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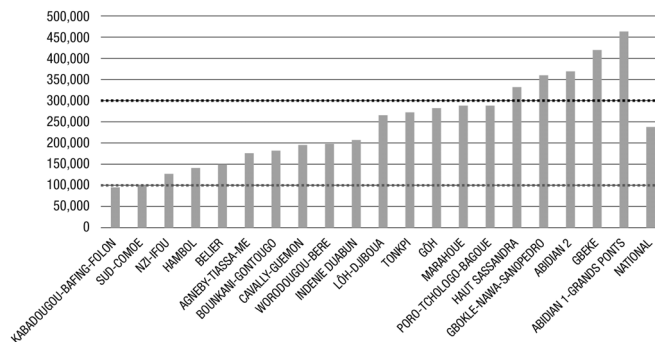
[그림 2-16]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ESPC 1개 당 인구수(2012)



자료: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lutte contre le SIDA, Projet pour l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de Côte d'Ivoire(2015)

2013년 기준, 2차 의료기관인 HG는 84개, CHR은 17개로 전국적으로는 인구 236,391명 당 1개의 병원이 있는 셈이다. Kabadougou-Bafing-Folon, Sud Comoé 등 2개 지역만이 WHO 기준을 만족했으며, 아비장을 포함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4개의 지역 (Abidjan1-Grands Ponts, Abidjan 2, Haut Sassandra, Gbéké, Nawa-San-Pédro)은 인구 300,000명 당 1개의 병원으로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기존의 병원들 역시 내전을 거치며 손실을 크게 입었기에 시설 개보수 및 물자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17]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HG/CHR 1개 당 인구수(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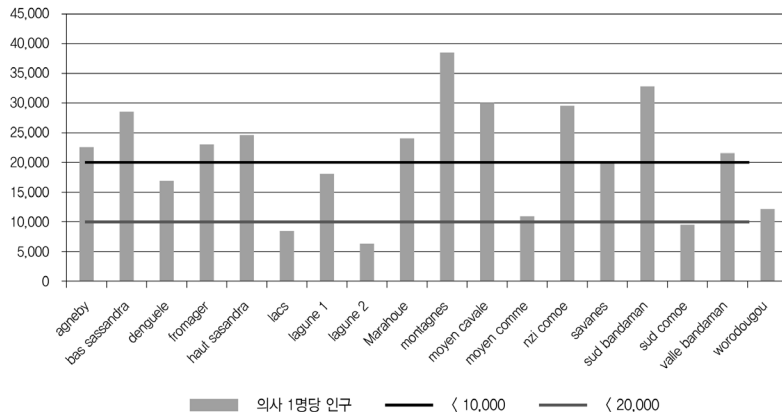
자료: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lutte contre le SIDA,  
Projet pour l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de Côte d'Ivoire(2015)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공 보건 접근성이 가장 낮다. 2013년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3차 의료기관은 총 37개지만, 이 중 공립병원인 CHU는 아비장 3개, 부아케 1개 등 총 4개 뿐이다. 그 외 33개의 3차 병원은 모두 사립으로서 대부분 아비장에 위치하고 의료비용이 비싸,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력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평균대비 절대적인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코트디부아르는 인구 1만명 당 의사 1.4명, 간호사 및 산파 4.8명으로, 아프리카 평균인 의사 2.7명, 간호사 및 산파 12.4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내전 중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보건재정으로 인해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 인력에 대한 보상도 제때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분야로 유입되는 의료인력이 점점 적어졌다. 지역적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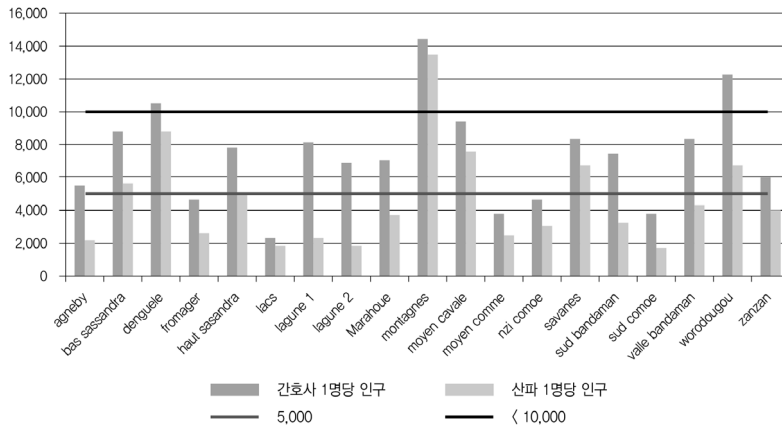
아비장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의료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1)</sup>

[그림 2-18]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의사 1명 당 인구수(2012)



자료: PND 2012-2015(2015)

[그림 2-19]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간호사 및 산파 1명 당 인구수(2012)



자료: PND 2012-2015(2015)

31) PND 2012-2015

### 3) 식수위생 현황

코트디부아르의 안전식수 사용정도는 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및 서아프리카 대비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적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OCHA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식수접근성은 실제 3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북쪽지역의 식수 접근율은 27% 수준으로, 이는 식수 시설의 개보수 미비 및 내전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서남부의 경우, 내전으로 인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 및 이주민의 난민 캠프 등으로 식수접근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 지역 역시 슬럼가 중심으로 식수접근성이 좋지 않다. 2012년 아비장의 가구를 조사해본 결과, 코트디부아르수도회사(SODECI) 상수도망과 연결되어 수도물 사용이 가능한 가구는 약 30%에 불과했으며, 이 중 60%만이 지속적으로 수도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sup>32)</sup>

안전한 위생시설 사용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타국 대비 열악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위생시설 사용률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다. OCHA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개선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인구는 36%로 매우 적으며 이들마저도 생활 오·폐수를 길이나 물가에 별도 처리없이 버리고 있다. 게다가 도시 인구 중 일부(6%) 와 농촌 인구의 과반수(51%)는 여전히 노상이나 강가, 호숫가 등에 배변을 하고 있어 위생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수자원들이 식수원 등으로 사용되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유발하는 등 국가 보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OCHA는 특히 아비장 인근과 서북부 지역을 식수위생 취약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32) OCHA(2013)

[그림 2-20] OCHA 지정 식수위생 취약지역



자료: OCHA(2013) Besions Hunmanitaires

## 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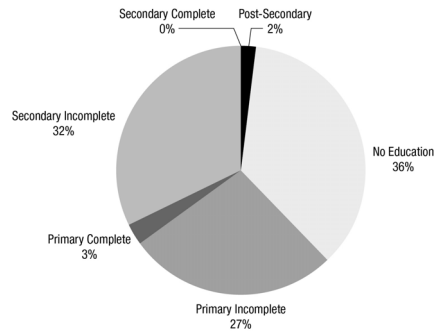
## 1) 기초 교육 현황

코트디부아르는 MDG상 초등 의무교육을 목표로 두고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991년 기준 50%에 채 달하지 않던 초등학교 순 등록률이 20년 사이 62%까지 향상되고, 초등학교 순 이수율 역시 61%<sup>33)</sup>에 달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비 여전히 낮은 등록률을 보일 뿐 아니라 의무교육까지 이어지기에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은 15-24세 사이 청소년의 교육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36%에 달하며, 초등교육을 끝마치지 못하는 비율은 약 27% 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초등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Education policy and data center, National Education Profile 2014

[그림 2-21] 15-24세 청소년의 교육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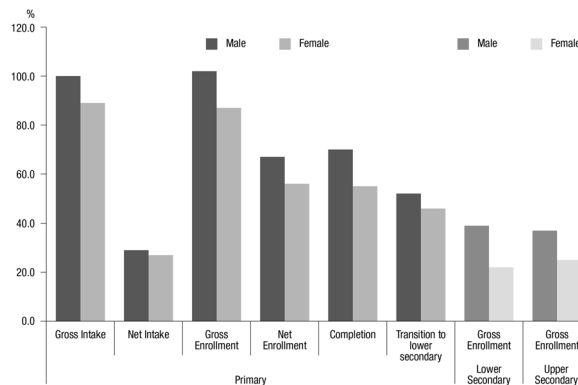


Data source: EPDC extraction of MICS dataset 2006

자료: Education policy and data center, National Education Profile 2014

정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공공교육 서비스를 누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불어권 국가 교육 장관 컨퍼런스(Conférence des ministres de l'Education des Etats et gouvernements de la Francophonie; CONFEMEN)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초/중등 유급률이 19%로서 세네갈의 수치가 5%임을 미뤄보아 주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초등학교 등록률은 남녀 평균 94%에 달하나 이후 중등학교 등록률은 남녀 평균 31%의 수치로 급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등학교로의 전환율은 겨우 남녀 평균 49% 정도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2] 초·중등학교 교육 이수 현황



자료: Education policy and data center, National Education Profile 2014

이와 같이 코트디부아르 교육 분야가 더디게 발전하는 요인으로 내전으로 인한 교육시설 및 인프라의 손실을 꼽을 수 있다. 장기간의 내전은 보건 분야에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교육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 내전 기간 동안 교육 시설 붕괴 및 물자 약탈 등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가 크게 손실되었고,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어 많은 학교들이 폐쇄되었다. 특히 내전 격전지였던 서부지역에는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2-14 교육 분야 중기활동계획(Plan d'Actions à Moyen Terme; PAMT)에 따르면, 내전 이후 전체 초·중등학교 13,688개 중 154개(초등 151개, 중등 3개)가 폐쇄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서부 지역 학교는 91%가 폐쇄되었다. 더불어 최소 1,899개 학교 카페테리아가 물자 부족으로 폐쇄되었는데, 이 중 46%는 서부 및 중서부 지역, 38%는 북부 지역의 학교로 교육접근성의 지역적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 2)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급증하며 현재 청년인구의 비중이 늘어나 노동인구는 많은 편이다. 하지만 10년간의 내전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해 청년층의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률(underemployment rate)이 모두 높아 풍부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불완전고용 및 비공식부문 고용을 모두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5% 수준이며, 15-35세의 청년층의 경우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sup>34)</sup> 더불어, OBG에 따르면 일자리가 없는 코트디부아르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자질 부족이며, 학사 학위 소지자의 실업률도 38%에 육박한다. 전문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청년층의 23% 역시 실업 상태다.<sup>35)</sup>

모순적인 점은 코트디부아르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고용기회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력이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직업훈련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

34) ILO Stat.

35)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2015

필요한 부분이다. OBG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기업의 27%가 양질의 노동인구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답했다.<sup>36)</sup>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직업훈련 제도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 직업훈련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민간기관 간 경쟁이 약화되면서 기업 수요와 연계성을 가지려는 노력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 노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장의 고용기회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직업훈련 과정 수료(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BTS)를 위해서는 전문 인턴십 과정을 통한 실습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기업의 인턴십 기회가 수요 대비 부족하여 상당수의 청년들이 BTS를 수료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기업의 수요와 상관없는 사무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 예를 들어 목공업, 전자, 기계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워크숍 및 기술훈련, 설비·장비 등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많은 교육기관이 인사, 통신 등의 사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sup>37)</sup>

## 라. 농업

농업은 코트디부아르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수출품의 50% 이상이 농산품이며, 국민의 3분의 1이 농산업에 종사하는 등 고용이나 부가가치 활동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으로서 카카오 생산량 및 국제가격 변동이 국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경제적 비중이 큰 만큼 이를 둘러싼 이권이나 부정·부패도 많아 사회적 문제도 크게 안고 있었다. 와타라 정권은 이에 대한

36)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2015

37)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2015

해결책으로 카카오 관련 제도를 적극 개편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품질 관리 및 구매 절차의 단순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3-2014년 카카오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인 1.74백만 톤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카카오 개혁으로 생산자 보장가격이 kg당 750 세파프랑(1.14유로)로 증가하면서 2014년 카카오 생산자 수입이 약 1조 4천억 세파프랑(2억 유로)를 기록하여 2013년 대비 약 20.51%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sup>38)</sup> 국제코코아기구(ICO)는 동 생산율을 유지할 경우, 5년 내 2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코트디부아르는 주로 카카오, 고무, 캐슈 등 환금작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곡물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은 채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코트디부아르 국내 쌀 수요는 약 155만 톤이었으나 국내 생산량은 62만 톤에 불과하여 91만 톤 상당을 수입하는 등, 쌀 자급률이 40-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쌀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에는 170만 톤을 기록하여 연간 1인당 쌀 수요가 76kg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1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sup>39)</sup>

이와 같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농산부는 쌀 농업 분야 지속적인 개발사업(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Riz SNDR 2012-2020; SNDR)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농산부는 2011년 550,000톤이었던 쌀 생산량이 2014년에는 130만 톤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며 2016년 말에는 190만 톤을 생산하여 목표치인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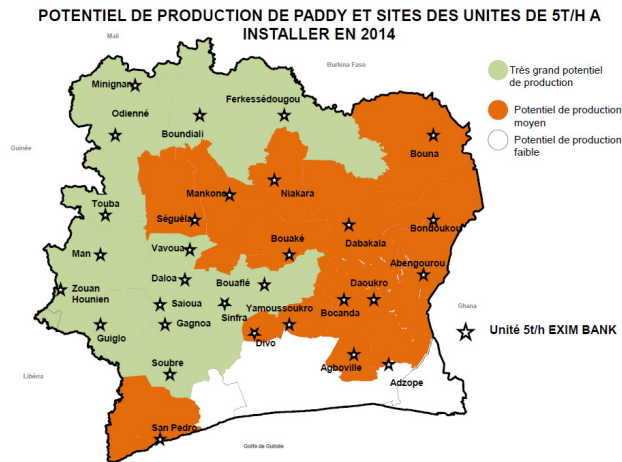
---

38) 대사관(2.3)

39) Ministère de l'Agriculture, 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a Riziculture,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riz SNDR 2012-2020

40) 대사관 3.24

[그림 2-23] 지역별 벼 생산 잠재력 정도



자료: Ministère de l'Agriculture, 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a Riziculture,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riz SNDR 2012-2020

## 마. 산업

### 1) 주요 산업 현황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산업이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10년간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1990년대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11년 와타라 정권이 들어선 이후, 2차 산업이 전체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등 큰 폭으로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2차 산업의 성장은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자원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카카오, 팜유, 천연 고무 등 농산업 수출 활성화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차 산업의 빠른 성장은 와타라 정부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따라 공공지출 규모가 커지며 국내 수요가 함께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 인프라 프로젝트는 약 19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말 아비장 라군에 제3대교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전국 고속도로망 연장, 국제 공항 및 아비장 항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부문이 크게 성장했으며, 화학 및 자동차 산업도 20-30% 가량 성장했다. <sup>41)</sup>

한편 농산업을 살펴보면, 카카오, 팜유, 커피, 고무 등의 수출을 통해 크게 발전하여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국제시장 공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등 주변국 시장을 상당수 점유하고 있기에 카카오에 의한 농산업 발전은 중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팜유의 경우, 2014년 기준 371,000톤을 수출하면서 아프리카 내 최대 팜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부르키나파소, 말리, 나이지리아 등 역내 시장의 90%를 독점하는 등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캐슈넛 생산이 연간 450,000톤에 달하는 등 농산품 가공이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다.<sup>42)</sup>

## 2) 산업단지 현황

1970년대 처음 구상된 이래로, 코트디부아르의 산업단지는 아비장 인근의 브리디(Vridi), 쿠마씨(Koumassi), 요푸공(Yopougon)등을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대규모의 제조공장이 해당 지역에 밀집되었다. 그러나 정세가 악화되며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지속되지 못해, 이들 지역은 오히려 미개발지역 및 슬럼가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2013년 중 와타라 정부는 산업광업부 산하에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관리·감독하는 산업인프라개발관리공사(Agence de Gestion et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Industrielles; AGEDI)와 산업단지개발기금(Fond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Zones Industrielles)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 전역에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는 중부지역의 부아케(Bouake)에 조성될 예정으로 섬유 등 수출지향적 산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코트디부아르 최대 규모인 전체 940ha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최대 300개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아케 산업단지를 민관협력(PPP)방식을 통해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14년 7월에 세부계획 수립, 공동투자 및 단지 관리를 위한 민간파트너를 위한 조달과정을 마친 바 있다.

41)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2015

42) African Economic Outlook, 2014

## 바. 인프라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인프라 발전이 잘 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로, 도로, 철도, 전력 및 ICT 인프라가 전국망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수준이다. 내전을 거치며 국가 전반적인 인프라 손실이 있었지만, 여전히 역내 최대 규모의 도로망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항공·항만 인프라에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sup>43)</sup> 내전 이후 와타라 정부 역시 안정적인 국가 경제회복을 위해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표 2-14〉 코트디부아르 인프라 현황

| 지표       |             | 최근                 |
|----------|-------------|--------------------|
| 전력       | 전력 생산량      | 6,099 백만 KWH(2011) |
|          | 전기보급률       | 59.3 %(2011)       |
| 도로<br>철도 | 도로 총 연장     | 81,996 km(2007)    |
|          | 도로 포장률      | 7.9 %(2007)        |
|          | 전체 자동차 수    | 22대/1,000명(2007)   |
|          | 승용차 수       | 16.8대/1,000명(2007) |
|          | 철도 총 연장     | 639 km(2012)       |
| 항만<br>항공 | 항공화물        | 2.7 백만 톤(2011)     |
|          | 항공승객        | 39,485명(2012)      |
|          |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 66만 TEU(2012)      |
| 통신       | 유선전화 가입자    | 1.4명/100명(2012)    |
|          | 이동전화 가입자    | 91.2명/100명(2012)   |
|          | 인터넷 사용자     | 2.4명/100명(2012)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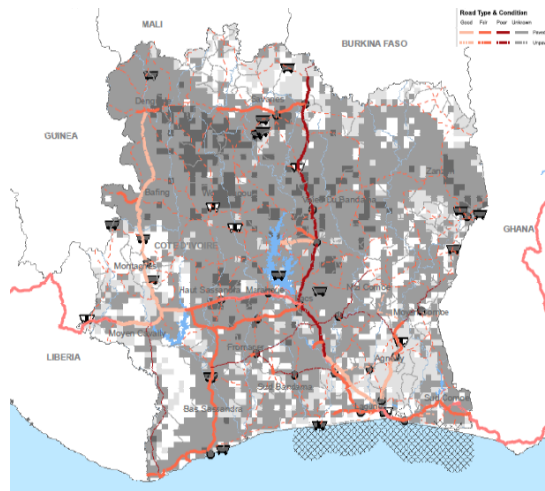
### 1) 교통·물류 인프라

코트디부아르는 1980년대에 이미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도로망을 갖추어,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같은 주변 내륙국가의 역내 물류를 아비장 항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서아프리카 물류거점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왔다. [그림 2-24]은 코트디부아르 도

43)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2015

로망이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주변국과도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관리 및 적절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아비장 항부터 부르키나파소로 연결되는 주 고속도로 등 전반적인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4] 코트디부아르 도로망 및 여건(2010)



자료: Vivien Foster and Nataliya Pushak. 2010. "Côte d'Ivoire's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AICD). Washington, DC: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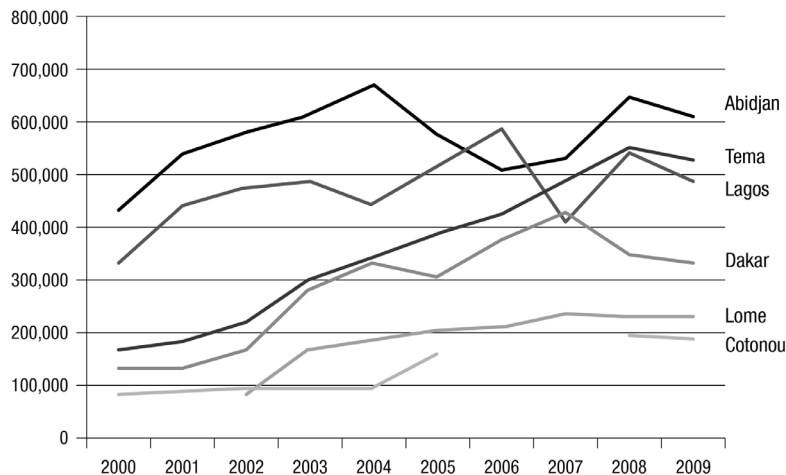
이에 정부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아비장과 라이베리아, 가나, 부르키나파소를 연결하는 주요 국도 재건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구 도시인 산페드로(San Pédro)와 연결되는 서쪽 국도는 말리 국경까지 확장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적 도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주변국이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항구(아비장 항, 산페드로 항)와 연결되며 서아프리카 무역의 핵심 거점지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전망이다.

항만 인프라를 살펴보면, 아비장 항은 주변 5개국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일찍부터 재정비한 덕에 서아프리카의 주요 항구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다. 비록 정세 악화로 인해 주변 경쟁국인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으로 물류흐름이 일부 이동했지만, 2011년 이후 아비장 항은 서아프리카 주요 항만물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되찾

아 가고 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더불어 경쟁항구인 가나 테마(Tema) 항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항만물류기업들이 아비장 항으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비장 항구관리공사(Port Autonome d'Avidjan; PAA)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비장 항구를 통한 수출입 화물수송량이 2013년 천만 톤에서 2014년에는 11.1% 증가한 천백만 톤을 기록한 바 있다.<sup>44)</sup>

[그림 2-25] 서아프리카 항구의 컨테이너 수송량 비교

(단위: 톤)



자료: Jean Debie. 2012. "The West African port system: global insertion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코트디부아르 서부지역에 위치한 산페드로 항 역시 2013년 기준 2.9백만 톤에서 2014년 기준 480만 톤의 물류량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의 카카오 물류항이며 코트디부아르 농산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석유 및 자원부문이 크게 확장되면서, 와타라 정부는 4,000억 FCFA를 투자하여 정제원유 및 자원 수출을 위한 석유 터미널 건설 등 산페드로 항만을 재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페드로 항은 코트디부아르의 석유, 가스, 철, 니켈 등 자원 및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망간 수출 등 향후 서아프리카 천연자원 물류항으로서의 입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PAA, 2013

세계은행이 16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4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전체 160개국 중 79위에 해당하며, 서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 다음인 2순위에 해당한다. 이는 2010년 순위인 102위와 비교했을 때 20위 이상 향상된 것으로, 코트디부아르 인프라가 내전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항목 중 세관에 있어서는 세네갈, 베냉 등 역내 주변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나, 국제수송의 경우 2.63점의 나이지리아보다도 높은 2.87점을 기록하였으며 화물추적조회, 적시성 항목에서도 타 국가 대비 좋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2-15> 역내 국가별 물류성과지수(LPI)(2014)

| 국가          | LPI 순위 | LPI 점수 | 세관   | 물류 인프라 | 국제 수송 | 물류 역량 | 화물 추적 조회 | 적시성  |
|-------------|--------|--------|------|--------|-------|-------|----------|------|
| 나이지리아       | 75     | 2.81   | 2.35 | 2.56   | 2.63  | 2.70  | 3.16     | 3.46 |
| 코트디부아르      | 79     | 2.76   | 2.33 | 2.41   | 2.87  | 2.62  | 2.97     | 3.31 |
| 부르키나파소      | 98     | 2.64   | 2.50 | 2.35   | 2.63  | 2.63  | 2.49     | 3.21 |
| 가나          | 100    | 2.63   | 2.22 | 2.67   | 2.73  | 2.37  | 2.90     | 2.86 |
| 세네갈         | 101    | 2.62   | 2.61 | 2.30   | 3.03  | 2.53  | 2.65     | 2.53 |
| 베냉          | 109    | 2.56   | 2.64 | 2.35   | 2.69  | 2.35  | 2.45     | 2.85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      | 2.46   | 2.27 | 2.27   | 2.49  | 2.41  | 2.48     | 2.84 |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2014)

## 2) ICT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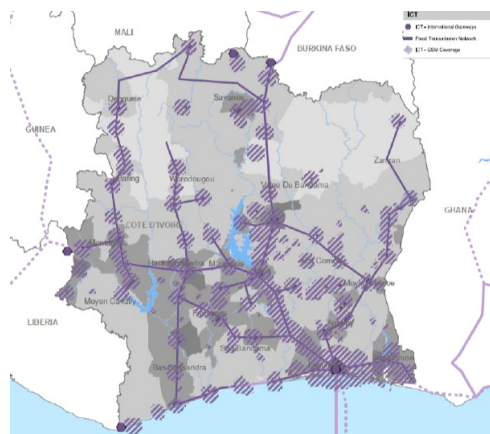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의 교통 인프라가 역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ICT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국가 인터넷 접속률은 2012년에 2.5%으로, 주변국인 나이지리아(32%), 세네갈(19%), 가나(1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 간 ICT 네트워크 및 국제 gateway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6> 서아프리카 인터넷 보급 정도(2012)

| 국가     | 인터넷 접속률 | 인터넷 사용자<br>(100명 당) |
|--------|---------|---------------------|
| 나이지리아  | 32%     | 33명                 |
| 세네갈    | 19%     | 19명                 |
| 가나     | 16%     | 12명                 |
| 코트디부아르 | 2.5%    | 2명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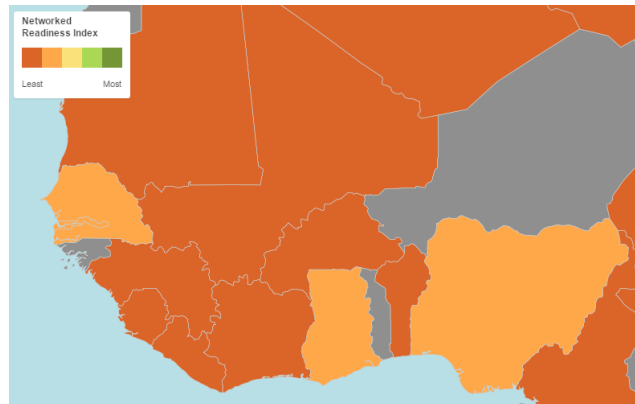
[그림 2-26] 코트디부아르 ICT 전국망(2010)



자료: Vivien Foster and Nataliya Pushak.  
2010. "Côte d'Ivoire's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AICD). Washington, DC: World Bank

WEF가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또한 주변국 대비 코트디부아르 ICT 준비정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7> 서아프리카 국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NRI) 비교



| 국가     | NRI 2014 |      | 환경  |      | 준비정도 |      | 사용  |      | 영향  |      |
|--------|----------|------|-----|------|------|------|-----|------|-----|------|
|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 가나     | 96       | 3.65 | 48  | 4.23 | 109  | 3.88 | 100 | 3.34 | 101 | 3.12 |
| 나이지리아  | 112      | 3.31 | 109 | 3.54 | 119  | 3.31 | 105 | 3.17 | 91  | 3.23 |
| 세네갈    | 114      | 3.3  | 100 | 3.64 | 127  | 3.07 | 106 | 3.17 | 85  | 3.29 |
| 코트디부아르 | 122      | 3.10 | 125 | 3.35 | 136  | 2.65 | 119 | 2.93 | 116 | 2.85 |
| 부르키나파소 | 136      | 2.80 | 126 | 3.35 | 147  | 2.2  | 127 | 2.73 | 118 | 2.84 |

자료: Beñat Bilbao-Osorio, Soumitra Dutta, and Bruno Lanvin. 2014.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 Rewards and Risks of Big Data". Geneva: World Economic Forum

와타라 정부는 ICT 분야 대중화 및 공공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 ICT 인프라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월 와타라 대통령은 5년 내 전국 50만 가구에 컴퓨터 설치 및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 1인당 1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 7월까지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튀니지와 정보통신기술 관련 삼자협정을 맺는 등 IT 선진국으로부터 경험과 기술 등을 전수받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 3) 도시 인프라

한편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수도인 아비장을 포함하여 야무수크로, 부아케 등 대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트디부아르 인구의 20%인 430만이 거주하는 아비장의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 및 낙후된 생활환경 등 도시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따른 도시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

우선, 도로 및 교통 관련하여 현재 아비장에 등록된 차량이 코트디부아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8만대로 추정되는 한편, 적절하게 도시교통 인프라 및 체계가 잡히지 않아 심각한 도시 교통문제를 낳고 있다. 아비장은 반도와 작은 섬으로 이뤄진 도시로, 지구 간 이동을 위해서는 라군(석호)을 건너야 하여 이동에 제한이 크다. 하지만 3개에 불과한 대교와 제한적인 도로 구성으로 인해 인구밀집지역 및 도심·공항 이동 시 시간소요가 크며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체가 가장 심한 구간은 산업단지인 요푸공과 아자메(Adjamé)부터 도심지역인 플라토 구간으로, 일일 290,000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말 기준, 주간시간 플라토와 트레슈빌(Treichville) 사이의 드골장군교(Pont Général de Gaulle)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일 약 100,000대, 우푸에 부아니교(Pont Houphouët-Boigny)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일 약 54,000대에 달한다. 도심지역인 플라토부터 공항까지의 실제 거리는 약 15km에 불과함에도 이동 시 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교통 혼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 마코리(Marcory)와 리비에라(Riviera)지구를 연결하는 제3대교 앙리코난베디에교(Pont Henri Konan Bédié)를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통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이다.<sup>45)</sup>

45) Acturoutes.info. 2014. 'Actualite: Abidjan: plus de 300 000 vehicules en cir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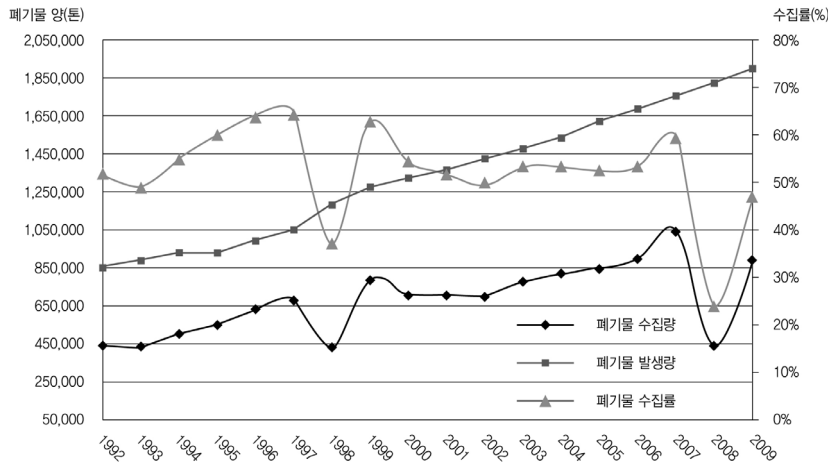
[그림 2-27] 아비장 지구 간 교량 및 도로 현황



자료: Jeune Afrique 웹사이트 <http://www.jeuneafrique.com/>

도로교통 문제와 더불어, 아비장 내 폐기물 및 상하수도 관리와 관련, 설비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비장 내 생활폐기물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는 연간 약 200만 톤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집되는 양은 적은 편이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SITAF, ASH international과 같은 유럽계 회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을 독점하며 수집률이 최고 65%까지 올랐으나, 이후 환경부 산하 도시위생청(Agence Nationale de la Salubrité Urbaine; ANASUR)의 관리체제로 바뀌면서 2009년 기준 수집량이 89만 톤 정도로, 실 수집률이 50%가 채 안되는 실정이다. 이는 폐기물 관리기관 및 시스템의 역량부족으로 평가되어, 코트디부아르 정부 및 아비장 시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8] 아비장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률 변화(1992-2009)



주: 1998년, 2008년의 경우 쓰레기집하장 폐쇄로 수집률 급감

자료: N'Guettia Kouaou Ives. 2010. Gestion des ordures ménagères d'Abidjan: Diagnostic

이외에도 아비장 내 유일한 소각장인 아쿠에도 소각장(Décharge Akouédo)이 환경문제로 2014년 10월 폐쇄되며 폐기물 처리에 혼란을 빚는 동시에, 폐쇄 후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소각장 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위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폐기물 관리는 아비장의 우선순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2-29] 아비장의 폐기물 관리현황



자료: Jeune Afrique 웹사이트 <http://www.jeuneafrique.com/>

한편, 아비장의 하수처리 시스템은 1970-80년대에 세계은행 지원으로 구축되었는데, 2009년 기준 하수처리장 23km<sup>2</sup>, 하수처리 네트워크 2,000km, 펌프 및 사전처리시설 51개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수도 망에 연결되어 있는 가구는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생활폐오수를 별도의 하수처리 없이 배출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하수도 설비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sup>46)</sup>

[그림 2-30] 아비장의 하수처리 현황



자료: ICRC 웹사이트 <https://www.icrc.org>

이와 같은 다면적인 도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전국 대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하여 향후 15년 간 코트디부아르 주요 지역의 도시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동 마스터플랜 사업은 JICA가 지원하는 아비장 도시 마스터 플랜인 “그랑 아비장(Grand Abidjan)” 및 중장기 확장 계획, 야무수크로 및 부아케 도시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타 29개 군청소재지 도시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비장 내 코코디, 요푸공, 아보보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깨끗한 아비장(Abidjan Vill Propre 2015)”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난 2014년 98억 세파 프랑을 투자하여 아보보-아냐마(Anyama) 지역 간 왕복 2차선 고속도로와 아비장 라군 지역의 대교 건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등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맞서고 있다.

46) 환경부. 2013. DOCUMENT DE PRESENTATION DE LA THEMATIQUE: EAU & ASSAINISSEMENT EN COTE D'IVOIRE

## 사. 거버넌스 및 사회통합

코트디부아르의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는 장기간의 내전을 거치며 발전이 침체되었다. 정부와 반군 간의 오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잃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내전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이 마비되고 자료가 유실되어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2014년 발표된 아프리카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이브라힘 지수(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IIAG)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52개국 중 40위를 차지함으로써 지역 평균 대비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서아프리카권 내에서도 7위인 가나, 9위인 세네갈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세 지표를 살펴보면, 참여 및 인권부문에서는 주변국과 비슷한 순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사회개발(43위), 성평등(49위), 복지(45위), 농촌개발(44위), 법치(44위) 등의 순위는 여전히 굉장히 낮다. 내전 이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에, 일부 지표에서 큰 개선을 보이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거버넌스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표 2-18> 서아프리카 국가 및 코트디부아르 이브라힘 지수(2013)

| 국가     | 이브라힘 |    | 안보 및 법치 |    | 참여 및 인권 |    |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 |    | 사회개발 |    |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가나     | 68.2 | 7  | 69.9    | 6  | 73.6    | 7  | 53.6         | 14 | 75.5 | 8  |
| 세네갈    | 64.3 | 9  | 63.5    | 12 | 73.7    | 6  | 56.7         | 10 | 63.4 | 17 |
| 부르키나파소 | 53.3 | 21 | 57.7    | 18 | 53.2    | 23 | 51.0         | 17 | 51.2 | 38 |
| 말리     | 49.5 | 28 | 48.6    | 33 | 45.9    | 28 | 51.8         | 15 | 51.6 | 37 |
| 나이지리아  | 45.8 | 37 | 38.1    | 44 | 48.9    | 26 | 43.3         | 31 | 53.0 | 34 |
| 코트디부아르 | 44.3 | 40 | 41.6    | 40 | 43.9    | 29 | 43.5         | 30 | 48.3 | 43 |
| 서아프리카  | 52.2 | -  | 53.4    | -  | 54.0    | -  | 45.2         | -  | 56.3 | -  |
| 아프리카   | 51.5 | -  | 51.7    | -  | 49.9    | -  | 45.6         | -  | 58.7 | -  |

자료: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2014. "Data Report". Mo Ibrahim Foundation

한편,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 발표한 코트디부아르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32/100점으로서, 177개국 중 115위이다. 이는 세계 평균 43/100점은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33/100점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이와 같이 코트디부아르의 공공행정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내전의 여파가 충분히 견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정부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9> 서아프리카 국가 및 코트디부아르 부패인식지수(2014)

| 국가     | 2014년 CPI |    | 2013년 | 2012년 |
|--------|-----------|----|-------|-------|
|        | 순위        | 점수 | 점수    | 점수    |
| 가나     | 61위       | 48 | 46    | 45    |
| 세네갈    | 69위       | 43 | 41    | 36    |
| 부르키나파소 | 85위       | 38 | 38    | 38    |
| 말리     | 115위      | 32 | 28    | 34    |
| 코트디부아르 | 115위      | 32 | 27    | 29    |
| 나이지리아  | 136위      | 27 | 25    | 27    |

자료: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2014. "Data Report". Mo Ibrahim Foundation

## 2. 분야별 개발과제

### 가. 내전 영향 지역의 기초서비스 접근성 약화

코트디부아르의 장기내전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내전이 격화되었던 아비장과 서북부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서북부지역은 전통적으로 국경지대로 이주민 혹은 난민이 많고 기후가 좋지 않아 영양문제를 겪는 지역이었는데, 내전이 크게 격화되며 생활환경이 열악해졌다. 식수 및 위생시설 사용이 어려워지며, 영양문제가 심화되었고 모자보건 상태도 악화되었다. 또한, 학교와 병원이 붕괴되거나 폐쇄되고 인력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는 등 교육 및 보건 등 기초 사회접근성이 크게 낮아졌다. 더불어 내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탓에 공동체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식수위생, 보건 및 교육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통합 및 공동체 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정부행정

내전의 영향으로 행정시스템의 붕괴 및 자료 유실이 일어나고 부패가 심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의 거버넌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행정문서가 대부분 전자화 되어있지 않아 손실이 컸으며, 10년간의 내전을 거치며 부패공무원이 많아지며 사회적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는 상황이 벌어졌다. 급증하는 외국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및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촉진을 가속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코트디부아르는 행정 효율화, 투명성 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보화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행정시스템 및 행정자료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성 및 정부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통관, 조달 등 원스톱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 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 미흡

코트디부아르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기업들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2개의 상반된 노동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급증하여 현재 청년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내전을 거치며 제대로 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정치·경제적 안정을 되찾으며 산업화가 진행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청년 실업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해 인력공급 측면에서 기업체는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잉여 노동인구를 산업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훈련하는 제도 및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 및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아비장의 도시화에 따른 낙후된 인프라 및 환경문제

코트디부아르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과 동시에, 내전 발발로 인해 도시로 넘어온 인구가 많다. 특히 아비장은 해안가이자 경제도시로서, 현재 국가 전체 인구의 20%인 430만 명의 인구포화 상태를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경제적 안

정을 되찾으며 많은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국제기구 등이 계속해서 아비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아비장의 도시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비장의 도시인프라 규모나 서비스는 증가하는 도시인구에 대응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도로교통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역시 인구대비 적절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비장이 안정적으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상하수도·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multi-sector)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통합적 도시 관리가 요구된다.

#### 마. 서아프리카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코트디부아르는 전통적으로 남쪽에 해안가를 두고 북쪽에는 내륙국가와 접함으로써, 오랫동안 서아프리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최근 내전이후 경제 회복으로 인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록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역할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비장 항의 물류량이나 주변 국가와의 내륙 운송량 등을 통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물류유통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비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모와 서비스를 갖춘 물류운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서아프리카 내 Logistics Hub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로 및 철도의 경우, 주변 내륙 국가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항만 및 항공의 경우, 국제적 규모 및 서비스로 확장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3절 국가개발정책

### 1. 국가개발전략(NDS)

현재 코트디부아르의 국가개발전략은 「2012-2015 국가발전계획(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 2012-2015; PND 2012-2015)」로서, 이는 2008년에 수립된 기존의 1차 PRSP를 포괄하면서 신개발의제를 명시한 통합적 개혁안으로서, 지난 30년 간 겪은 국가발전의 한계점과 정치적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적 방법을 통해 수립되었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코트디부아르를 신흥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 빈곤률을 절반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 가. PND 수립 배경

1960년 해방 이후 코트디부아르는 국부형 지도자인 우푸에 부아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카카오와 커피를 상업형 작물로 발전시켜 고성장 경제 발전 전략을 펼침으로써 국가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후 우푸에 부아니가 병으로 사망한 후 남은 임기 동안 집권한 앙리 코난 베디에(Henri Konan Bédié)는 1995-2000년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과 서비스업, 석유와 해양가스(Offshore gas)개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2000년 대선을 통해 집권한 바그보 대통령은 2002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4년 6개월 만에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종식되자, 2008년 빈곤완화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의 일환으로 국가발전추진 및 빈곤완화전략(Strategy for Re-launching Development and Reducing Poverty)을 수립하여 2009년 1월 발표하였다.

코트디부아르의 1차 PRSP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2009년 당시 49%였던 빈곤률을 2013년까지 33%로, 2015년까지 16%로 줄이며 매년 약 6%에 달하는 연간 GDP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 및 추진방향을 가지고 수립된 PRSP는 2010년 대선 이후 내전이 재개되는 등 사회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표 2-20〉 코트디부아르 PRSP 세부목표 및 추진방향

| 세부 목표                 | 추진 방향                                  |
|-----------------------|----------------------------------------|
| 1. 공화국의 토대 재정립        | - 평화와 안보 강화 및 굿 거버넌스 도모<br>- 분권화       |
| 2. 신흥경제국으로의 전환        | - 건실한 거시경제적 체제<br>- 부와 고용의 창출과 민간부문 개발 |
| 3. 보편적인 사회복지          | - 사회복지, 환경 보호, 젠더 및 사회적 보호             |
| 4.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 - 지역 통합 및 국제사회 참여                      |

자료: Côte d'Ivoire. 2009. PRSP

〈표 2-21〉 코트디부아르 PRSP 예산분배

(단위: 백만 CFAF, %)

|      | 2009-2015 예산 | 연평균       | 비율     |
|------|--------------|-----------|--------|
| 목표 1 | 706,303      | 100,900   | 4.00   |
| 목표 2 | 7,594,864    | 1,084,981 | 43.04  |
| 목표 3 | 9,242,769    | 1,318,226 | 52.38  |
| 목표 4 | 101,100      | 14,443    | 0.57   |
| 총계   | 17,645,037   | 2,518,550 | 100.00 |

자료: Côte d'Ivoire. 2009, PRSP

## 나. PND 주요 내용

### 1) 거시경제 시나리오 및 전략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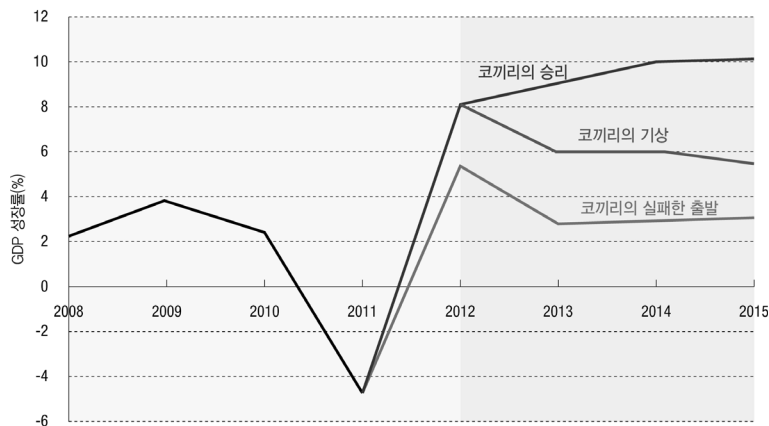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 국가발전계획은 향후 4년간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코끼리의 기상(Awakening of the Elephant)’<sup>47)</sup>, ‘코끼리의 실패한 출발(Failed Departure of the Elephant)’<sup>48)</sup>, ‘코끼리의 승리(Triumph of the Elephant)’와 같은 3가지의 국가발전 시나

47) 이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의 시나리오로 2012년 GDP 성장률은 8.5%로, 산업별 연평균 실질 GDP 성장을 (2012-2014)은 각각 1차 산업 3.2%, 2차 산업 9.6%, 3차 산업 9.8%로 예측.

48) 이는 코트디부아르가 과다채빈국(HIPC)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로, 실질 GDP 성장을

리오를 통해 그리고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현재 코트디부아르 정치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변화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2015 국가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 ‘코끼리의 승리’ 시나리오가 선택되었다.

[그림 2-31]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예상



자료: Republic of Côte d'Ivoire(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

‘코끼리의 승리(Triumph of the Elephant)’시나리오는 코트디부아르가 2020년까지 신흥국가로 부상하고 다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다. 거버넌스 강화, 경제 경쟁력 강화 및 아프리카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제도개혁 및 정책실행을 통해, 수년간의 내전이 만든 경제 침체 및 사회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시나리오에 의하면 향후 GDP 성장률은 2012년에 8.1%, 2013년에 9%를 시작으로 2014-2015년 평균 10%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권고문(Joint Staff Advisory Note on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은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한 바 있다.<sup>49)</sup>

5.4%(2012) 및 2.9%(2013-2015)로 예측.

49) World Bank, IDA and IMF(2013), Joint Staff Advisory Note on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 PND는 2020년 신흥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2015년까지 마련한다는 비전과 함께 (1)굿 거버넌스가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조화로운 삶 영위, (2)국부 창출과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추구, (3)여성, 아동 및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제고, (4)건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의 삶 영위, (5)코트디부아르 지역적·국제적 지위 재조정 등의 5가지 전략적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2012-2015 기간 동안 약 11,076십억 세파프랑(약 22십억 달러)이 계획되었으며, 이 중 60% 이상이 국부 창출 및 경제성장 도모(목표 2)를 위해 배정되었고,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제고(목표 3)(14.58%), 굿 거버넌스(목표 1)(9.56%) 순으로 예산배정이 계획되었다.

<표 2-22> 2012-2015 NDP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세파프랑)

| 전략적 목표 및 세부 분야                                | 비율(%) | 2012-2015<br>필요 예산 |
|-----------------------------------------------|-------|--------------------|
| 총 계                                           | 100   | 11,075,992         |
| 목표 1. 굿 거버넌스가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조화로운 삶 영위    | 9.58  | 1,060,751          |
| 국가 안보                                         | 2.92  | 323,400            |
| 공공행정                                          | 2.45  | 270,372            |
| 사법                                            | 2.2   | 243,408            |
| 그 외 분야(인권, 평화, 통계시스템, 통신)                     | 2.02  | 223,571            |
| 목표 2. 국부 창출과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추구    | 63.82 | 7,068,697          |
| 인프라 및 교통서비스                                   | 25.46 | 2,819,969          |
| 농업                                            | 8.49  | 940,338            |
| 산업 및 중소기업                                     | 6.08  | 673,661            |
| 그 외(에너지, 광업, 경제 거버넌스, 무역, 과학연구, 수공업, 관광)      | 23.8  | 2,634,730          |
| 목표 3. 여성, 아동 및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14.58 | 1,614,841          |
| 보건                                            | 5.36  | 594,072            |
| 교육                                            | 2.62  | 290,378            |
| 고등교육                                          | 2.29  | 254,126            |
| 그 외(기술교육, 고용, 청소년, 사회복지, 젠더, 인구정책)            | 4.31  | 476,267            |

| 전략적 목표 및 세부 분야                     | 비율(%) | 2012-2015<br>필요 예산 |
|------------------------------------|-------|--------------------|
| 목표 4. 건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의 삶 영위          | 9.37  | 1,037,480          |
| 도시화/주택                             | 5.1   | 565,199            |
| 식수                                 | 1.69  | 186,866            |
| 위생                                 | 1.47  | 163,298            |
| 그 외 분야(공공보건,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산림수자원) | 1.1   | 122,117            |
| 목표 5. 코트디부아르 지역적·국제적 지위 재조정        | 1.77  | 195,906            |
| 국제협력                               | 1.77  | 195,906            |
| 외교 부문                              | 1.22  | 134,848            |
| 아프리카 지역통합 부문                       | 0.55  | 61,058             |
| 기타 정세 안정                           | 0.88  | 98,317             |

자료: Repulbic of Côte d'Ivoire(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

#### <PND 2012-2015 주요 양적 목표>

- ① 민간공공투자 증대를 통한 2012-2015 기간 평균 10%의 지속적 GDP 성장을 달성
- ② 빈곤률 50% 감소
- ③ UNDP 인간개발지수(HDI)에 있어 아프리카 선도국가의 지위 재획득
- ④ 2015년 MDGs 목표치 최대한 달성
- ⑤ 아프리카의 최고 비즈니스 환경 구축
- ⑥ 굿 거버넌스 및 부패관련 지수에 있어서 아프리카 선도국가대열 합류

산업발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1차 산업의 경우 자급농업 및 광업 발전을 통해 기간 평균 4.3%로 성장하고자 했다. 2차 산업은 도로망 및 철도 건설, 지역 간 교통망 구축, 초·중등학교·기술센터·대학 보수 및 건설, 주택 건설, 전력 및 수자원망 보수·확장 등 건설 및 공공사업을 통해 기간 평균 12.6%의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했다. 3차 산업 역시 공장 생산 재가동,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신 중소기업 설립, ICT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발전 등을 통해 기간 평균 약 13.6%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와 같은 전반적 산업발전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2) PND 집행체계

코트디부아르 국가발전계획은 국가 모니터링위원회(National Monitoring Council; NMC), 감독 위원회(Supervision Committee; SC), 기술 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TC), 분야별 조정 협의체(Sectoral Coordination Units), 지역 위원회(District Committees; DC) 등 5개 기관을 통해 제도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각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과기반 관리(Management Based on Results)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관련 참여자에 의한 평가 실시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 3) PND 자원 조달

2012-2015 국가발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약 45%를 공공에서, 65%를 민간에서 조달받기로 계획되었다. 초기 공공투자금 약 4.6조 세파프랑 중 45%가 확보되었으며, 추가 조달은 유·무상 차관과 국제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권고문에서는, 2012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여국들이 86억 달러의 국가발전계획 지원 원조를 약속하였기에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공공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sup>50)</sup>

〈표 2-23〉 2012-2015 PND 예상 자원조달 도표

(단위: 10억 세파프랑)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총계       | 연평균     |
|---------------|---------|---------|---------|---------|----------|---------|
| 전체 투자금액       | 1,520.9 | 2,263.3 | 3,129.5 | 4,162.3 | 11,076   | 2,769.0 |
| 경상수입          | 2,342.6 | 2,873.1 | 3,386.3 | 3,985.9 | 12,587.8 | 3,147   |
| 경상지출          | 2,005.5 | 2,130.8 | 2,333.5 | 2,552.6 | 9,022.5  | 2,256   |
| 공공투자금액(A)     | 676.4   | 1,000   | 1,291.2 | 1,612   | 4,579.6  | 1,145   |
| 공공투자 기확보금액(B) | 675.9   | 110.1   | 518.0   | 774.5   | 2,078.5  | 519.63  |
| 공공투자확보율(%)    | 99.9    | 11.0    | 40.1    | 48.0    | 45.39    | 45.38   |

50) World Bank, IDA and IMF(2013), Joint Staff Advisory Note on the NDP 2012-2015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총계       | 연평균     |
|-------------------------|-------|---------|---------|---------|----------|---------|
| 향후 필요한<br>공공투자금액(C=B-A) | -0.5  | -889.9  | -773.2  | -837.5  | -2,501.1 | -625.3  |
| 민간 재원조달                 | 844.5 | 1,263.3 | 1,838.3 | 2,550.3 | 6,496.4  | 1,624.1 |

자료: République of Cote d'Ivoire(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

PND 예산조달을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7.5억 달러 상당의 1차 유로본드를 2014년 7월 발행하였으며, 이어서 2015년 2월경 10억 달러 상당의 2차 유로본드 채권 역시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 4) PND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국가발전계획에 따른 상기 성장률 달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추진하고자,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여 발표했다. 공공 프로젝트가 총 54개, 민관협력 프로젝트(PPP)가 총 60개로 전체 114개이며, 총 소요예산 비용은 공공 프로젝트가 2,767,213백만 세파프랑,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6,295,669백만 세파프랑으로 전체 9,062,882백만 세파프랑이 산정되었다.

<표 2-24> 국가발전계획 공공 프로젝트

(단위: 백만 세파프랑)

| 분야               | 프로젝트 수 | 총 소요 비용 | 기확보 예산  | 조달 필요 예산 |
|------------------|--------|---------|---------|----------|
| 농업               | 9      | 457,759 | 0       | 457,759  |
| 공예(CRAFT) 및 중소기업 | 2      | 38,999  | 805     | 38,194   |
| 건물, 위생 및 도시화     | 1      | 79,500  | 0       | 79,500   |
| 수림               | 1      | 25,470  | 1       | 23,840   |
| 교육               | 5      | 669,736 | 161,686 | 508,050  |
| 고용               | 1      | 60,000  | 25,000  | 35,000   |
| 기술 전문 교육         | 3      | 172,735 | 655     | 172,080  |
|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 1      | 16,418  | 655     | 172,080  |
| 수자원 인프라          | 2      | 75,425  | 0       | 75,425   |
| 항공 인프라           | 2      | 95,200  | 2,850   | 92,350   |
| 도로 인프라           | 8      | 502,076 | 3,163   | 498,463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총 소요 비용   | 기확보 예산  | 조달 필요 예산  |
|--------------|--------|-----------|---------|-----------|
| 에너지          | 3      | 112,615   | 2,274   | 110,341   |
| 우편 및 정보 기술   | 1      | 115,841   | 1,984   | 113,857   |
| 동물 어업 자원     | 5      | 76,700    | 4,600   | 72,100    |
| 보건 및 AIDS 퇴치 | 7      | 245,839   | 2,419   | 243,420   |
| 관광           | 1      | 10,000    | 0       | 10,000    |
| 교통           | 2      | 12,900    | 0       | 12,900    |
| 합계           | 54     | 2,767,213 | 207,636 | 2,559,577 |

자료: Repulbic of Cote d'Ivoire(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

### <표 2-25> 국가발전계획 민간협력 프로젝트

(단위: 백만 세파프랑)

| 분야           | 프로젝트 수 | 총 소요 비용   | 기확보 예산 | 조달 필요 예산  |
|--------------|--------|-----------|--------|-----------|
| 농업           | 3      | 529,307   | 0      | 529,307   |
| 상업           | 2      | 176,800   | 100    | 176,700   |
| 통신           | 1      | 60,000    | 445    | 59,555    |
| 건물, 위생 및 도시화 | 3      | 232,000   | 2,373  | 229,627   |
| 고등 교육        | 6      | 1         | 0      | 1,000     |
|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 2      | 19,400    | 2,621  | 16,779    |
| 산업           | 4      | 269,600   | 0      | 269,600   |
| 철도 인프라       | 2      | 985,000   | 0      | 2,000     |
| 항구 인프라       | 5      | 298,875   | 0      | 298,875   |
| 도로 인프라       | 4      | 717,918   | 0      | 717,918   |
| 내무           | 1      | 75,000    | 0      | 75,000    |
| 주택           | 2      | 528,000   | 0      | 528,000   |
| 전력 및 탄화수소    | 6      | 825,412   | 0      | 825,412   |
| 우편 및 정보 기술   | 2      | 120,000   | 45,000 | 75,000    |
| 동물 및 어업 자원   | 1      | 21,200    | 0      | 21,200    |
| 보건 및 AIDS 퇴치 | 9      | 165,100   | 0      | 165,100   |
| 스포츠 및 여가     | 1      | 7,057     | 0      | 7,057     |
| 관광           | 3      | 158,500   | 0      | 158,500   |
| 교통           | 3      | 58,500    | 0      | 58,500    |
| 합계           | 60     | 6,295,669 | 50,638 | 6,245,032 |

자료: Repulbic of Cote d'Ivoire(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2-2015

## 다. 1차 PND 검토 및 2차 PND 수립계획

2015년 10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PND 2012-2015의 이행기간이 끝나면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다음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차 PND 검토 보고서(Revue du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2012-2015)를 지난 5월 발표했다. 이는 PND 상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계획된 활동의 이행여부 및 예산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정량적 평가와 분야별 발전을 검토하는 정성적 평가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2,848개 중 우선순위계획 459개에 대해, 2012-2014년 간 167개가 완료되어 이행률 36.38%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185개의 활동을 모두 이행 시 전체 활동 중 76.38%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표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계획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환경 및 도시화 관련 계획이 가장 적게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전략적 목표별 이행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6> 1차 PND 전략적 목표별 2012-2014 계획 이행정도

| 전략적목표                                               | 우선순위<br>계획<br>(전체계획) | 완료<br>계획 | 진행중<br>계획 | 미진행<br>계획 | 이행률    |
|-----------------------------------------------------|----------------------|----------|-----------|-----------|--------|
| 목표 1. 굿 거버넌스가 보장되는<br>안정된 사회에서 국민들의<br>조화로운 삶 영위    | 68<br>(747)          | 28       | 26        | 14        | 41.17% |
| 목표 2. 국부 창출과 공평한<br>분배를 통하여 지속가능하며<br>포용적인 성장 추구    | 204<br>(696)         | 72       | 83        | 49        | 35.29% |
| 목표 3. 여성, 아동 및 기타<br>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질의 사회<br>서비스 접근성 제고 | 73<br>(961)          | 33       | 31        | 9         | 45.20% |
| 목표 4. 건강하고 적절한<br>환경에서의 삶 영위                        | 87<br>(326)          | 24       | 35        | 28        | 27.58% |
| 목표 5. 코트디부아르<br>지역적·국제적 지위 재조정                      | 27<br>(118)          | 10       | 10        | 7         | 37.04% |
| 총 계                                                 | 459<br>(2,848)       | 167      | 185       | 107       | 36.38% |

자료: Revue de PND 2012-2015.(2015)

목표별 발전정도를 살펴보면, 국부 창출 및 포용적 성장 부문(전략적 목표 2)의 성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농업, 교통인프라, ICT, 에너지, 산업 발전 활동 등을 통해 2012-2014년 간 평균 9%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1인당 GDP 역시 15% 가까이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FDI 유입률 증대, 3년 간 8만 건의 고용창출, 교육 및 보건 접근성 향상, 농촌지역 전력보급 및 도시 주택보급 등의 성과가 있었다.

1차 PND 이행을 통해 얻은 교훈 및 제언사항으로는 (1)개발우선순위와 자원분배 간 일치, (2)재원조달을 위한 PPP 증진, (3)기후변화대응 및 탄소배출권 등을 고려한 분야 다양화, (4)중앙-지방정부 간 조화로운 이행, (5)PND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등이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제언을 차기 PND 수립 및 이행 시 반영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4년까지 경제구조 전환을 통한 빈곤퇴치 및 이를 위한 기반 인프라 건설(교통, 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고 1차 PND를 이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전략에서는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청년 일자리 문제해결, 정세안정 및 치안, 의무교육, 내전 희생자 보상 등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초점을 맞춰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개발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덧붙여 의무교육 실현(L'école pour tous), 위생·보건 인프라 재개발, 국민건강보험의 효과적인 실행, 공공행정 도덕성 강화 및 내전 희생자 및 가족 보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와타라 대통령은 2015년 3월 국제아프리카포럼에서 ‘2020년 코트디부아르 신흥국 진입’을 위한 원칙으로 (1)안정적이고 계획된 거시경제 차원에서 대대적이며 일관성 있는 조직 개혁 및 전략적 공공·민간 분야 투자, (2)인력 및 물자 분야 생산요소 축적, (3)투자율 및 저축률 증대, (4)농업분야 생산 증대, (5)지속적인 녹색 성장을 통한 환경보존, (6)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7)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원재료 산업화 등을 제시했다. 금년 10월 차기 대선에서 안정적인 재임이 성사된다면,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차 국가발전전략과 행동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분야별 전략

<표 2-27>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전략 개요

| 분야       | 전략명               | 원문                                                                                                        |
|----------|-------------------|-----------------------------------------------------------------------------------------------------------|
| 보건       | 보건발전 국가전략         |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2012-2015<br>(PNDS 2012-2015)                                    |
| 교육       | 교육 및 연수<br>중기활동계획 | Plan d'action à moyen terme du secteur de l'éducation<br>et de la formation 2012-2014<br>(PAMT 2012-2014) |
| 농업       | 쌀 개발 국가전략         |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ere Riz<br>2012-2020<br>(SNDR 2012-2020)                   |
| 공공<br>행정 | 국가 행정정보화<br>전략    | e-Gouvernement                                                                                            |

자료: 연구진 작성

### 가. 보건발전 국가전략(PNDS 2012-2015)

PNDS 2012-2015는 내전으로 인해 붕괴된 공공 보건시스템 재건 및 모자보건 등 국민의 기초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부(Ministre de la Santé et de la Lutte contre le SIDA)에서 작성하였으며, 이는 MDG 목표달성과 더불어 코트디부아르 보건시스템 회복을 위해 수립되었다.

PNDS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건강 향상과 안락한 삶 보장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달성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 ① 보건부의 리더십 및 보건 분야 거버넌스 강화
- ② 보건 분야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③ 5살 이하의 유아와 모성건강 강화
- ④ 병원 내 감염을 포함한 질병 퇴치 강화
- ⑤ 예방, 보건 캠페인, 약품 접근성 강화

<표 2-28> PNDIS 달성 지표

| 지표                            | 기준값<br>(2011) | 2015<br>달성목표 |
|-------------------------------|---------------|--------------|
| 1세 미만 영아의 3차 홍역백신 예방접종        | 62%           | 95%          |
| 결핵 발병률                        | 1.70%         | 0.6%         |
| 말라리아 발병률                      | 80%           | 50%          |
| 피임약 보급율                       | 9.5%          | 30%          |
| 15-49세 성인 HIV 보급정도            | 3.4%          | 1.8%         |
| 살충모기장을 보유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 15%           | 80%          |
| 항레트로바이러스 예방을 받는 HIV 양성 임산부 비율 | 47.3%         | 80%          |
| 의료시설 5km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 44%           | 55%          |
| 정부의 보건분야 지출비율                 | 4.36%         | 10%          |
| 숙련된 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출산 비율        | 69.22%        | 80%          |
| 5세미만 아동사망률                    | 125%          | 50%          |
| 모성 사망률(100,000명 출산 당)         | 543           | 149          |

자료: Cote d'Ivoire. 2011. PNDIS 2012-2015

상기와 같은 세부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보건정보시스템 향상, 보건 인력 역량 강화, 보건 의료기관 및 기구 재건 등이 필수적이며, 현재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공공의약품전달기구(Nouvelle Pharmacie de Santé Publique; NPSP) 민영화, 보건의료기관 개보수 및 역량강화, 국가의료보험 안정적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나. 교육 및 연수 중기행동계획 2012-2014(PAMT 2012-2014)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관련 부처는 국가교육 및 기술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 MENET),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MESRS), 고용·사회복지 및 직업훈련부(Ministère de l'Emploi,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MEASFP) 등 총 3개로, 본 교육 및 연수 중기 행동 계획은 3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수립되었다.

교육 및 연수 중기 행동 계획은 다음의 문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 ① 빈곤감축 전략문서(DSRP 2008)
- ② 교육 분야 개발 시뮬레이션 모델
- ③ 장기 지출 구성(CDMT 2012-2014)
- ④ 국가 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상태 리포트(RESEN 2010)

해당 계획의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정적·물리적·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공정·건전한 분야별 개발기반 확립
- ② 직업교육 역량 회복
- ③ 학생 수용능력 제고 및 기존 학교의 기능 복원
- ④ 교실 건축비용의 효율화
- ⑤ 공공재정과 부합하는 교육자 고용의 접근법 도입
- ⑥ 대학, 기술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수준에서 필요한 시스템 개혁 이행
- ⑦ 교육 분야 2015-2025년에 해당하는 10년 프로그램 계획

해당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취학 이전 교육
- ② 초등 교육
- ③ 비공식적 교육과 문맹 퇴치
- ④ 중등교육 1차
- ⑤ 중등교육 2차
- ⑥ 직업 기술 교육
- ⑦ 고등 교육과 과학적 연구
- ⑧ 시스템 운영과 거버넌스

## 다. 쌀 개발 국가전략 2012-2020(SNDR 2012-2020)

코트디부아르 쌀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50%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2009년 기준 919,000톤의 쌀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맞춰야했다. 따라서 쌀의 자급자족 및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생산량을 늘리고자 장기적으로 국가전략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부와 쌀 발전 진흥국(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a Riziculture; ONDR)이 쌀 개발 국가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본 전략의 장기 비전 및 목적은 쌀 관련 농업활동을 통한 고소득 창출,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 코트디부아르 빈곤퇴치 및 식량안보 구현 등으로 이를 위한 단계적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본 전략 축으로 생산기술 지원 강화와 농촌지역 쌀 개발 및 밸류체인 강화를 설정하여 생산성과 시장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했다.

- ① 1단계-성장(2012-2016, 소비 대비 100% 생산량 달성)
- ② 2단계-안정(2016-2018, 안전재고 및 규정 수립)
- ③ 3단계-확장(2018-, 쌀 수출국으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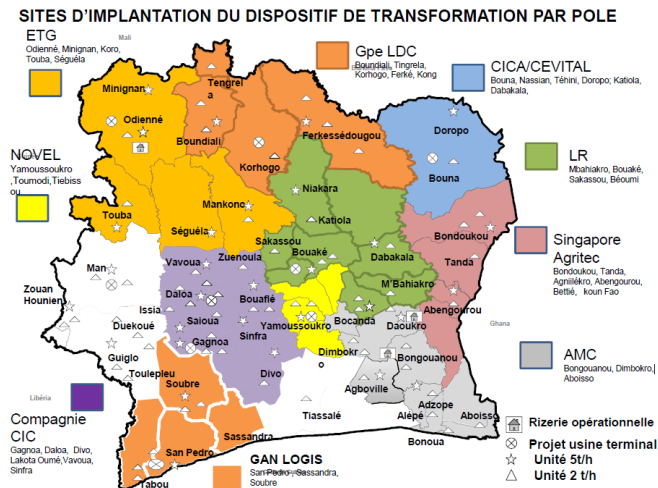
실행모델은 매년 최소 200,000톤의 쌀을 잠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국 10개의 생산지역(쌀 개발 거점)을 지정하고, 각 거점은 48개의 쌀 발전 조직(pool)이라는 조직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조직은 쌀 발전을 위한 기능적 조직으로서 생산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중소 가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동 전략 이행을 통해 도정쌀 2백만 톤을 생산하고자 한 목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13 기준 쌀 생산량이 0.9백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79% 상승한 결과이다. 2013/14년에는 이보다 약 22% 더 상승한 1.3백만 톤을 생산했다.<sup>51)</sup>

---

51) GAIN report, 2014

[그림 2-32] SNDR 2012-2020 쌀 지역 거점 지도



자료: Ministère de l'Agriculture, 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a Riziculture, 2012.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riz SNDR 2012-2020

## 라. 정부 행정정보화 전략(e-Gouvernement)

코트디부아르 우정·정보기술·통신부(Ministre de la Poste et des TIC; MPTIC)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기구(Agence Nationale du Service Universel des Télécommunications /TIC; ANSUT)<sup>52)</sup>와 함께 정부 행정정보화/e-Government 전략을 수립하였다.

e-Government 프로젝트는 코트디부아르 공공행정 정보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및 기업들에게 적시에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크게 e-Administration과 e-Service의 2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e-Administration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 인트라넷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으로 e-Service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국민 및 기업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국민과 민간 기업에게 정부 공공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52) 구 국가정보통신기금(FNT, Fonds National des Télécommunications)에서 2012년 9월 전환된 국영기업으로, 전국의 ICT/정보통신 기술 확산 및 프로그램 전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담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프로젝트(Sectorial projects)와 횡단 프로젝트(Transversal projects)로 나뉘는데, 분야별 프로젝트의 경우, 보건, 교육, 농업, 법, 안보, 외교, 토지 등 7개 분야로 기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3개 프로젝트(보건, 교육, 농업)만 착수된 상황이다.

[그림 2-33] e-Government 분야별 프로젝트



자료: e-Gouv 홈페이지 <http://www.e-gouv.ci>

<표 2-29> e-Government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

| 보건 분야(e-Santé) 프로젝트     |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술을 보건분야에 활용하여, 전국민의 보건 지식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li> <li>- 세부적으로는 예방치료, 질병치료, 홍보 등 세부분야 접근성 향상, 의료인력 역량강화, 질높은 보건지식 접근성 향상, 의료시스템 효율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함.</li> </ul>                                                                    |
| 세부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센터 서비스 등으로 의료설비 간 연결망 구축</li> <li>- 의료기관·시설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접근성 제공</li> <li>- 정보화된 환자 의료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배치</li> <li>- 지방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서비스망 연결</li> <li>- 국내·국제적 원격 학습서비스 제공</li> <li>- 전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li> <li>- 원격 수술·자문·진료 등 전문서비스 제공</li> </ul> |
| 교육 분야(e-Education) 프로젝트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술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여, 고등교육, 기초교육, 직업훈련 등 코트디부아르 교육 시스템 개선에 기여</li> </ul>                                                                                                                                                                       |
| 세부내용                    | <p>[원격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적 원격 교육 지원</li> <li>- 강의 녹화 및 저장을 통해 학생들의 강의 접근성 향상</li> <li>- 생방송 강의에 500명 동시접속</li> </ul>                                                                                                                                  |

| 교육 분야(e-Education) 프로젝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화 강의에 1,500명 동시접속<br/>[인터넷 브로드밴드]</li> <li>- 인터넷 100메가 대역폭 확장</li> <li>- 교육시설 내부 및 강당 등 인터넷·와이파이 접속망 50,000개</li> <li>-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국제대학과의 동시접속망 50개 확보<br/>[상호적 인프라 구축]</li> <li>- 대학 및 교육기관 간 다중 광섬유 네트워크 연결</li> <li>- 대용량 저장·가공이 가능한 주 데이터센터 구축</li> <li>- 정보서비스 및 기업지원 등 온라인 서비스 가동(온라인 등록, 학생 관리, 프로그램 관리 등)</li> <li>- 인터넷을 통한 교육정보 관리, 연구결과 공유, 강의 접근 활성화</li> </ul> |
| 농업 분야(e-Agriculture) 프로젝트 |                                                                                                                                                                                                                                                                                                                                                                                                                        |
| 목적 및 세부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코트디부아르 농업 현대화 및 농업분야 거버넌스 증진</li> <li>- 현대적·효율적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주체 간 시너지 효과 창출</li> <li>-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발전 전략관측소(Observatoire Stratégique de Développement Agricole; OSDA)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조인트플랫폼 구축(농업기상관측소 등)</li> </ul>                                                                                                                               |

자료: e-Gouv 웹사이트 <http://www.e-gouv.ci>

횡단 프로젝트의 경우, 총 3개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관련 기관 설립을 제외한 2개 프로젝트(정부 인트라넷 구축, 법 체제 정비)가 추진 중이다.

#### <표 2-30> e-Government 진행 중 횡단 프로젝트 현황

|         |                                                                                                                                                                                                                        |
|---------|------------------------------------------------------------------------------------------------------------------------------------------------------------------------------------------------------------------------|
| 정부 인트라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체 간 주요 문서 공유를 위한 보안 정보시스템 구축</li> <li>- 대통령실, 총리실, 비서실, 28개 정부부처 및 지방 기관 등 총 31개 정부 주체 연결</li> <li>- 인트라넷을 통한 이메일 전송, 오디오/비디오 컨퍼런스 등 원격 행정, 통합 정보아카이브 시스템 등 구축</li> </ul> |
| 법 체제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Gouvernement 시행을 위한 법적 체제 수립을 위해 ECOWAS의 정보 통신/IT 법을 코트디부아르에 맞게 전환</li> <li>- ECOWAS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사이버범죄법 등 국내법으로의 도입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li> </ul>                     |

자료: e-Gouv 웹사이트 <http://www.e-gouv.ci>

지난 2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CT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 프로젝트의 일환인 코트디부아르 정부 전자행정시스템 및 ICT 분야 활

용 증진과 정부 전자메일 설치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대중의 올바른 ICT 사용 및 학교 교육에서의 ICT 활용, IC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 바 있다.<sup>53)</sup>

#### e-교육 전략(e-Education)

정부 행정정보화 전략의 일환으로 착수된 e-교육 전략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ICT를 활용한 교육정보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육정보화는 교육인트라넷 전국망 구축, ICT를 활용한 교원양성, 원격 교육,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 교육, 교육 전자자료 전산화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교육행정 효율화, 교육접근성 강화 및 ICT 교육 강화 등 교육 분야 전반의 발전이 기대된다.

<표 2-31>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 현황

| 부처                    | 총 개수   | 연결망 기구축 |       | 연결망 미구축 |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 Cabinet               | 1      | 1       | 100%  | 0       | 0%     |
| General Inspectorate  | 1      | 1       | 100%  | 0       | 0%     |
| Head Offices          | 17     | 15      | 88%   | 2       | 12%    |
| Departments           | 3      | 2       | 66%   | 1       | 34%    |
| DRENET <sup>54)</sup> | 36     | 4       | 11%   | 35      | 97%    |
| DDENET <sup>55)</sup> | 5      | 0       | 0%    | 5       | 100%   |
| IEP <sup>56)</sup>    | 186    | 0       | 0%    | 186     | 100%   |
| CAFOP                 | 14     | 0       | 0%    | 14      | 100%   |
| SCHOOLS               | 15,000 | 0       | 0%    | 15,000  | 100%   |
| 총 계                   | 15,263 | 14      | 0.12% | 15,243  | 99.98% |

자료: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nd Technical Training,(2015) EXPRESSION DES BESOINS EN TIC DU MENET

e-Education의 개발과제를 단·중·장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sup>57)</sup>

53)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2015

54) Direction Régionale de l'Éducation National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

55)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Éducation National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

56) Inspection de l'Enseignement Préscolaire et Primaire

57)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nd Technical Training, EXPRESSION DES BESOINS EN TIC DU MENET (2015.1)

### ① 1단계(단기/18개월)

- 미니 데이터센터 강화
- 기존 백본 용량 및 서버 기술용량 강화
- 액세스 서버 및 감시카메라 서버룸 설치
- 본사 및 지역 교육부처(DRENET, DDNET) 로컬 네트워크 구축
- ICT 기능 구조 설치
- 본사 내부 케이블 구조 상호연결
- 학교 통합관리를 위한 ERP 시행 연구 및 시스템 관리자 역량 강화

### ② 2단계(중기/3년)

- 지방(북·중앙·서·동부지역)에 아비장 대비 하위 수준의 기술센터 설치 및 설비(4개)
- CAFOP 및 IEP의 로컬 네트워크 구축
- 모든 DRENET, DDNET, CAFOP의 전문 ICT실 구축
- ICT 설비의 케이블 구조 설치
- 전체 케이블 구조 및 지역 기술센터 간 상호 연결 구축

### ③ 3단계(장기/5년)

- 지역 기술센터 및 본부 간 상호 연결 구축
- 초·중·고등학교 내 ICT실 구축 및 로컬 네트워크 구성
- 해당 지역 기술실과 고등학교의 모든 ITC실 및 로컬 네트워크 연결
- 초·중·고등학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커버리지 증대
- 전체 교육부 내에서 ERP 사용 일반화

### e-농업 전략(e-Agriculture)

코트디부아르는 e-농업 전략이 있는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가나, 르완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중 하나로, ICT의 발달과 더불어 농업 분야를 현대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3년 6월 농업부 장관 썩가포와 쿨리발리(Sangafowa Coulibaly)와 정보통신부 장관 브루노 나바그네 콘(Bruno Nabagne Kone)이 e-농업 전략을 위한 주요 행동강령과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두 장관은 공동으로 e-농업 전략을 세웠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부처 간 위원회를 발족했다.

농업 분야의 굿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농업 현대화, ICT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다. 7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진 e-농업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분야 현대화
- ② 굿 거버넌스 발전
- ③ 농촌 ICT 인프라 구축
- ④ ICT 하드웨어를 갖춘 농업 연구기관 설립
- ⑤ 데이터 센터와 커뮤니티 멀티미디어 센터 설립
- ⑥ 농촌 개발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개발지원청(Agence Nationale d'Appui au Développement Rural; ANADER)의 시장 정보 시스템 향상
- ⑦ 농업 ICT 서비스와 적용(e.g.경보시스템, 포털 사이트)

세계은행, 중국 국영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만리장성 공사(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코트디부아르의 민간분야 단체들이 e-농업 전략 이행에 지원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제3장

### 국제사회의 코트디부아르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 가. 코트디부아르 ODA 수원현황

코트디부아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5위로 ODA 규모가 큰 수원국가로, 연평균 28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대규모의 부채탕감이 진행되어 ODA 금액의 50%이상이 부채탕감으로 들어간 점을 염두할 때, 부채탕감을 제외한 ODA 규모로 본 순위는 10위권으로 평가된다.

<표 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총 지출액)

| 순위 | 국가         | 2011  | 2012  | 2013  | 3년 평균 |        |
|----|------------|-------|-------|-------|-------|--------|
|    |            |       |       |       | 금액    | 구성비(%) |
| 1  | DR콩고       | 7,460 | 2,865 | 2,561 | 4,295 | 8.7    |
| 2  | 에티오피아      | 3,567 | 3,249 | 3,843 | 3,553 | 7.2    |
| 3  | 케냐         | 2,739 | 3,162 | 3,545 | 3,149 | 6.4    |
| 4  | 탄자니아       | 2,495 | 2,849 | 3,636 | 2,994 | 6.1    |
| 5  | 코트디부아르     | 1,550 | 4,686 | 2,085 | 2,774 | 5.6    |
| 6  | 사하라 이남 지역* | 2,495 | 3,010 | 2,446 | 2,651 | 5.4    |
| 7  | 모잠비크       | 2,126 | 2,162 | 2,419 | 2,235 | 4.5    |
| 8  | 나이지리아      | 1,908 | 2,003 | 2,660 | 2,190 | 4.4    |
| 9  | 가나         | 1,860 | 1,901 | 1,410 | 1,724 | 3.5    |
| 10 | 우간다        | 1,603 | 1,682 | 1,821 | 1,702 | 3.4    |
| 11 | 남아프리카공화국   | 1,473 | 1,261 | 1,459 | 1,398 | 2.8    |
| 12 | 남수단        | 1,094 | 1,577 | 1,450 | 1,374 | 2.8    |
| 13 | 말리         | 1,294 | 1,047 | 1,420 | 1,254 | 2.5    |
| 14 | 부르키나 파소    | 1,039 | 1,220 | 1,088 | 1,116 | 2.3    |
| 15 | 수단         | 1,122 | 984   | 1,187 | 1,098 | 2.2    |
| 16 | 세네갈        | 1,086 | 1,151 | 1,036 | 1,091 | 2.2    |
| 17 | 르완다        | 1,271 | 897   | 1,085 | 1,084 | 2.2    |
| 18 | 잠비아        | 1,067 | 1,003 | 1,155 | 1,075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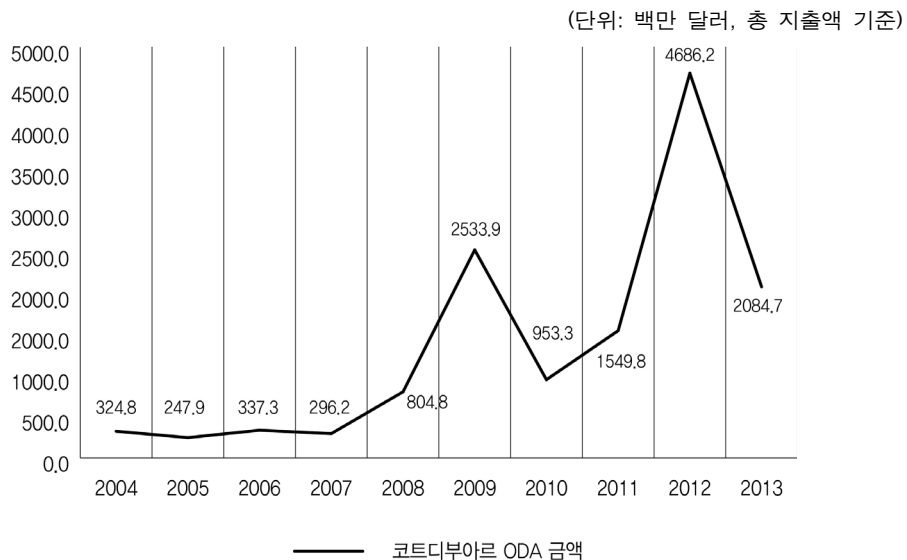
| 순위 | 국가          | 2011   | 2012   | 2013   | 3년 평균  |        |
|----|-------------|--------|--------|--------|--------|--------|
|    |             |        |        |        | 금액     | 구성비(%) |
| 19 | 말라위         | 813    | 1,190  | 1,162  | 1,055  | 2.1    |
| 20 | 소말리아        | 997    | 911    | 875    | 928    | 1.9    |
|    | 기타 사하라 이남   | 11,119 | 11,102 | 10,005 | 10,742 | 21.7   |
|    | 사하라 이남 지역합계 | 50,179 | 49,913 | 48,347 | 49,479 | 100    |

\*난민 지원 등 지역단위로 지원한 내역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재구성

지난 10년 간의 ODA 수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사이에 해외원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2011년 약 15억 달러 규모가 2012년에 3배에 달하는 약 47억 달러로 확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대규모의 부채경감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외채탕감 이후 2013년에는 원조규모가 다시 28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비교했을 때 약 35%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3-1] 코트디부아르의 ODA 수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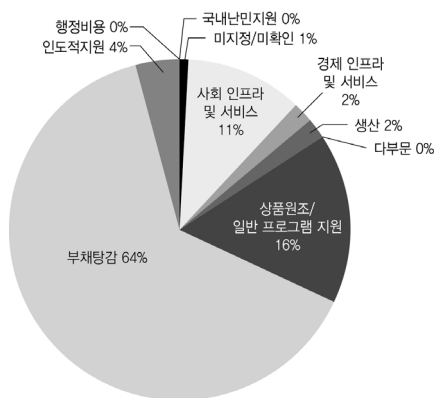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재구성

지원 분야별 ODA 수원현황을 살펴보면, 부채탕감의 비중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 지원 16%,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1%, 인도주의적 지원 4% 순이다. 부채탕감 지원을 단발성 지원으로 고려한다면 일반 예산 지원을 포함하는 상품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과 인구(가족 계획) 쪽에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내전 이후 정치적 안정화 지원 및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 ODA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2011-2013년 3년 평균)



<표 3-2>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부문

(단위: 백만 달러, 2011-2013년 3년 평균)

| 분야           | 금액     |
|--------------|--------|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 305.40 |
| 교육           | 37.42  |
| 보건           | 48.87  |
| 인구생식         | 89.50  |
| 식수위생         | 29.16  |
| 정부·시민사회      | 74.47  |
| 기타 사회 인프라    | 25.97  |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 59.10  |
| 교통수송         | 25.22  |
| 통신           | 0.59   |
| 에너지          | 20.17  |
| 은행금융         | 6.17   |
| 비즈니스 및 기타    | 6.95   |
| 생산           | 48.96  |
| 농림수산업        | 35.38  |
| 산업, 광업, 건설업  | 10.51  |
| 무역정책·규제      | 3.04   |
| 관광업          | 0.05   |
| 다부문          | 15.11  |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재구성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재구성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프랑스의 지원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독일, 미국, 일본, 벨기에 등이 상위 공여국이다. 주요 다자기구는 IDA, IMF, EU, AfDB 등이다. 주요 공여국 중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지원을 하는 국가는 단연 프랑스다. 프랑스는 코트디부아르가 받는 ODA의 약 27% 가까운 금액을 원조로 지원하며, 코트디부아르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코트디부아르 ODA 수원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공여주체의 원조 확대 추세다. 독일,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이 2012년 이후 오히려 원조금액이 급증하였다. 다자기구의 경우에도 EU와 Global Fund의 원조금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조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은 2010-2011년 간 대규모의 부채탕감 등 단발성 지원에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원조 확대 추세는 코트디부아르 정세가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3〉 ODA 공여주체별 코트디부아르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3년 평균)

|             |    | 국가          | 2011   | 2012    | 2013    | 3년 평균   |        |
|-------------|----|-------------|--------|---------|---------|---------|--------|
|             |    |             |        |         |         | 금액      | 구성비(%) |
| DAC<br>회원국  | 1  | 프랑스         | 561.71 | 1448.27 | 234.92  | 748.30  | 26.98  |
|             | 2  | 독일          | 19.46  | 14.39   | 508.89  | 180.91  | 6.52   |
|             | 3  | 미국          | 74.31  | 147.55  | 305.17  | 175.67  | 6.33   |
|             | 4  | 일본          | 8.17   | 30.88   | 243.06  | 94.04   | 3.39   |
|             | 5  | 벨기에         | 2.99   | 273.64  | 1.95    | 92.86   | 3.35   |
|             | 6  | 스페인         | 4.47   | 21.18   | 234.94  | 86.86   | 3.13   |
|             | 7  | 캐나다         | 10.18  | 139.24  | 3.56    | 50.99   | 1.84   |
|             | 8  | 오스트리아       | 1.80   | 98.92   | 0.07    | 33.60   | 1.21   |
|             | 9  | 영국          | 13.54  | 77.42   | 2.22    | 31.06   | 1.12   |
|             | 10 | 스위스         | 7.02   | 18.84   | 2.17    | 9.34    | 0.34   |
|             | 21 | 한국          | 1.03   | 1.04    | 1.89    | 1.32    | 0.05   |
|             |    | 기타 DAC 회원국* | 34.56  | 13.48   | 7.20    | 26.19   | 0.94   |
|             |    | DAC회원국 합계   | 738.20 | 2283.81 | 1544.14 | 1522.05 | 54.88  |
| DAC<br>비회원국 | 1  | 쿠웨이트        | 1.56   | 8.43    | 2.87    | 4.28    | 0.15   |
|             | 2  | 아랍에미리트      | 0.02   | 0.02    | 0.01    | 0.02    | 0.00   |
|             | 3  | 에스토니아       | -      | -       | 0.01    | 0.01    | 0.00   |
|             |    | DAC비회원국 합계  | 1.57   | 8.45    | 2.89    | 4.30    | 0.16   |

|          |         | 국가              | 2011    | 2012    | 2013    | 3년 평균   |        |
|----------|---------|-----------------|---------|---------|---------|---------|--------|
|          |         |                 |         |         |         | 금액      | 구성비(%) |
| 다자<br>기구 | 1       | IDA             | 212.65  | 1672.12 | 129.11  | 671.29  | 24.20  |
|          | 2       | IMF             | 256.71  | 224.27  | 148.29  | 209.76  | 7.56   |
|          | 3       | EU Institutions | 125.72  | 170.36  | 138.97  | 145.02  | 5.23   |
|          | 4       | AfDF            | 151.28  | 251.01  | 16.97   | 139.75  | 5.04   |
|          | 5       | Global Fund     | 21.55   | 25.06   | 67.84   | 38.15   | 1.38   |
|          | 6       | Isl.Dev Bank    | -       | 12.27   | -       | 12.27   | 0.44   |
|          | 7       | UNICEF          | 14.05   | 7.25    | 8.54    | 9.95    | 0.36   |
|          | 8       | GAVI            | 7.11    | 6.86    | 3.43    | 5.80    | 0.21   |
|          | 9       | UNFPA           | 5.25    | 5.04    | 5.58    | 5.29    | 0.19   |
|          | 10      | WFP             | 8.77    | 2.21    | 1.06    | 4.01    | 0.14   |
|          | 기타 다자기구 |                 | 6.94    | 17.53   | 17.84   | 14.17   | 0.51   |
|          | 다자기구 합계 |                 | 810.02  | 2393.98 | 537.62  | 1247.21 | 44.97  |
| ODA 총액   |         |                 | 1549.80 | 4686.25 | 2084.66 | 2773.57 | 100.00 |

주: 한국 포함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재구성

공여주체의 지원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세계은행과 미국이 각각 25%와 23.8%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Global Fund, EU, 프랑스 등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중 가장 지원금액이 큰 인구생식 부문에는 미국의 원조가 7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기구의 경우 세계은행과 Global Fund의 지원이 많다. 거버넌스 관련 지원에 있어서는 세계은행의 지원이 47%에 해당하며, 그 외 EU, 미국, 프랑스 등이 지원했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경우, 양자지원은 10% 미만에 해당하고 다자기구 지원이 92%에 육박한다. 다자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EU가 상당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수송 및 에너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 부문 역시 다자기구 지원이 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자기관의 지원은 미비했다. 국가 주 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데, 이 중 세계은행의 지원이 64%로 가장 많고 공여국 중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3% 수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ODA 지원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1%에 달하는 채무구제이며, 이 외에 예산지원은 17.9%(일반예산지원 15.29%, 섹터예산지원 2.69%)를, 프로젝트 지원은 18.12%를 차지하고 있다. 채무구제에 있어서는 세계은행과 프랑스가 30.4%와 2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뒤를 잇는다.

예산지원의 경우 주로 다자기구 지원이 많아, IMF가 전체 예산지원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섹터지원의 경우 세계은행이 주로 하고 있다. 양자기관 중에는 프랑스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프랑스가 가장 큰 금액으로 지원하여 전체 프로젝트 지원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EU, 미국 순으로 지원하였다. 기술협력 및 교육에 있어서 역시 프랑스가 전체 공여주체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 對 코트디부아르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현황

| 국가/기관   |            | ODA<br>지원<br>총액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       |       |          |          |                |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          |      |       |          |                 | 생산    |          |                 |                |      |
|---------|------------|-----------------|--------------|-------|-------|----------|----------|----------------|-------|--------------|----------|------|-------|----------|-----------------|-------|----------|-----------------|----------------|------|
|         |            |                 | 총계           | 교육    | 보건    | 인구<br>생식 | 식수<br>위생 | 정부<br>시민<br>사회 | 기타    | 총계           | 교통<br>수송 | 통신   | 에너지   | 은행<br>금융 | 비즈니스<br>및<br>기타 | 총계    | 농림<br>수산 | 산업<br>광업<br>건설업 | 무역<br>정책<br>규제 | 관광업  |
| 1       | 프랑스        | 748.30          | 29.23        | 18.77 | 3.53  | 1.37     | 0.27     | 4.63           | 0.65  | 0.33         | -        | 0.01 | 0.00  | 0.32     | -               | 0.47  | 0.47     | 0.00            | -              | -    |
| 2       | 독일         | 180.91          | 7.56         | 2.68  | -     | 2.79     | 1.03     | 0.54           | 0.52  | 0.26         | -        | 0.02 | 0.00  | -        | 0.24            | 1.19  | 1.19     | -               | 0.00           | -    |
| 3       | 미국         | 175.67          | 72.90        | 0.01  | 0.00  | 66.13    | -        | 6.73           | 0.03  | 0.00         | -        | -    | -     | 0.00     | -               | 0.07  | -        | 0.07            | -              | -    |
| 4       | 일본         | 94.04           | 8.90         | 0.39  | 1.95  | 1.68     | 0.03     | 3.97           | 0.88  | 0.16         | 0.02     | 0.10 | -     | -        | 0.04            | 1.07  | 0.95     | 0.04            | 0.04           | 0.05 |
| 5       | 벨기에        | 92.86           | 0.37         | 0.18  | -     | 0.08     | -        | 0.05           | 0.06  | 0.05         | -        | 0.05 | -     | 0.00     | -               | 0.29  | 0.25     | 0.04            | -              | -    |
| 6       | 스페인        | 86.86           | 0.92         | 0.55  | 0.25  | -        | 0.01     | 0.04           | 0.06  | 0.01         | -        | 0.01 | -     | -        | -               | 0.15  | 0.13     | 0.02            | -              | -    |
| 7       | 캐나다        | 50.99           | 3.29         | 0.15  | 1.58  | -        | -        | 1.54           | 0.03  | 0.05         | -        | -    | 0.01  | -        | 0.04            | 0.03  | -        | -               | 0.03           | -    |
| 8       | 오스트리아      | 33.60           | 0.08         | 0.06  | 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영국         | 31.06           | 0.20         | 0.01  | -     | -        | -        | 0.19           | -     | 0.47         | -        | 0.11 | -     | 0.36     | 0.00            | 0.48  | 0.19     | 0.29            | -              | -    |
| 10      | 스위스        | 9.34            | 0.50         | 0.34  | 0.01  | -        | -        | 0.15           | -     | -            | -        | -    | -     | -        | -               | 0.20  | 0.20     | -               | -              | -    |
| 21      | 한국         | 1.32            | 0.85         | 0.16  | 0.65  | -        | -        | 0.05           | -     | 0.05         | -        | 0.05 | -     | -        | -               | 0.03  | 0.03     | -               | -              | -    |
| DAC 회원국 |            | 1522.05         | 127.16       | 23.91 | 8.22  | 72.09    | 1.33     | 19.08          | 2.54  | 1.50         | 0.02     | 0.35 | 0.13  | 0.69     | 0.32            | 4.01  | 3.42     | 0.48            | 0.07           | 0.05 |
| 1       | IDA        | 671.29          | 78.18        | 9.70  | -     | 2.57     | 14.18    | 35.71          | 16.01 | 37.48        | 11.43    | -    | 14.55 | 4.87     | 6.63            | 30.55 | 22.75    | 7.67            | 0.13           | -    |
| 2       | IMF*       | 209.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EU         | 145.02          | 29.77        | 2.00  | 0.79  | 0.03     | 12.41    | 14.56          | 0.00  | 13.80        | 7.60     | 0.14 | 5.49  | 0.58     | -               | 10.29 | 5.08     | 2.36            | 2.84           | -    |
| 4       | AfDF**     | 139.75          | 7.57         | 0.07  | -     | -        | 0.90     | -              | 6.60  | -            | -        | -    | -     | -        | -               | 1.80  | 1.80     | -               | -              | -    |
| 5       | GlobalFund | 38.15           | 38.15        | -     | 30.05 | 8.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자기구    |            | 1247.21         | 178.24       | 13.51 | 40.65 | 17.42    | 27.83    | 55.39          | 23.44 | 54.94        | 22.55    | 0.24 | 20.04 | 5.48     | 6.63            | 43.35 | 30.34    | 10.04           | 2.97           | -    |
| 총계      |            | 2773.57         | 305.40       | 37.42 | 48.87 | 89.50    | 29.16    | 74.47          | 25.97 | 59.10        | 25.22    | 0.59 | 20.17 | 6.17     | 6.95            | 48.98 | 35.38    | 10.51           | 3.04           | 0.05 |

\* Concessional Trust Funds, \*\* African Dev. Fund

주: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하였으며 분야는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및 다부문 분야에 한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연구진 재구성

<표 3-5> 對 코트디부아르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지원형태별 세부 지원현황

| 국가/기관   |            | ODA<br>지원<br>총액 | 예산지원   |                |                | 주요기금 및 프로그램 |                       |                      |                | 프로<br>젝트 | 기술협력  |           |                | 장학금 및 교육비용 |                   |                | 채무<br>구제 | 행정<br>비용 | 기타 비용 |                |          |
|---------|------------|-----------------|--------|----------------|----------------|-------------|-----------------------|----------------------|----------------|----------|-------|-----------|----------------|------------|-------------------|----------------|----------|----------|-------|----------------|----------|
|         |            |                 | 총계     | 일반<br>예산<br>지원 | 섹터<br>예산<br>지원 | 총계          | NGO<br>민간<br>연구<br>기금 | 국제<br>기구<br>관리<br>기금 | 공동<br>기금<br>지원 |          | 총계    | 전문가<br>파견 | 기타<br>기술<br>지원 | 총계         | 장학금<br>/직접<br>교육비 | 간접<br>연수<br>비용 |          |          | 총계    | 개발<br>인식<br>증진 | 난민<br>지원 |
| 1       | 프랑스        | 748.30          | 162.22 | 162.22         | -              | 0.04        | -                     | -                    | 0.04           | 85.78    | 10.13 | 1.43      | 8.70           | 16.21      | 1.24              | 14.97          | 472.74   | 1.19     | -     | -              | -        |
| 2       | 독일         | 180.91          | -      | -              | -              | -           | -                     | -                    | -              | 12.23    | 1.32  | 0.08      | 1.25           | 1.18       | 0.07              | 1.11           | 166.18   | -        | -     | -              | -        |
| 3       | 미국         | 175.67          | -      | -              | -              | 10.23       | -                     | 9.91                 | 0.32           | 78.64    | 0.42  | -         | 0.42           | -          | -                 | -              | 86.38    | -        | -     | -              | -        |
| 4       | 일본         | 94.04           | -      | -              | -              | 8.79        | 0.47                  | 8.32                 | -              | 14.43    | -     | -         | -              | 0.13       | 0.13              | -              | 70.68    | -        | -     | -              | -        |
| 5       | 벨기에        | 92.86           | -      | -              | -              | 0.50        | 0.50                  | -                    | -              | 1.38     | 0.15  | -         | 0.15           | -          | -                 | -              | 90.83    | -        | -     | -              | -        |
| 6       | 스페인        | 86.86           | -      | -              | -              | 0.68        | -                     | 0.68                 | -              | 1.13     | 0.07  | -         | 0.07           | -          | -                 | -              | 84.75    | -        | 0.23  | -              | 0.23     |
| 7       | 캐나다        | 50.99           | -      | -              | -              | 1.99        | -                     | 1.99                 | -              | 1.79     | 1.40  | 1.40      | -              | -          | -                 | -              | 45.82    | -        | -     | -              | -        |
| 8       | 오스트리아      | 33.60           | -      | -              | -              | -           | -                     | -                    | -              | 0.02     | -     | -         | -              | 0.06       | -                 | -              | 33.52    | -        | -     | -              | -        |
| 9       | 영국         | 31.06           | -      | -              | -              | -           | -                     | -                    | -              | 5.40     | -     | -         | -              | -          | -                 | -              | 25.66    | -        | -     | -              | -        |
| 10      | 스위스        | 9.34            | -      | -              | -              | 0.79        | 0.04                  | 0.75                 | -              | 3.01     | 0.16  | 0.16      | -              | 0.34       | 0.34              | -              | 5.05     | -        | -     | -              | -        |
| 21      | 한국         | 1.32            | -      | -              | -              | 0.39        | -                     | 0.39                 | -              | 0.72     | 0.10  | 0.01      | 0.09           | 0.11       | 0.11              | -              | -        | -        | -     | -              | -        |
| DAC 회원국 |            | 1522.05         | 162.22 | 162.22         | -              | 27.99       | 2.17                  | 25.47                | 0.36           | 214.46   | 13.87 | 3.11      | 10.76          | 18.32      | 2.16              | 16.15          | 1083.61  | 1.31     | 0.28  | 0.01           | 0.27     |
| 1       | IDA        | 671.29          | 68.47  | -              | 68.47          | -           | -                     | -                    | -              | 83.02    | -     | -         | -              | -          | -                 | -              | 519.81   | -        | -     | -              | -        |
| 2       | IMF*       | 209.76          | 201.41 | 201.41         | -              | -           | -                     | -                    | -              | -        | -     | -         | -              | -          | -                 | -              | 8.34     | -        | -     | -              | -        |
| 3       | EU         | 145.02          | 48.38  | 48.38          | -              | 1.11        | -                     | 1.11                 | -              | 80.99    | 3.15  | 0.09      | 3.06           | -          | -                 | -              | 11.39    | -        | -     | -              | -        |
| 4       | AfDF**     | 139.75          | 18.43  | 12.16          | 6.26           | -           | -                     | -                    | -              | 38.53    | -     | -         | -              | -          | -                 | -              | 82.79    | -        | -     | -              | -        |
| 5       | GlobalFund | 38.15           | -      | -              | -              | -           | -                     | -                    | -              | 38.15    | -     | -         | -              | -          | -                 | -              | -        | -        | -     | -              | -        |
| 다자기구    |            | 1247.21         | 336.69 | 261.96         | 74.73          | 1.11        | -                     | 1.11                 | -              | 283.91   | 3.17  | 0.11      | 3.06           | 0.01       | 0.01              | -              | 622.32   | -        | -     | -              | -        |
| 총계      |            | 2773.57         | 498.91 | 424.17         | 74.73          | 29.11       | 2.17                  | 26.58                | 0.36           | 502.67   | 17.04 | 3.22      | 13.82          | 18.33      | 2.17              | 16.15          | 1705.93  | 1.31     | 0.28  | 0.01           | 0.28     |

\* Concessional Trust Funds, \*\* African Dev. Fund

주: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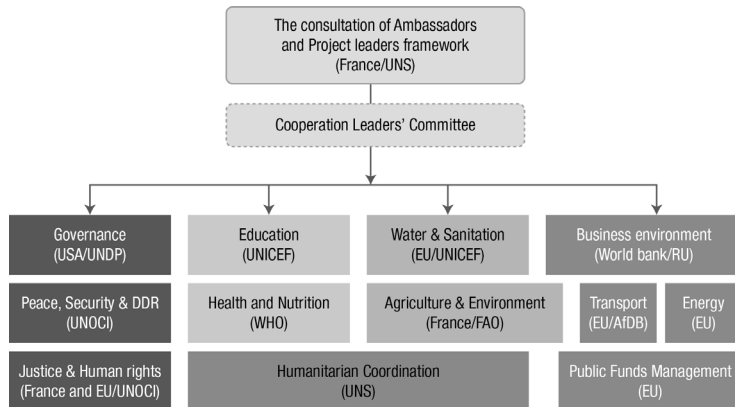
자료: OECD DAC Statistics CRS data 연구진 재구성

## 나. 코트디부아르 내 공여국 협의체

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 코트디부아르에는 체계적인 공여국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1년 내전 종식 이후 EU와 UN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주요 공여국 및 다자국 대표가 모이는 공여국 협의체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2012년 말에는 8개의 작업그룹(Working group)이 만들어지며 분야별 ODA 원조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활동이 점점 체계화되었다.

협력기관장(Chefs de Coopération; CdC) 그룹은 2014년 2월에서야 만들어 졌는데, 이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원조 조화를 위한 논의 및 정부 공동 대응 등을 하고자 했다. 현재 CdC 그룹은 프랑스 원조기관 AFD가 그룹장으로, UNDP가 부그룹장으로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으며, 그룹 리더십은 주기적으로 교체될 계획이다. CdC 그룹은 2014년 2월부터 매달 1회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국별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그림 3-3] 공여국 협의체 구조 및 분야별 리더



자료: AFD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코트디부아르 내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타국가 대비 활동적인 협력파트너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자기구는 세계은행, EU, UN, AfDB 등 4개 기관이며 공여국은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인도, 한국 등 7개 국가다. 그 외 BADEA, BID, BIDC, BOAD 등 지역개

발은행 및 펀드가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공여국의 활동은 코트디부아르 정세가 안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최근 IFAD 아비장 사무소 신설 등 향후 많은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진출이 전망된다. 한편 공여국 협의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협력집중 분야 간 협력이 쉽고 매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표 3-6〉 주요 공여체의 분야별 지원현황

|            | 공여국 |    |    |    |    |    | 다자기구 |    |    |      |
|------------|-----|----|----|----|----|----|------|----|----|------|
|            | 프랑스 | 일본 | 미국 | 독일 | 중국 | 인도 | WB   | EU | UN | AfDB |
| 보건의료       | ○   |    | ○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농수산 및 농촌개발 | ○   | ○  | ○  | ○  |    |    | ○    | ○  | ○  | ○    |
| 환경다양성      | ○   |    |    | ○  |    |    |      |    | ○  |      |
| 교통         | ○   | ○  |    |    | ○  |    | ○    | ○  |    | ○    |
| 에너지        |     |    |    |    | ○  | ○  | ○    | ○  | ○  | ○    |
| 식수위생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     |    |    |    |    | ○  |      |    |    |      |
| 도시인프라      | ○   | ○  |    |    |    |    | ○    |    |    |      |
| 민간부문       | ○   |    |    |    |    |    | ○    |    |    |      |
| 거버넌스       | ○   | ○  | ○  | ○  |    |    | ○    | ○  | ○  | ○    |

자료: 현지입수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가. 프랑스

#### 1) 지원 전략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은 고채무빈곤국으로 분류된 코트디부아르의 상황에 따라 부채청산과 국가개발을 위한 계약을 맺고 있다. 이는 부채탕감(Contrat de Désendettement et de Développement; C2D) 메커니즘 인 C2D로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계획 및 진행된다. AFD는 코트디부

아르의 국가개발전략과 일치한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 예산지원(Budget Support)방식으로 지원된다.

### [글상자 3-1] AFD의 C2D 개요

C2D는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IPC)의 일환으로, 프랑스 ODA 틀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완화해주기 위해 디자인된 메카니즘이다.

C2D 메커니즘 내에서 프랑스는 개발도상국이 프랑스에게 돌려주는 빚만큼의 금액을 ODA 무상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돌려주게 된다. 이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빈곤완화 프로그램으로 배정되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부채 경감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대상국은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우간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모리타니아, 가나, 마다가스카르, 온두라스, 르완다, 카메룬, 말라위, 시에라리온, 기니, DR콩고, 브룬디, 콩고, 수단,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와 볼리비아, 미얀마 등이다.

자료: AFD 홈페이지

AFD는 1차 C2D를 통해 2013-2015년간 630백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차 C2D(2015-2020, 1,123백만 유로) 체결한 바 있다. 1차 C2D는 교통인프라(24.2%), 도시개발·식수·위생(17.8%), 농업·농촌개발(17.7%)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반면, 2차 C2D의 경우, 코트디부아르 정부 요청에 따라 물 분야, 도로 인프라, 교육 부문의 예산을 증가하여 전체 예산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AFD의 1차·2차 C2D 부문별 예산 비교

| 분야         | 1차 C2D(2012-2015) |       | 2차 C2D(2015-2020) |       |
|------------|-------------------|-------|-------------------|-------|
|            | 금액(백만유로)          | 비율(%) | 금액(백만유로)          | 비율(%) |
| 교육/직업훈련    | 93                | 14.8  | 191               | 17.0  |
| 보건         | 69.8              | 11.1  | 68                | 6.1   |
| 농업/농촌개발/환경 | 111.7             | 17.7  | 122               | 10.9  |
| 교통인프라      | 152.6             | 24.2  | 191               | 17.0  |
| 도시개발/식수/위생 | 111.9             | 17.8  | 195               | 17.4  |
| 법          | 23                | 3.7   | 8                 | 0.7   |
| 예산지원       | 49                | 7.8   | 335               | 29.8  |
| 연구/역량강화    | 19.1              | 3.0   | 13                | 1.2   |
| 총 계        | 630               | 100.0 | 1,123             | 100.0 |

자료: AFD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자료

## 2) 지원 현황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對코트디부아르 ODA 금액의 약 30% 가까이를 지원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내전으로 입은 국가적 피해를 완화하고 분야별 기초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기초 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기초가 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농촌토지임대법 시행을 위한 지원과 관련 부처 및 기관 역량강화를 기초로 하며, 과채류 및 양식업 등에서의 밸류체인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1차 C2D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도로 부문 재건에 있어서는 (1)도로망 유지보수, (2)야무수크로-북부 지역 간 도로, 동부 지역 도로, 나와(Nawa) 지역 농로 등 보수, (3)아비장 도시 도로 건설, (4)교통인프라부, Ageroute, FER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했다.

<표 3-8> AFD의 對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개요

| 분야             | 주요 프로젝트명                                                                                    |
|----------------|---------------------------------------------------------------------------------------------|
| 교육/직업훈련        | 교육, 양성 및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br>(Éducation, Formation et Insertion des jeunes; DEFI)               |
| 보건             |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시스템 역량강화<br>(Renforcer le système de santé pour les personnes vulnérables; PRSS) |
|                |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Renforcement de l'aide contre l'épidémie de la maladie à virus Ebola; PPRE)  |
| 농업/농촌개발        | 농업분야 지원(Appui aux filières agricoles; PARFACI I)                                            |
| 교통인프라          | 도로 부문 재건(Réhabilitation du secteur routier)                                                 |
| 도시개발/<br>식수/위생 | 식수위생 부문 지원<br>(Appui au secteur de l'eau potable et à l'assainissement)                     |
| 법              | 법적 체계 강화 및 인권 보호(Renforcer le système judiciaire et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

자료: AFD 홈페이지

보건 분야는 AFD 전체 지원금액의 약 11%정도를 차지하며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강화 및 모자보건/가족계획 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 프로젝트는 총 3건으로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보건시스템 역량

강화 프로젝트(Projet d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PRSS)는 보건 전략인 PNDs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보건인력 양성기관(Institut national de formation des agents de santé; INFAS) 지원, 신 의약품 공급망(Nouvelle Pharmacie de Santé Publique; NPSP) 지원 등 정부부처의 행정 및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특히 INFAS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 매년 1,20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보건부의 4,800명 추가 인력고용 목표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

AFD는 PRSS를 통해 보건 행정역량 지원과 동시에 소외지역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ECHO(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접근하기 힘든 소외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INGO를 프로젝트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비장에서는 Terre des Hommes Italia, 산페드로에서는 Médecins du Monde (MdM), 톤피(Tonkpi)에서는 국제구조위원회(IRC), 카발리-구에몬(Cavally-Guémon)에서는 프랑스적십자회(CRF)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이 가능한 INGO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지원 중심의 원조방식이 낳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조의 효과성 및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4.5백만 이상의 인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족계획 정책 강화 프로젝트(Projet d'Intensification de la Politique de Planification Familiale; PIPPF)를 통해 보건부 행정역량 강화, 민간 및 공공기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글상자 3-2] AFD의 보건시스템 역량강화 프로젝트(PR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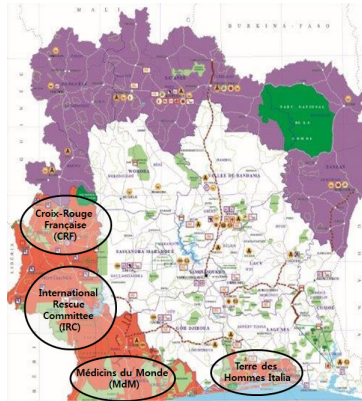
- 사업명: 보건시스템 역량강화 프로젝트(PRSS, Projet d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 기간 및 예산: 2013-2015 / 총 62백만 유로
  - 목적: PNDs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 보건여건 개선 및 시스템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1) 보건인력 역량강화
    - 간호사, 산파, 기술자 등 보건인력양성기관 INFAS(Institut National de Formation des Agents de Santé) 역량강화

2) 의약품 보급 증진

- 신 의약품 공급망(NPSP, la Nouvelle Pharmacie de Santé Publique) 재정지원 및 착수·가동·안정화 지원

3) 모자보건 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

- 보건부가 지정한 4개의 우선지역의 ESPC 및 HG 재건. ECHO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4개의 INGO(국제구조위원회(IRC), Médecins du Monde(MdM), 프랑스적십자회(CRF), Terre des Hommes Italia)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



4) 보건부 기관 역량강화

- (1) 거버넌스 및 조정 역량, (2) C2D 추가자원 관리역량, (3) 고위급 역량강화 등

자료: AFD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 나. 일본

### 1) 지원 전략

일본(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은 1993년 자원봉사단 파견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2002년 정세불안정으로 잠정 철수하고, 2010년 선거 이후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양자협력을 중단했으나, 2011년 내전 종식과 함께 현지 사무소를 재개소하는 등 협력을 재개하였다.

일본의 코트디부아르 양자협력 전략은 PND상의 우선 목표 및 과제들과 부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sup>58)</sup> 현재 거버넌스 회복, 행정 역량강화, 경제 인프라 강화, 산업발전

증진, 1차 산업부문 증진 등 5가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 연수, 기술협력, 무상원조 등 3가지 협력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현재 기술협력 10백만 달러, 무상원조 30-40백만 달러 정도이며, 향후 지원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표 3-9> J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전략

|             |                                                          |
|-------------|----------------------------------------------------------|
| 거버넌스 회복     | 안전사회 건설을 도모하고 정부와 사회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체제적 정비 및 경찰 역량강화    |
| 행정역량 강화     | 사회 통합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통한 행정부처간 신뢰 강화를 위해 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
| 경제인프라 강화    |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거점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아비장의 도시 인프라(국제적 항공, 항만) 지원 |
| 산업발전 증진     | 코트디부아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발전 확장 관련 프로젝트 지원           |
| 제1차 산업부문 증진 | 식량 자급자족율 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쌀과 수산업 등 1차 산업 증진                 |

자료: JICA 홈페이지

## 2) 지원 현황

<표 3-10> J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지원현황

| 분야별 프로젝트                                  | 지원방식 | 진행 상황    |
|-------------------------------------------|------|----------|
| <b>거버넌스 회복</b>                            |      |          |
| 코트디부아르 국가경찰 역량강화                          | 연수   | 진행 중     |
|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를 위한 형사사법 세미나                  | 연수   | 진행 중     |
| 법률 공정성에 대한 자문                             | 기술협력 | 2014년 시작 |
| <b>행정역량 강화</b>                            |      |          |
| Greater 아비장內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강화 프로젝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코트디부아르 중·북부지역의 지역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b>경제인프라 강화</b>                           |      |          |
| Greater 아비장 도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Solibra 교차로의 고가 횡단도로 건설                   | 무상원조 | 2014년 조사 |

| 경제인프라 강화                          |      |          |
|-----------------------------------|------|----------|
| 아비장 시리얼 항구 확장                     | 무상원조 | 2014년 조사 |
| 아비장 디지털 지형도 및 도시 지형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산업발전 증진                           |      |          |
| 기술혁신·보급 중심의 산업부문 정책 수립 프로젝트       | 기술협력 | 2014년 시작 |
| CEPICI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 자문       | 기술협력 | 2014년 시작 |
| 제1차 산업부문 증진                       |      |          |
| 농업 분야 기술 자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농업 및 어업 분야 기술 자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지역 쌀 증진 프로젝트                      | 기술협력 | 진행 중     |
| 내륙 양식업 활성화 프로젝트                   | 기술협력 | 2014년 시작 |
| 사산드라 시 부두 개발 프로젝트                 | 무상원조 | 2014년 조사 |

자료: JICA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아비장과 코트디부아르 중북부 지역(부아케를 포함한 베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상주 전문가를 파견하고 교육, 교통, 식수위생, 보건 등 각 분야의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면서 지역공동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커뮤니티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

### [글상자 3-3] JICA의 지역공동체 기반 행정역량 강화사업

- 사업명: 코트디부아르 중북부 지역의 지방행정역량 강화(Project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Local Administration in Central and Northern Areas of Cote d'Ivoire) / 2013.11-2016.11
- 대상지: 중부(Vallee Du Bandama, Woroba, Zanzan), 북부(Denguele, Savanes) 시범사업의 경우, (Gbéké)주의 Vallee Du Bandama를 대상으로 함
- 협력 및 실행기관: 내무안보부(Ministry of State, Ministry of Interior and Security) 및 각 지역 지방정부
-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코트디부아르 중북부 지역의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은 내전으로 붕괴된 중북부 지역의 커뮤니티 재건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투입인력은 공공행정 전문가, 식수위생 시설 설계 및 운영보수 관리자, 교육 전문가, 사회조사 및 젠더전문가, 건축 전문가, 시공 및 감리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지방정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중북부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는 교육관계자 및 급수, 수리국 관계자, 지역 엔지니어 등 커뮤니티 유지에 필요한 기초 사회서비스 관계자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역량강화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아케 시를 포함한 베케 주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초등학교 및 우물 건립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방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베케 주의 공공서비스 실시 체계 개선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 학교운영 및 급수 시범사업



자료: JICA 홈페이지

JICA는 동 사업 시행 시 유의점으로 우선 지방분권화 체제가 현재 과도기로 불안정함을 고려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꼽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전투원 출신 주민과 및 북부 출신 주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므로 이들의 사회재편입 및 연대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 북부 지역의 경우, 내전 중 반정부군의 거점지로 혼란이 심했던 한편, 야무수쿠로와 가까이 향후 프로젝트 성과공유를 위한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 지역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정하여 일본의 장기체류 불가 지역인 것을 고려하여, 로컬 컨설턴트 혹은 특별 안전조치를 취한 일본인 전문가의 활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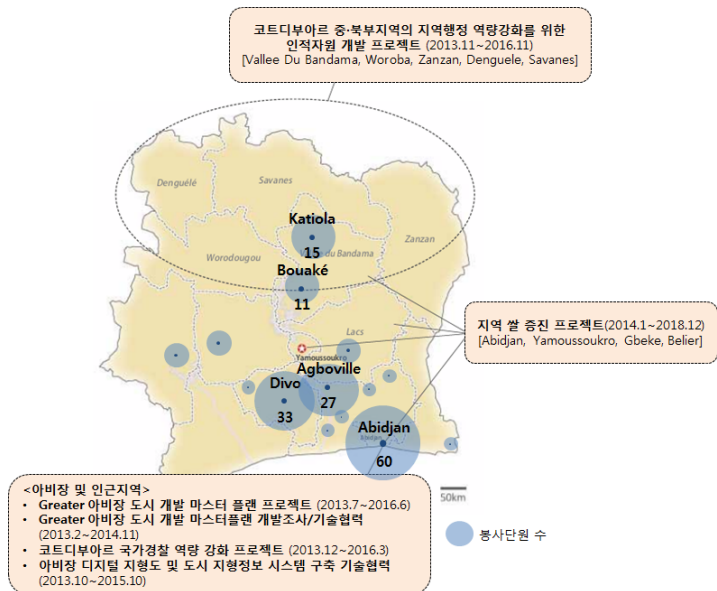
자료: JICA 홈페이지

경제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부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아비장 도시 마스터플랜(Grand Abidjan)이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향후 아비장의 안정적인 도시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솔리비아(Solibia) 교차로의 고가 횡단도로 건설, 아비장 곡물항 확장, 아비장 디지털 지도 및 도시 지형정보 시스템 프로젝트(기술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JICA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처럼 코트디부아르 1차 섹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 어업 등에 기술 자문관을 파견하여 관련 부처 행정역량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지역 쌀 증진 프로젝트(CARD)를 통해 야무수쿠로-아비장 간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림 3-4] 코트디부아르 내 JICA 지원현황



자료: JICA 홈페이지

### 다. 미국

USAID(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2002년 내전으로 현지 사무소를 철수한 바 있으나 2011년 재개소 하였다. 코트디부아르가 HIPC 대상국이 되면서, 2013년 2월 1일 미국으로부터 214 백만 달러의 채무 변제 동의를 받았다. USAID는 현재 연간 약 150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집행하고 있으며, 주로 HIV/AIDS 퇴치 등 보건 분야, 거버넌스 강화 등 공공행정 분야와 경제발전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HIV/AIDS 관련 지원은 연간 140백만 달러 규모로 해당 분야 코트디부아르 원조 규모의 75%에 달하며, Global Fund의 15%를 포함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는 보건 분야 중 HIV/AIDS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

만, 향후 3년 이내에 가족계획, 식수·위생,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분야의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거버넌스의 경우, 연 8백만 달러 규모로서 국회 입법관련 역량강화, 법무부 및 법정 역량강화, 선거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주로 진행한다. 2015년 4월에는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공정 투명한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4천억 프랑세파를 원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동 사업에는 선거위원회 서고 개량, 보관문서 전산화, 선거법 간소화 및 안내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USAID는 경제발전 및 민간부문 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원조금액을 2배가량 증액할 계획에 있다. 특히 쌀, 캐슈, 카카오 등의 농가공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USAID와는 별개로 지난 2014년 11월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가 코트디부아르를 주요 전략국으로 선정하고 Threshold program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30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향후 5억 달러 규모의 Compact program으로 확장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인프라 부문으로서 자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라. 독일

독일(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은 1975년부터 코트디부아르에 지원하고 있으며 아비장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02년 시작된 정치적 갈등이 2011년까지 이어지며 코트디부아르가 취약국으로 분류된 시기에도 분쟁 후 정상화 상황을 예상하고 협력을 계속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사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찰 및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거버넌스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니제르유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을 하거나, 마노강 연합국 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적 차원의 접근법으로 서아프리카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 3-11〉 GIZ의 對 코트디부아르 분야별 진행 프로젝트

| 농촌 개발                                                            |
|------------------------------------------------------------------|
| 서아프리카국가(나이지리아, 가나, 토고, 코트디부아르, 카메룬)의 지속가능한 카카오 수확(2014-2018)     |
| 기후변화 적응 및 서남부 지역 주민 자구성 강화(2012-2016)                            |
| 농촌 경제개발 및 생물다양성(2007-2013)                                       |
| 지속가능한 인프라                                                        |
| 니제르유역청(NBA-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등) 지원(2007-2016)          |
| 평화, 안보와 재건                                                       |
| 코트디부아르 경찰(AA) 역량 강화(2013-2015)                                   |
| 코트디부아르 소형무기 제어 국가위원회 지원(2011-2016)                               |
| 환경 및 기후변화                                                        |
| 타이(Tai) 및 코모에(Comoé) 지역의 천연자원관리 및 경제구역 개발(2013-2016)             |
| 경제개발 및 고용                                                        |
| 마노강 연합국(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내 회사와의 협력을 위한 PPP기금(2011-2017) |

자료: GIZ 홈페이지

###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 가. 세계은행(World Bank)

##### 1) 지원 전략

세계은행의 코트디부아르 2010-2013년 국가전략(Country Strategic Partnership; CPS)은 총 350백만 달러의 예산 규모로 세계은행그룹 이사회에 의하여 2010년 승인되었다. 2013년 발행된 경과보고서의 CPS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 내 평화유지를 위하여 전략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보고서는 2011년 내전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여 현 CPS를 2014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네 가지의 핵심전략 목표는 코트디부아르 2012-2015년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2〉 세계은행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전략목표 및 성과

| 목표 1: 거버넌스 및 제도 강화                                                                                                         | 목표 2: 농업분야 개선                                                                |
|----------------------------------------------------------------------------------------------------------------------------|------------------------------------------------------------------------------|
| 1.1 재건 성과 지속 및 평화 유지 가능성 개선<br>1.2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 재정 자원 관리<br>1.3 부채적정성 개선 및 빈곤감소적 지출 증대<br>1.4 주요 경제부분 거버넌스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 2.1 수출 및 식용작물 생산성 및 부가가치 증대<br>2.2 농가 소득 증대<br>2.3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강화           |
| 목표 3: 민간부문 개발                                                                                                              | 목표 4: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 갱신                                                        |
| 3.1 기업가 및 소기업 실적 개선<br>3.2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적인 경제 구축                                                                         | 4.1 필수 기본 인프라 재건, 확장 또는 개선<br>4.2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및 농촌 생활 환경<br>4.3 기초 사회 서비스 개선 |
| 다분야                                                                                                                        |                                                                              |
| 5.1 고용창출 및 청년층을 위한 기회 마련                                                                                                   | 5.2 젠더 주류화 및 여성의 경제 참여도 개선                                                   |

자료: World Bank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Côte d'Ivoire. 2010. 재구성

현재 동 전략의 종료에 따라 후속 전략을 수립 중이며, 2014-2018년 간 기존예산규모의 약 2배인 750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World Bank 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sup>59)</sup>이며, 신규 전략은 2015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은행은 코트디부아르 국가개발전략(PND)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1차 PND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특히 모니터링 및 평가 부분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으며, 2차 PND 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59) World Bank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국가 정책 및 기관평가)는 매년 경제관리, 구조적 정책, 사회 통합 및 균형정책, 공공분야 관리 및 기관 등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16개 기준에 따라 국가를 평가. 2014년 기준, 8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아프리카 국가는 신규대상국인 지부티와 예멘을 포함한 총 36개국임. 2013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점수는 3.20이며,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4년 간 지속적으로 0.5 상승하여 2013년 3.2 기록(2010년 2.7, 2011년 2.9, 2012년 3.1, 2013년 3.2)(World Bank, CPIA Cote d'Ivoire 2013)

## 2) 지원 현황

세계은행은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발전을 위해 인프라, 교육, 청년고용, 거버넌스,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표 3-13> 세계은행의 對 코트디부아르 진행사업(2014)

| 분야          |                                                                                        | 사업명                                                                                                                                                                                    | 예산<br>(백만달러) |
|-------------|----------------------------------------------------------------------------------------|----------------------------------------------------------------------------------------------------------------------------------------------------------------------------------------|--------------|
| 보건          |                                                                                        | 보건 시스템 및 에볼라 대응강화 프로젝트(Health Systems Strengthening and Ebola Preparedness Project, 2014.11-2010.01)                                                                                   | 77           |
| 교육          | 기초<br>교육                                                                               | 기초교육긴급지원프로젝트-GPEF지원(Emergency Basic Education Support Project - GPEF Grant, 2012.04-2015.09)                                                                                           | 41.4         |
|             | 직업<br>훈련                                                                               | 청년 고용 및 기술 개발 긴급 프로젝트(Emergency Youth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Project, 2011.09-2019.06)                                                                                      | 50           |
|             |                                                                                        |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 통합 프로젝트<br>(Social Inclusion and Improvement of Livelihoods of Youth, Vulnerable Women and Handicapped in Post Conflict Western Cote d'Ivoire, 2013.04-2017.10) | 2.7          |
| 농림<br>수산    | 환금작물 관련 농업 지원 프로젝트<br>(Agriculture Sector Support Project, 2013.08-2017.10)            |                                                                                                                                                                                        | 65.75        |
|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br>(REDD+ Readiness Preparation in RCI, 2014.09)                          |                                                                                                                                                                                        | 3.8          |
| 산업에너지       | 천연 가스필드 확장(CI-27 Gas Field Expansion, 2013.06)                                         |                                                                                                                                                                                        | 60           |
|             |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Cote d'Ivoire - Emergency Infrastructure Renewal Project, 2012.06-2016.12) |                                                                                                                                                                                        | 200          |
| 거버넌스        | 거버넌스 및 기관 개발(Governance and Institutional Dev.2008.06-2016.11)                         |                                                                                                                                                                                        | 13           |
|             | 코트디부아르: PRSC2(Côte d'Ivoire: PRSC2, 2014.12-2015.06)                                   |                                                                                                                                                                                        | 70           |
| 기타<br>사회서비스 | 내전 긴급 구호 프로젝트<br>(Emergency Post-Conflict Assistance Projectm, 2007.07-2015.12)        |                                                                                                                                                                                        | 120          |
|             | 국가 재건지원 프로젝트<br>(CI:Post Conflict Assistance Project-AF, 2013.12)                      |                                                                                                                                                                                        | 30           |
| 부채감축        | 부채감축(Debt and Debt Reduction, 1997.07-)                                                |                                                                                                                                                                                        | 20           |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

가장 큰 예산규모를 차지하는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Emergency Infrastructure Renewal Project)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불리며, 장기적 내전의 영향으로 재건이 필요한 국가 전반의 도시 및 농촌 인프라를 재건하는 사업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주요 도시 간 도로망을 연결할 뿐 아니라, 도로망을 기점으로 상하수도 및 수자원 인프라, 학교·병원·공공기관 등 사회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국가 공공서비스 전반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도로, 상하수도 등 별개로 진행되던 인프라 구축사업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 높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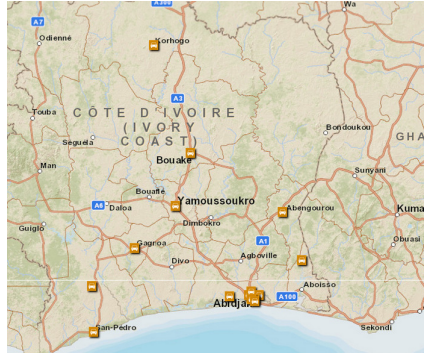
이 외에도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쌀, 옥수수, 카사바 등 주곡작물의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다부문에 걸쳐 무역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서아프리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글상자 3-4] 세계은행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명: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Cote d'Ivoire - Emergency Infrastructure Renewal Project) - 르네상스 프로젝트
- 전체예산: 2억 달러(IDB: 1억 달러, IDB·IBRD: 1억 달러)
- 사업지역: Abidjan, Yamoussoukro, Korhogo, Bouake, Abengourou, Soubre
- 사업목적: 사업지역 내 기초 인프라로의 접근성 향상
- 사업내용: 사업지역 내 기초 인프라 재건 및 프로젝트 관리·협력

르네상스 프로젝트(Cote d'Ivoire - Emergency Infrastructure Renewal Project)는 장기 내전에 따른 코트디부아르 국가 전반적인 위기상태에 대한 세계은행 측의 대응 방편으로, 약 15년 동안 18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도시 및 농촌 총 6개 지역에 대한 대규모 사회 인프라 재건을 골자로 진행되는 본 사업을 통해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사회서비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및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지역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

도시 인프라 재건(1억 4,700만 달러), 농촌 인프라 재건(3,400만 달러), 프로젝트 관리·협력(1,900만 달러)로 이루어진 본 사업은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라 부(Ministère Des Infrastructures Economiques)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프라 재건 관련해서는 도심 내 배수시설, 부속장비 및 가로등 설치 등을 포함한 도로망 재정비, 학교·보건의로 센터·공공기관 재건, 상·하수도 시설 재정비, 위생 시설 및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며, 농촌 지역에서는 주요 도로 재건, Comoé강 Bassawa 교량 건설 및 기초 사회·경제 인프라 재건 등이 진행된다. 각 사업내용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기술 이전, 교육 및 유지보수 또한 지원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도로공사의 진행률은 25%이며, 수도 아비장 내 도로공사는 계획된 6개 도로공사 중 현재 3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57개의 초등학교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초기 목표인 25개를 기 달성하였으며, 의료시설 또한 20개 기관(목표치 55개)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도심 내 가로등이 3,087개(목표 2,500개)가 설치되는 등 각 지역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

## 나. EU

### 1) 지원 전략

EU는 코트디부아르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안정 구축, 경제협력, 빈곤완화 등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국가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2008-2013)와 국가지표 프로그램(National Indicative Programme)를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개발의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제 10대 유럽개발

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FED) 중 275.4 백만 유로에 해당한다. 10차 FED 하에서의 주요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주로 내전 이후 커뮤니티 재건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재건 및 통합에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EU의 10차 FED(2008-2013) 분야별 세부 목표 및 예산 구성비

| 지원 분야                     | 예산<br>(백만 유로) | 구성비     |
|---------------------------|---------------|---------|
| 전체                        | 275.4         | 100.00% |
| 3개 중점지원 분야                | 218           | 79.16%  |
| 1. 국가 안보 및 평화 구축          | 69            | 25.05%  |
| 1) 평화 구축                  |               |         |
| 2) 법체제 및 안보 개선            |               |         |
| 3) 굿 거버넌스 지원(공공재정 개혁)     |               |         |
| 2. 사회 통합 및 재건             | 126.5         | 45.94%  |
| 1) 사회경제적 통합               |               |         |
| 2) 사회인프라 재건               |               |         |
| 3) 경제인프라 재건               |               |         |
| 3. 기타 분야                  | 22.5          | 8.17%   |
| 1) 역내 통합 및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지원 |               |         |
| 2) 기술협력 지원                |               |         |
| 비정부 지원(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 57.4          | 20.84%  |

자료: EU-Républic de Côte d'Ivoire,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our la période 2014-2020

신규로 수립된 2014-2020 국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EU의 11차 FED 주요 협력분야는 (1)국가안보 및 평화구축, (2)농업 및 식량안보, (3)에너지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이에 대해 총 273백만 유로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협력분야의 변화를 통해, 사회통합 및 국가재건에서 농업 및 에너지 등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협력방향이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버넌스 및 농업 사업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달성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충족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경우 전력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15〉 EU의 11차 FED(2014-2020) 분야별 세부 목표 및 예산 구성비

| 지원 분야                                                                            | 예산<br>(백만 유로) | 구성비  |
|----------------------------------------------------------------------------------|---------------|------|
| 전제 지원                                                                            | 273           | 100% |
| 3개 중점지원 분야                                                                       | 259           | 95%  |
| 1. 국가 안보 및 평화 구축                                                                 | 60            | 22%  |
| 1) 전국적인 공공행정 기능 개선<br>2) 서비스 질 개선                                                |               |      |
| 2. 농업 및 식량 안보                                                                    | 60            | 22%  |
| 1) 식량안보 강화, 농촌 지역 현대화, 식량생산 활성화<br>2) 식량생산 촉진,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br>지속가능한 생산 지향 |               |      |
| 3. 에너지                                                                           | 139           | 51%  |
| 1) 전기 접근성 향상, 전기화 자금 운영과 전기 사용의<br>지속가능한 방안 마련<br>2) 전기 생산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증가   |               |      |
| 시민사회 지원                                                                          | 7             | 2.5% |
| 기타 행정지원                                                                          | 7             | 2.5% |

자료: EU-Républic de Côte d'Ivoire,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our la période 2014-2020

## 2) 지원 현황

2011년도 이후 EU의 코트디부아르 진행 사업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및 사회통합  
부문의 재건 및 안정적 구축을 위한 지원이 많았으며, 10차 FED 및 11차 FED 하의  
사회부문 및 산업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6〉 EU의 對 코트디부아르 주요 사업(2011년도 이후)

(단위: 백만 유로)

| 분야 | 사업명                                                                                                                        | 예산    |
|----|----------------------------------------------------------------------------------------------------------------------------|-------|
| 교육 | 청소년 직업훈련 및 세대통합 지원<br>(Appui à la relanc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à l'Insertion<br>des jeunes en Côte d'Ivoire) | 29.00 |
| 보건 | PHAM 위생시설 개선 프로그램<br>(PHAM Programme d'hydraulique et assainissement pour le millénaire)                                   | 25.00 |
|    | 보건분야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br>(Projet d'Appui à la Redynamisation du Secteur de la Santé Ivoirien;<br>PARSSI)                        | 15.00 |

| 분야        | 사업명                                                                                          | 예산     |
|-----------|----------------------------------------------------------------------------------------------|--------|
| 산업<br>에너지 | 코트디부아르 도로자산 보존 프로젝트<br>(Projet Sauvegarde du Patrimoine Routier en Côte d'Ivoire)            | 70.00  |
|           | 무역 및 지역통합 프로젝트<br>(Projet d'appui au commerce et à l'intégration régionale; PACIR)           | 16.00  |
| 농업        | 바나나 생산량 측정 지원<br>(Mesures d'accompagnement Bananes)                                          | 44.75  |
|           | 농업지원 프로그램<br>(Programme d'appui au secteur agricole, FLEX 2008)                              | 20.20  |
|           | 설탕 생산량 측정 지원<br>(Mesures d'accompagnement Sucre)                                             | 7.30   |
| 거버<br>넌스  | 공공서비스 복원을 위한 예산지원<br>(Programme d'appui budgétaire à la restauration des services de l'Etat) | 144.00 |
|           | 사법분야 개혁 지원 프로젝트<br>(Projet d'appui à la réforme du secteur de la Justice)                    | 18.00  |
|           | 거버넌스 지원 프로그램<br>(Programme d'Appui à la Gouvernance)                                         | 11.00  |
|           | DDR 지원 프로그램<br>(Programme d'appui au processus DDR)                                          | 10.00  |
|           | 비정부 관련자의 리더십 및 이니셔티브 지원<br>(Leadership et initiatives des acteurs non étatiques; LIANE)      | 4.00   |

자료: 현지 입수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상기의 프로젝트 중 70백만 유로의 도로자산 보존 프로젝트 및 15백만 유로의 보건분야 활성화 지원프로젝트 등은 유관부처 및 AFD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며, 지역 내 활발히 활동하는 UN 기구 및 INGO와 등과 협력하여 사업 집행력 및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 다. AfDB

AfDB의 2013-2017 CSP는 (1) 거버넌스 및 책무성 강화, (2)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부흥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필러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국가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는 코트디부아르 국가발전계획의 목표와도 일치하고 있다. 인프라의 경우, 농업, 교통, 에너지 등 다부문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지역 역시 국가차원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차원으로 폭넓게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AfDB의 2013-2017 프로그램 및 세부프로젝트 예산 구성

| 전략적 목표                                   | 예산 |     | 구성비    |
|------------------------------------------|----|-----|--------|
|                                          | 구분 |     |        |
| 1. 거버넌스 및 책무성 강화                         |    | 94  | 22.54% |
| 1) 사회분야                                  |    | 34  | 8.15%  |
| - 사회경제적 재통합 지원 프로젝트                      |    | 15  |        |
| - 청년고용 및 사회진출 지원 프로젝트                    |    | 19  |        |
| 2) 거버넌스 분야                               |    | 40  | 9.59%  |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    | 30  |        |
| - 공공재정개혁계획 실행지원 프로젝트                     |    | 10  |        |
| 2.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부흥 지원                    |    | 343 | 82.26% |
| 1) 농업 인프라                                |    | 60  | 14.39% |
| - 중부지역 농공업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    | 30  |        |
| - 북부지역 농공업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    | 30  |        |
| 2) 교통인프라(다국가 대상)                         |    | 200 | 47.96% |
| -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간 도로망 프로젝트               | 지역 | 60  |        |
|                                          | 국가 | 30  |        |
| - 아비장-라고스 연결 프로젝트                        | 지역 | 40  |        |
|                                          | 국가 | 20  |        |
| - 산페드로 지역항구 확장 프로젝트(민간 부문)               | 민간 | 50  |        |
| 3) 에너지 인프라                               |    | 83  | 19.90% |
| -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CLGS) 연결 프로젝트 | 지역 | 20  |        |
|                                          | 국가 | 13  |        |
|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접근 프로젝트                    | 국가 | 50  |        |
| 4) 경제 및 기타 분야                            |    |     |        |
| - 젠더, 천연자원 관리, 기후변화 계획 등                 |    |     |        |
| 총 계                                      |    | 417 | 100    |

자료: AfDB.(2013)

특히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경우,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주변국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지원함으로써 서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증진을 통한 경제발전과 함께 지역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2월 협정이 체결된 기니,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포함 마노강(Mano River) 연합국 세 개국의 도로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은 5천만 불에 해당하는 차관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며. 기네 롤라(Lola)-코트디부아르 국경 구간 포장(40km), 코트디부아르 타

부(Tabou)-라이베리아 국경 구간 포장(28km) 등과 함께 기네-라이베리아 국경 간 포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네 및 라이베리아 수출품의 산페드로 항구 및 아비장 항구 이송을 용이하게 하여 양국 간 통상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의 서아프리카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5] 마노강연합국 도로인프라 구축사업 대상구간



자료: AfDB. 2014. "Road development and Transport facilitation programme within the Mano River Union-Summary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ESIA)."

####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을 겪은 이후 원조의 규모나 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내전 이후 공여국/다자기구 간 협의체가 형성되어 원조 조화를 위한 논의 및 정부 공동 대응 등이 가능해졌다. 이 협의체는 2014년 2월부터 매달 1회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국별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여국 협의체가 형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반면, 아직 코트디부아르 정부 내에서는 수원체계가 명확히 잡히지 않고 있다. 아직 정부 내 수원총괄부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들은 대통령실, 총리실, 재무부, 외교부 등이 각기 다른 부처를 focal point로 하여 원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

어 AFD와 세계은행의 경우 총리실과, EU는 재무부, USAID는 외교부 등과 각각 협의를 진행한다. 개발계획부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수립, 전략시행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부처 간 원조 코디네이션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적 및 조직역량 미비로 아직 주요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공여체는 세계은행, AfDB, EU, UN그룹을 포함한 8개 다자기관 및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5개의 공여국이며, 최근 중국 및 인도의 진출도 이뤄지고 있다. 이중 프랑스와 세계은행이 각각 9개와 8개로 가장 많은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다자기구는 3-4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14), 농업(13), 거버넌스(13)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한 반면, 환경(4), 도시개발(3), ICT(2)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기관이 적다.

원조 기관별로 지원 분야, 규모 및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AFD, EU, 세계은행, AfDB 등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로 중앙정부와 협력을 하되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INGO 또는 현지 NGO 등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이들은 해당 부처와 상호 합의된 목표치 달성여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USAID나 JICA의 경우, 프로젝트, 기술협력 및 자문단 파견 등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AFD는 2차 C2D에서 도시개발 및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강화 및 모자보건/가족계획 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USAID는 2011년 이후 사무소 복귀에 따라 조직 강화에 힘쓰는 한편, 기술협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특히 민간기업과 연계되는 경제개발 분야 지원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JICA의 경우, 지역 공동체 기반의 역량강화 및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다자기구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은 인프라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 등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동시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서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West Africa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 Project)를 통해 서아프리카 식량안보 위기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AfDB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내전 후 공공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서아프리카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통합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다수의 기관에서 정부의 차기 대선 및 2차 PND 수립 계획에 따라 새로운 협력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력규모는 약 2배 정도로 증액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FD는 1차 C2D(2012-2015/630백만 유로) 종료 후 작년 말 2차 C2D(2015-2020/1,120백만 유로)를 2배 예산규모로 체결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 역시 기존전략(2010-2014/350백만 달러)을 마무리하고 신규전략(2015-2018/750백만 달러)을 수립할 계획이다. USAID의 경우에도 현재 연간 140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지원액을 2배로 증액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 확대 추세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활성화 및 정세안전에 따라 서아프리카 내에서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독일계 제약회사 Bayer 등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들의 지역본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어 공여국에서도 원조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MCC의 경우에도 코트디부아르를 주요 전략국으로 설정, 향후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검토 중으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 ODA 규모 및 기업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 한국-코트디부아르 협력현황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로서, 지난 1961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0월 와타라 대통령 및 대표단이 방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여, 무상원조기본협정 및 보건·경제협력 MOU 체결 등 양국 간 협력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표 3-18〉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61. 7 23 수교(북한과는 1985. 1. 19 수교)                                                                  |         |         |                                       |
|--------------|-----------------------------------------------------------------------------------------------------|---------|---------|---------------------------------------|
| 주요협정 체결      | 의료기술 협정('68), 문화협정('80),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8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99), 포괄적 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7), 무상원조기본협정('14) |         |         |                                       |
| 무역현황         | 2011                                                                                                | 2012    | 2013    | 주요 품목                                 |
| 수출<br>(천 달러) | 92,847                                                                                              | 120,655 | 141,915 |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br>동제품, 기호식품, 기타농산물 |
| 수입<br>(천 달러) | 2,530                                                                                               | 1,722   | 2,164   |                                       |
| 투자현황         | 2011                                                                                                | 2012    | 2013    | 2013년 말 누계                            |
| 신규법인 수       | -                                                                                                   | -       | 4       | 8                                     |
| 천 달러         | 3,099                                                                                               | 2,635   | 1,395   | 60,333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국가편람

한국의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수출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5.6배 가량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자동차,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이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내전 전후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크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lt;표 3-19&gt; 한국-코트디부아르 교역액

(단위: 천 달러)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1   | 2012    | 2013    |
|----|--------|--------|--------|--------|--------|--------|--------|--------|--------|---------|---------|
| 수출 | 25,293 | 31,156 | 48,749 | 57,900 | 74,595 | 71,542 | 94,140 | 92,187 | 92,847 | 120,655 | 141,915 |
| 수입 | 8,161  | 883    | 268    | 529    | 1,281  | 743    | 401    | 2,530  | 2,530  | 1,722   | 2,164   |

자료: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디부아르에는 교민 약 170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발 및 플라스틱 제조, 생수 공급, 조선업, 건설업 등의 산업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로는 LG전자(1990년), 삼성전자(1996년 7월), 대우전자(1996년 8월)등 가전 3사가 진출하였으나, 2002년 쿠데타 전후로 모두 철수한 바 있다. SK는 코트디부아르 석유광구(CI-01, C-11)에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석유개발에 참여 중이며, 제원건설, 현대중공업이 각각 교각 건설 및 발전소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코트디부아르 내 발전소·교량 인프라 건설업, 농업, 제약업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진출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산엔지니어링이 10억 유로 규모의 아비장 경전철 건설 프로젝트를 프랑스 Bouygues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한 바 있다.

더불어 와타라 대통령 방한 계기로 체결한 한-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기본협정으로 7천만 달러 규모의 코트디부아르 암 센타 건립 및 전자, 도로, ICT 분야 등 다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국가적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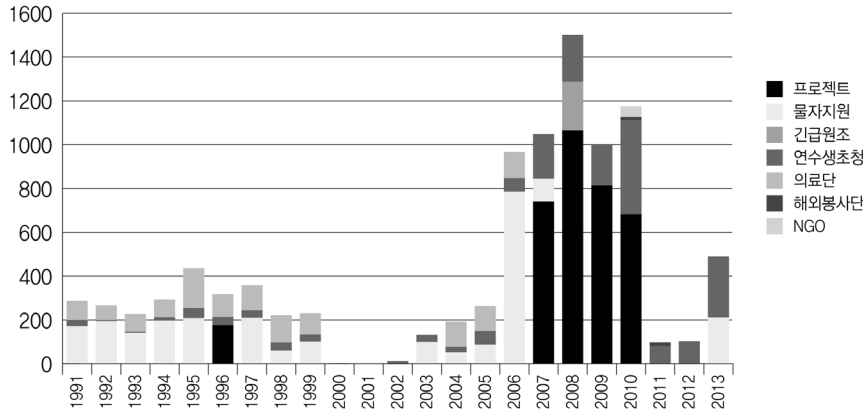
## 2. KOICA의 지원현황

KOICA는 1991년 이후 코트디부아르에 총 961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해왔으며,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지원 4건, 물자지원 22건, 초청 연수생 227명을 비롯하여 봉사단 2명과 의료단 2명을 파견했다. 지난 1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시작된 지원이 2000년도 내전 발발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6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전체

무상원조 금액의 약 60% 이상이 2006년 이후에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전으로 중단되었던 연수생 초청 및 물자지원이 재기되었기 때문이며, 2008년도에는 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지원 최고액을 달성하였다. 분야별로는 프로젝트 36%, 물자지원 27%, 연수생초청 20%, 의료단 파견 13% 순으로 지원하였다.

[그림 3-6] KO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KOICA 실적통계

KOICA의 코트디부아르 지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말라리아, 부롤리 궤양, 누관 치료 등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비장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 등 교육 및 공공행정 IT 정보화를 지원한 바 있다.

<표 3-20> KOICA의 對 코트디부아르 지원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명(기간/금액)                                             | 사업지/요소(분야 및 사업별 특징)                                                                                                                               |
|--------------------------------------------------------|---------------------------------------------------------------------------------------------------------------------------------------------------|
| 코트디부아르 UNFPA<br>중북부-서부지역 누관치료<br>사업(2010-2015/170만 달러) | - 목적: 중북부 및 서부지역 누관치료<br>- 내용: 34개 보건구역 160개 보건소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의료기자재, 오토바이 160대, 차량 6대 등 기증품 전달                                                     |
| 아비장 국립대학 정보시스템<br>구축 강화사업<br>(2007-2008/74.1만 달러)      | - 목적: 아비장 국립대학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강화를 통한 학습, 연구 활성화<br>- 내용:기자재지원,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등                                                                   |
| 교육행정능력 강화를 위한<br>인트라넷 구축<br>사업(2008-2009/138만 달러)      | - 목적: 정부부처 내 로컬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여 유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br>- 내용:시스템개발, 기자재지원 등                                                       |
| 부롤리 궤양 치료를 위한<br>지방진료소 역량강화사업<br>(2009-2010/170만 달러)   | - 목적: 부롤리 궤양 집중 발생 중부 5개 지역 8개 보건소에 의료기자재를 지원, 지방 진료소 역량 강화를 통한 부롤리 궤양 등 질병 퇴치에 기여<br>- 내용: 기자재 공여, 초청연수, 홍보 및 모니터                                |
|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br>살충모기장지원 및<br>예방교육(2010/5.3만 달러)      | - 목적: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 및 사망률 감소, 말라리아 감염 예방과 보건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증진<br>- 내용: 말라리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살충모기장 집중 전달하고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감염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

자료: ODA Korea,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사이트

2014년 코트디부아르에 KOICA 사무소가 신설되면서 와타라 대통령 방한 전후 논의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UNFPA 누관치료 사업의 경우, 1차 사업의 성과가 좋아 현재 2차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보건분야의 지원확대를 위해 프랑스 AFD와의 공동협력으로 식수 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착수할 계획에 있다.

또한 KOICA는 경제인프라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와타라 대통령 방한 시 지원을 약속했던 한국-코트디부아르 스포츠·문화정보통신 센터 공사가 4월 중으로 시작되고, 봉사단 파견이 향후 계획되어 있는 등 KOICA의 對코트디부아르 지원이 분야와 지원형태에 있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21> 對 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 사업(안)

(2014.11 기준)

| 구분           | 시행연도           | 사업 명                                       | 지원규모                                              |
|--------------|----------------|--------------------------------------------|---------------------------------------------------|
| 프로젝트형<br>사업  | 2010-2015.6    | UNFPA-KOICA 누관치료                           | 170만 불                                            |
|              | 2016(추진)       | UNFPA-KOICA 누관치료 사업 확대                     | 협의 중                                              |
|              | 2014-2015      | AFD-KOICA 식수 및 위생 개선                       | 3백만 불                                             |
|              | 2015           | 한·코트디부아르 스포츠·문화·ICT 협력<br>센터 건립            | 9백만 불                                             |
|              | 2015-2017      |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                               | 5백만 불                                             |
|              | 2015           | 교통 마스터플랜                                   | 120만 불                                            |
|              | 2016(추진)       | 전자정부(공공행정부)                                | 5백만 불                                             |
|              | 2016(미정)       | 교육부 인트라넷                                   | (사업신청서<br>접수시 건의)                                 |
| 연수 사업        | 2014           | KOICA 귀국 연수생 활동 지원                         | ※ 봉사단<br>파견 2016년<br>20명, 2017년<br>20명<br>총 : 40명 |
|              | 2014           | 치안 인력 관련 국별 연수(내무부)                        |                                                   |
|              | 2014년이후        | 새마을 연수 포함 5주(정책, 실습)                       |                                                   |
|              | 2015-17        | 국별 연수(매년 2건)                               |                                                   |
|              | 2014-17        | 14개월 석사 연수 2 건(14년)<br>2015-17 년 5건(총 15건) |                                                   |
| 전략 원조        | 2014           | 식물정보 DB 제작 및 박물관 보수                        | 20만 불                                             |
|              | 2014           | 외교부 공공차량 지원                                |                                                   |
|              | 2015-17        | 사업 발굴(년 20만불)                              | 총 60만 불                                           |
| CSR 사업       | 2014           | 빗물관리사업                                     | 4만 불                                              |
|              | 2015-17        | 사업 발굴(년 3건)                                | 총 12만 불                                           |
| KOAPEC<br>사업 | 2013-2014      | 국가 정보화 전략 수립<br>지원(정보통신부)                  | 30만 불                                             |
|              | 2013.10-2015.6 |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 98만 불                                             |

자료: KOICA 코트디부아르 현지사무소 입수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표 3-22〉 국내 공공기관의 코트디부아르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기관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체         | 0.26 | 1.03 | 0.85 | 1.73 | 0.98 | 1.23 | 1.03 | 1.04 | 1.89 |
| KOICA      | 0.26 | 0.97 | 0.85 | 1.73 | 0.90 | 1.18 | 0.97 | 0.7  | 1.83 |
| 농촌진흥청      | -    | -    | -    | -    | -    | -    | -    | 0.03 | 0.05 |
| (구)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    | 0.03 | 0.05 | -    | -    |
| (구)외교통상부   | -    | 0.05 | -    | -    | -    | -    | -    | 0.3  | -    |
| (구)정보통신부   | -    | 0.01 | -    | -    | -    | -    | -    | -    | -    |
| (구)행정안전부   | -    | -    | -    | -    | 0.07 | 0.02 | 0.01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0.01 | 0.01 | 0.01 | 0.01 | -    |
| KDI        | -    | -    | -    | -    | -    | -    | -    | -    | 0.01 |

자료: EDCF 통계

2005년 이후로 코트디부아르에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KOICA, 농촌진흥청 등 총 8개 기관으로, KOICA에서 가장 많은 원조금액을 집행하였다.

각 기관별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2010년 7월, 아프리카 17개 국가<sup>60)</sup>를 대상으로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를 출범하였다.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을 골자로 한 본 협의체는 식량작물, 농업기초과학, 원예, 축산, 농촌지도 5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초대 가입국가로 2012년에는 3만 달러, 2013년에는 5만 달러를 해당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외교통상부가 집행한 對코트디부아르 원조는 2006년에 한국어 연수 장학금(Korean Language Fellowship Program) 명목으로 약 5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이후 2012년도에는 코트디부아르 재건을 위한 UN 합동지원요청(Funding for the consolidation appeal process for Ivory Coast)에 응하여 UN Children Fund를 통해 3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60) 현재는 19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대한민국,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코모로(2012 가입), 르완다(2015 가입)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가 개발도상국 정보화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Korea IT Learning Prpgram, KoIL)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로 진행된 초청연수(The KCC'S Expert Training Course)등이 2010년 전후로 진행되었다.

한편 KOAFEC 신탁기금을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 시범사업과 국가 정보화 전략 수립 지원 사업 등이 있다. 對코트디부아르 새마을 운동사업은 2009년 한국-코트디부아르 간 합의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출범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측에서는 전담 NGO(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Autonome Durable; ADAD-Corée-Côte d'Ivoire)를 설립하여 한국 새마을운동 본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진행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010년 추진된 초기 사업은 KOAFEC 신탁기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양계와 텃밭 양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N'Gbèkro의 Zatta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된 Bélier지역 개발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사육장건축, 소액 대출 시스템 구축 및 보건센터 신축 등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표 3-23> 새마을운동 사업 개요

|                 |                                                                                                               |
|-----------------|---------------------------------------------------------------------------------------------------------------|
| 사업명             |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 프로젝트                                                                                             |
| 사업 목적           | 새마을 운동 정신 발양과 농촌 개발을 위한 자립도와 인프라 구축,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된 Bélier지역의 개발                                                 |
| 지원규모/기간         | KOAFEC 신탁기금 9천만 세파프랑 규모로 지원/2014년 3월-                                                                         |
| 대상 지역           | N'Gbèkro, Zatta 마을                                                                                            |
| 사업 내용<br>및 지원규모 | -보건센터, 학교, 교사 숙소, 청년 숙소 건설<br>-N'Gbèkro에 댐 건설과 Zatta에 현대적인 장터 설립, 농업프로젝트, 사육장 건축, 소금용 시스템 구축, 농업 종사자 연수 등이 예정 |
| 사업 주체           | 프로젝트 기술 파트너 코트디부아르 농촌진흥청(Agence nationale d'appui au développement rural; ANADER)과 한국 농어촌 공사(KRC)가 프로젝트 실행    |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제4장

### KOICA의 코트디부아르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1. 코트디부아르 국가의 특징

#### 가. 경제사회적 개발과제

코트디부아르는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가적 개발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내전 영향지역의 기초서비스 접근성 미비
-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정부행정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 미흡
- 아비장의 도시화에 따른 낙후된 인프라 및 환경문제
- 서아프리카 지역 물류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내전 영향지역의 기초서비스 접근성 약화

코트디부아르의 장기내전으로 인하여 특히 아비장과 서북부지역의 식수 및 위생시설 사용이 어려워지며, 영양문제가 심화되었고 모자보건 상태도 악화되었다. 또한, 학교와 병원이 붕괴되거나 폐쇄되고 인력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는 등 기초 사회접근성이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내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식수위생, 보건 및 교육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통합 및 공동체 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정부행정

내전의 영향으로 행정시스템의 붕괴 및 자료 유실과 부패가 심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의 거버넌스가 악화되었다. 기존 행정문서가 대부분 전자화 되어있지 않아 손실이 컸으며, 급증하는 외국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및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촉진을 가속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코트디

부아르는 국가 차원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공공행정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 미흡

코트디부아르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기업들의 양질의 인력확보 어려움이라는 2개의 상반된 노동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급증하여 현재 청년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내전을 거치며 제대로 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해 인력공급 측면에서 기업체는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잉여 노동인구를 산업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훈련하는 제도 및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 및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비장의 도시화에 따른 낙후된 인프라 및 환경문제

아비장은 현재 국가 전체 인구의 20%인 430만명의 인구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국제기구 등이 계속해서 아비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향후에도 아비장의 도시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비장의 도시인프라 규모나 서비스는 증가하는 도시인구에 대응할 만큼 발전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상하수도 관리 및 폐기물 관리 역시 인구대비 적절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비장이 안정적으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상하수도·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multi-sector)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통합적 도시관리가 요구된다.

#### 서아프리카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비록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역할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비장 항의 물류량이나 주변 국가와의 내륙 운송량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비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모와 서비스를 갖춘 물류운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서아프리카 내 Logistics Hub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로 및 철도의 경우, 주변 내륙 국가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항만 및 항공의 경우, 국제적 규모 및 서비스로 확장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정부의 확고한 개발 및 적극적 협력의지

와타라 대통령과 현 내각은 2012년에 발표한 1차 국가개발전략(PND)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 2차 PND를 수립중에 있다. 국제사회는 코트디부아르 경제와 와타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 가고 있으며, 2014년 7월 중에는 7.5억불의 국채 발행이 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 2월에는 10억불의 국채발행이 4:1의 경쟁률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PND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은 상당부분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의료, 교육, 농업 등 주요 개발분야 별로 PND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방문 시 진행했던 부처별 미팅 과정에서 각 부처 고위인사가 PND 및 분야전략의 핵심 내용 전달과 함께 이에 근거한 KOICA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등, 정부 내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다. 서아프리카 불어권 경제협력 중심지

코트디부아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양자 및 다자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AFD, USAID, EU, World Bank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의 수립에 맞춰 차기 국가협력전략(CPS)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전기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에서 대규모 인프라 지원예산을 마련,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자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고, 다국적 제약업체인 Bayer는 지역 HQ를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USAID 등은 내전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원규모 및 사무소의 역할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원조기관이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의 확대기조에 맞추어 자국의 민간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느껴졌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코트디부아르 지원 기본방향

앞에서 서술한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KOICA에서는 코트디부아르의 내전 후 국가재건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협력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내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식수위생, 기초교육 등 사회간접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이를 통한 커뮤니티 재건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거 10년 내전 기간을 거치면서 해당지역의 빈곤율이 상승하고 기아인구가 증대한 점 등을 고려 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공공행정과 아비장 도시인프라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전자정부 운영경험 및 대도시 관리 능력이 풍부한 우리의 공급능력을 고려 시 코트디부아르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아프리카에서 중요한 경제거점으로 재부상할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차기 중점협력국 정도의 위상을 고려,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과 사무소 역량구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가. 내전 후 커뮤니티 재건 및 인적자원 육성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은 현재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국가 거버넌스 운영 및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내전 동안 국민의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주었다. 특히 내전이 격화되었던 아비장 및 서북부 지역의 경우, 사회인프라 전반이 무너지며 이에 공동체 붕괴의 위기까지 안고 있다.

이에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가 경제회복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으로 국가발전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분야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와타라 대통령은 2015.3월 국제아프리카 포럼에서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교육·보건의료

등 사회개발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KOICA는 내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식수위생, 보건 및 교육 등 기초 사회부문 발전역량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해당국 정부 핵심과제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전으로 교육받지 못한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KOICA가 청년 인구를 산업 및 기업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경우, 코트디부아르의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나. 공공행정 및 도시인프라 현대화

코트디부아르 공공행정 및 도시인프라는 내전의 영향으로 손실되거나 낙후되어 국가 재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행정의 경우, 행정시스템의 붕괴 및 자료손실, 비즈니스 환경 및 행정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고, 아비장 등 주요 대도시의 인프라 역시 내전으로 인해 낙후되거나 증가하는 수요에 미처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코트디부아르의 안정적인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및 도시인프라 전반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공공행정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화, 투명성 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보화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아비장의 안정적인 도시화를 위해 보건, 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multi-sector)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통합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향후 KOICA가 코트디부아르 공공행정 및 도시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한다면, 안정적인 국가 재건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협력국 위상을 중점국 수준으로 확대

UEMOA 최대의 경제국인 코트디부아르는 내전 종식에 따른 안정화로 서아프리카 물류 Hub의 전략적 위상을 빠르게 회복중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현 와타라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및 평화민주주의 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금년 10월에 있을 대선에서 무난히 재임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트디부아르는 이런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향후 5년 간

7-8%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서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전망에서, AFD, USAID, EU, World Bank 등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는 對코트디부아르 지원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월 중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방한에 따라 양국 정상이 통상·투자·인프라·에너지·농업·교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양국간 협력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역내 전략적 위상, 정부의 안정적 리더십, 급속한 경제성장 전망 및 여타 공여기관의 지원확대 동향, 양국 간 고위 협력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코트디부아르의 협력국 위상은 향후 중점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카 중점 협력국 지정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현지 사무소의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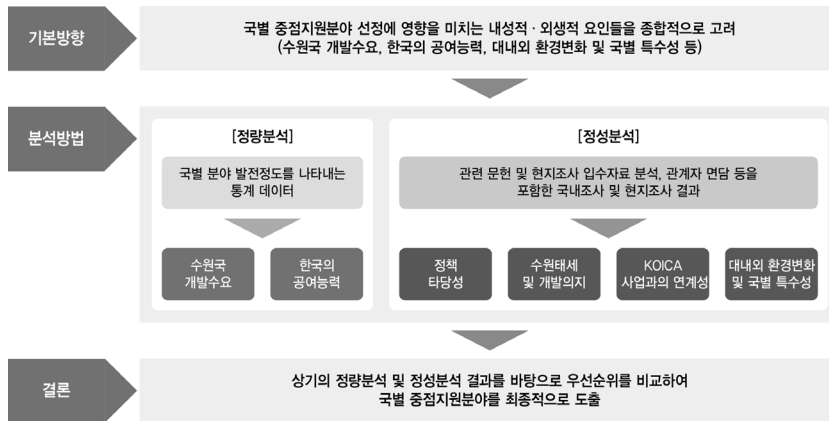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국의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선별·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총 6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이는 KOICA의 사업분야<sup>61)</sup>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산업에너지의 경우,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고 있어 이 중 인프라(교통, 통신 등)는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범분야와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모든 분야 및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함께 고려하였다.

상기의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지표를 선정하고,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정량 분석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를 측정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산한 분야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별 중점지원 분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61) KOICA 7대 사업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성평등, ICT, 인권), 기후변화대응이다.(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 나. 정량분석

###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 활용된 정량분석 방법론은 아프리카 협력분야 선정 관련 기존 선행연구<sup>62)</sup>에서 사용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수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역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적 협력분야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간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gap)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존 ODA관련 타 연구들과는 달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상기 6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분야별 지수값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야별 지수값은 벤치마킹 국가의 지수값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 격차 및 핵심 성장요인으로서의 잠재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역시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비교하여,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 차이를 분석했다.

62)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 2) 분야별 지표 및 비교대상국 선정

박영호 외(201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환경수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그리고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ex, 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6개 분야별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분석에 사용된 지표의 선정 근거와 각 지표별 자료 출처는 [표]와 같으며, 상세한 지표구성 및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1> 분야별 세부 지표 및 데이터 출처

| 분야    | 세부 지표                       | 데이터 출처          |
|-------|-----------------------------|-----------------|
| 교육    | 교육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 GCI, HDI        |
| 보건의료  |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 GCI, HDI, WHO   |
| 농림수산  | 관개화율, 농업 생산성과 경제 기여도        | GCI, WDI, FAO   |
| 공공행정  | 정부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안정성         | GCI             |
| 산업에너지 | 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에너지 수급 환경    | GCI, WDI, UNIDO |
| 인프라   |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보급률 및 발전 정도     | GCI, WDI, ITU   |

한편,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있기에, 분야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데이터를 같은 범위로 표준화하고 이를 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그 외 데이터들 역시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야별 발전정도는 수원국 대비 다음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 국가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상대적 발전 격차를 측정하였다. 세계 경제포럼(WEF)은 『세계 경쟁력 지수(GCI)보고서』를 통해 국가들의 경제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국 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 구분         | 1단계:<br>요소주도<br>경제단계<br>(1.0)                              | 이행단계:<br>1단계 →<br>2단계<br>(1.5)                                              | 2단계:<br>효율성 주도<br>경제단계<br>(2.0)                              | 이행단계:<br>2단계 →<br>3단계<br>(2.5)                               | 3단계:<br>혁신주도<br>경제단계<br>(3.0)                                                   |
|------------|------------------------------------------------------------|-----------------------------------------------------------------------------|--------------------------------------------------------------|--------------------------------------------------------------|---------------------------------------------------------------------------------|
| 국가<br>(예시) | 방글라데시,<br>브룬디, 차드,<br>세네갈,<br>에티오피아,<br>인도, 말라위,<br>코트디부아르 | 알제리,<br>앙골라,<br>볼리비아,<br>보츠와나,<br>가봉,<br>온두라스,<br>몽골, 필리핀,<br>리비아,<br>베네수엘라 | 중국,<br>콜롬비아,<br>이집트,<br>자메이카,<br>요르단,<br>모로코, 페루,<br>태국, 튀니지 | 아르헨티나,<br>헝가리,<br>브라질,<br>카자흐스탄,<br>말레이시아,<br>오만, 터키,<br>UAE | 호주, 벨기에,<br>캐나다,<br>프랑스, 홍콩,<br>한국, 일본,<br>미국,<br>노르웨이,<br>카타르,<br>싱가포르,<br>스웨덴 |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4)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 분석대상국가(발전단계) | 비교대상국가(발전단계)                  |
|--------------|-------------------------------|
| 알제리(1.5)     | 이집트(2.0), 자메이카(2.0), 모로코(2.0) |
| 모로코(2.0)     | UAE(2.5), 터키(2.5), 오만(2.5)    |
| 튀니지(2.0)     | UAE(2.5), 터키(2.5), 오만(2.5)    |
| 세네갈(1.0)     |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
| 코트디부아르(1.0)  |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

### 3) 수원국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우선 수원국 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벤치마킹 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1]을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때, 벤치마킹 대상국이 2개국 이상이므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 간의 이질성에 따른 이상 값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발수요 지수값은 벤치마킹 대상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해당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부문이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N_{ci} = \left( \frac{G_{ci} - \overline{E_c}}{\sigma_c} \right) + 4$$

$G_{ci}$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대상국가  $i$ 분야 지수의 값

$\overline{E_c}$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대상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값의 합  
(협력가능 분야 개수)

$\sigma_c$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국가 간 6개 협력가능 분야 값의 표준편차

다음으로 한국 공여능력 지수값 산출을 위해, 연구대상국의 지수값과 한국의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2]를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여능력 지수값은 수원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이는 분야별 한국의 상대적 공급역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S_{ci} = \left( \frac{G_{ci} - \overline{E_c}}{\sigma_c} \right) + 4$$

$G_{ci}$  =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i$ 분야 지수의 값

$\overline{E_c}$  =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값의 합  
(협력 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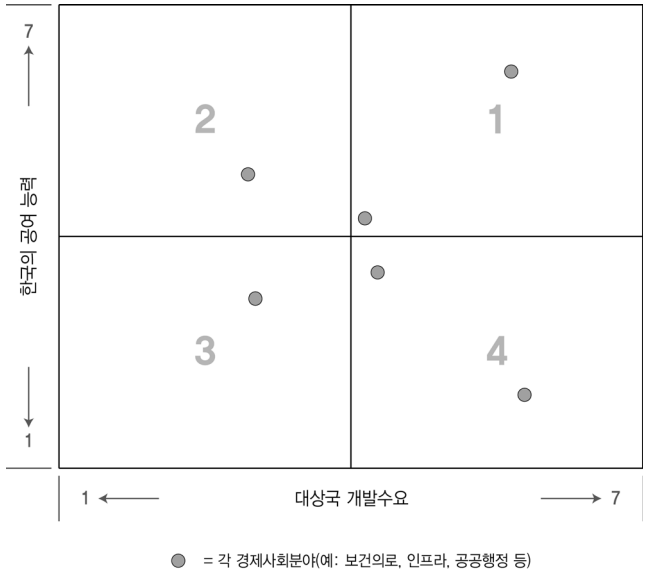
$\sigma_c$  = 연구대상국과 한국 간 6개 협력가능분야 값의 표준편차

#### 4) 중점지원 분야 도출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중점지원 분야란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이 동시에 충족되는 영역으로, 상기 산식을 통해 산출된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 지수값과 한국의 공여능력 지수값을 동시에 비교하여 도출 가능하다. 이는 [그림]과 같은 사사분면 공간 배치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후 최종 중점지원 분야 선정 시 정성분석 결과와의 합산을 위해, 개발 수요 지수값과 공여능력 지수값에 각각 가중치 50%를 곱해 합산한 최종 지수값 결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측정한다.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 주: 제1사분면: 최적 개발협력 분야  
 제2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는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  
 제3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도 없으며 한국의 역량도 없는 분야  
 제4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 충족에는 필요하나 한국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

다. 정성분석

1)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 자료로 쓰인 분야별 데이터들이 과거 특정 시점에만 집중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만으로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을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국의 개발수요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량분석을 통해서만 분야별 상대적 발전격차만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수요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연구대상국의 정책적 의지 및 수원태세, 실제 분야별 개발 수요와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헌조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및 개발의지 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분석만으로는 KOICA와 연구대상국 간의 기존 협력관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없다. 연구대상국에 대한 KOICA의 원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미 현지 대사관 및 주재원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협력관계 및 사업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공여능력을 기증증한 결과일 뿐 아니라, 향후 KOICA의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국의 개발의지나 우리와의 기존 협력관계와 별개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정세 변화 등 국별로 ODA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구대상국별로 고려한 특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 연구대상국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
|----------|-------------------------------------------|
| 알제리      |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수요                             |
| 모로코, 튀니지 | 북아프리카 민주화                                 |
| 세네갈      | 사헬(Sahel) 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
| 코트디부아르   |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량분석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및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량분석과의 결과 합산 및 편의를 위해 분야별 점수를 계량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분석 대상

우선 수원국 정책타당성은 국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야별 발전의 중요성 및 정책 반영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KOICA 지원의 지속가능성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발전전략(NDS)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섹터별 전략, 지역협력기구 전략 및 정책적 담화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평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의 경우, 현지조사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지 정부 부처별 실제 지원요청 여부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KOICA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사업 추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OICA와의 사업 연계성은 기존 지원현황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평점을 매겼다.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와의 면담과 입수자료를 통해 분야별 기진행 사업 및 예정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된 분야를 분석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검증된 분야도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및 KOICA 사업과의 연계성과는 별개로, ODA 사업 진행 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국제적 환경 변화 및 특수 요소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 3) 중점지원 분야 도출

상기 4개에 대한 분야별 점수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수행한 국별 연구진이 리커트 5점 척도<sup>63)</sup>를 사용하여 평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했다. 더불어 각 지표마다 본 연구에 고려해야할 필요성 및 중요도가 다르므로 지표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과소·과대평가의

---

63)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척도로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채택된 방법이며, 1점(매우 낮음)과 5점(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함.

가능성을 보완하여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표별 평점 및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점수를 결과로서 도출하고, 분야별로 최종 값을 비교하여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게 되었다. 아래 [표]는 정성분석에 사용된 지표 및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 분석 지표                                                                                                                                         | 가중치  |
|-----------------------------------------------------------------------------------------------------------------------------------------------|------|
| 국가발전계획(NDS) 및 정책과의 부합성(정책 타당성)<br>- 국가발전계획(NDS) 및 주요 현안<br>- 섹터별 전략<br>- 지역협력기구 전략                                                            | 0.25 |
| 해당부처 지원요청 및 수원태세 정도(수원태세 및 개발의지)<br>-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 결과                                                                                        | 0.15 |
| KOICA 사업과의 연계성<br>- 기존 지원현황<br>- 향후 지원계획                                                                                                      | 0.40 |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br>※예: 알제리-북아프리카 민주화, 국내기업 진출수요<br>튀니지/모로코-북아프리카 민주화<br>세네갈-사헬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br>코트디부아르-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 0.20 |

#### 라. 종합결과 분석 및 중점지원 분야 최종 도출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은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정량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7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되었으나, 정성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5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는 등 척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두 분석 결과를 종합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값을 각각 5점 기준으로 표준화<sup>64)</sup>하였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간 가중치는 각각 30:70으로 산정하여 합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정량분석이 과거의 한 시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 데 반해, 현지 방문을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실제적인 수요, 기존 KOICA 추진사업 및 계획과의 연계성, 국별 특

64) 7점 기준의 값을  $\alpha$ 라고 했을 때, 산식 $(2\alpha+1)/3$ 을 통해 5점 등간척도의 값으로 표준화함.

수성 등 현지의 최신 동향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분석의 특성 상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 활용 시, 분야별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최종 지수값이 산출되며, 이를 비교하여 분야 간 우선순위를 도출해낼 수 있다.

####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text{분야별 최종 지수값} = (\text{분야별 정량 표준지수} \times 30\%) + (\text{분야별 정성 표준지수} \times 70\%)$$

## 2. 분석 결과

### 가. 정량분석 결과

수원국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의 경우, 보건의료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교육 순이었다.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모성사망률, 유아사망률, 결핵 및 HIV/AIDS 등의 지표에서 벤치마킹 국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여능력에 대한 정량분석의 경우, 산업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순이었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기술수준, 발전량 등이 코트디부아르 대비 상대적으로 타 분야 발전차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국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국 개발수요도 높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높은 분야는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그리고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정량분석 결과

| 분야/지표 | 코트디부아르<br>개발수요 | 한국의<br>공여능력 | 합계   | 우선순위 |
|-------|----------------|-------------|------|------|
| 가중치   | (50%)          | (50%)       |      |      |
| 교육    | 3.93           | 4.05        | 3.99 | 3    |
| 보건의료  | 5.55           | 4.85        | 5.20 | 1    |
| 농림수산  | 2.32           | 3.38        | 2.85 | 6    |
| 공공행정  | 4.11           | 2.29        | 3.20 | 5    |
| 산업에너지 | 4.09           | 5.24        | 4.66 | 2    |
| 인프라   | 3.39           | 4.53        | 3.96 | 4    |

자료: 연구진 분석

#### 나. 정성분석 결과<sup>65)</sup>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와의 사업연계성 및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별 특수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인프라, 공공행정,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10년 간 내전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해졌고, 현지 면담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개발의지 및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KOICA에서 최근 10년 내 부롤리궤양, 말라리아 예방 및 누관치료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한 점, 향후 예정사업으로 누관치료 2차사업 및 식수위생 사업을 고려 중인 점,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 따른 대응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우선 지원 분야로 도출되었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내전으로 전국적인 인프라 복구 및 아비장 도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점, 주무 부처인 경제인프라부의 적극적인 수원태세, 향후 예정사업으로 아비장 교통시스템 개선 관련 프로젝트가 확정된 점, 역내 경제거점 구축에 따른 물류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순위로 선정되었다.

65) 분야별로 보다 세부적인 정성분석의 근거는 [부록2]를 참고하기 바람.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행정전산화 및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필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관련 협력의사가 높았던 점, 향후 예정사업으로 공공행정부와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점, 에볼라 방지 및 경제거점 구축을 위해 공공행정 강화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3순위로 선정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내전지를 중심으로 교육접근성 강화 및 청년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았고, 부처 면담과정에서 개발의지와 협력의사가 높은 점이 확인되었으나, 과거 KOICA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수 없고 해당 사업이 범분야에 해당되어 교육 분야의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은 아닌 점 등이 고려되어 4순위로 선정되었다.

<표 4-7> 정성분석 결과

| 지표<br>분야 | 수원국 개발 수요 |           | KOICA<br>사업과의<br>연계성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 | 합계   | 우선<br>순위 |
|----------|-----------|-----------|----------------------|-------------------------|------|----------|
|          | 정책<br>타당성 | 현지<br>실수요 |                      |                         |      |          |
| 가중치      | (25%)     | (15%)     | (40%)                | (20%)                   |      |          |
| 교육       | 5         | 4         | 3                    | 3                       | 3.65 | 4        |
| 보건의료     | 5         | 5         | 5                    | 5                       | 5.00 | 1        |
| 농림수산     | 3         | 2         | 1                    | 2                       | 1.85 | 6        |
| 공공행정     | 4         | 5         | 4                    | 4                       | 4.15 | 3        |
| 산업에너지    | 4         | 2         | 1                    | 5                       | 2.70 | 5        |
| 인프라      | 4         | 4         | 4                    | 5                       | 4.20 | 2        |

자료: 연구진 분석

#### 다. 종합분석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친 종합결과를 보면 보건의료가 1순위, 인프라가 2순위, 기타 공공행정, 교육 순으로 중점 협력분야가 도출되었다.

<표 4-8> 종합분석 결과

| 구분<br>분야 | 지표    | 정량분석(30%)   |                     | 정성분석(70%)   |                     | 최종 종합(100%)                  |          |
|----------|-------|-------------|---------------------|-------------|---------------------|------------------------------|----------|
|          |       | 평점<br>(1-7) | 표준화<br>지수<br>(5점기준) | 평점<br>(1-5) | 표준화<br>지수<br>(5점기준) | 종합 평점<br>(정성 70%+<br>정량 30%) | 우선<br>순위 |
|          | 교육    | 3.99        | 2.99                | 3.65        | 3.65                | 3.45                         | 4        |
|          | 보건의료  | 5.20        | 3.80                | 5.00        | 5.00                | 4.64                         | 1        |
|          | 농림수산  | 2.85        | 2.23                | 1.85        | 1.85                | 1.97                         | 6        |
|          | 공공행정  | 3.20        | 2.47                | 4.15        | 4.15                | 3.65                         | 3        |
|          | 산업에너지 | 4.66        | 3.44                | 2.70        | 2.70                | 2.92                         | 5        |
|          | 인프라   | 3.96        | 2.97                | 4.20        | 4.20                | 3.83                         | 2        |

자료: 연구진 분석

##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 1.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는 모자사망률, 전염병 발병률, 의료인력수, 병상 수 등 각종 지표에 근거한 정량분석 결과와 현지에서 확인한 개발수요 및 의지, 기존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에볼라 대응 등 지역적 특수요인 등을 고려한 정성분석 결과, 공통으로 1순위로 도출된 중점지원 분야이다. 해당 분야에서는 내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형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과 기초 의료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을 KOICA의 우선추진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모자보건의 경우, 최근 10년간 큰 개선없이 MDG 목표와 격차가 많은 상황이며, 안전식수 및 위생 접근율도 오히려 퇴보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내 전국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도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1차 의료기관인 ESPC(보건소)에서 근무할 간호사 및 산파(midwife)의 양성 및 교육은 모자보건을 위한 기본 역량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지원 프로그램이다.

#### 가. 지역개발형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

코트디부아르는 아비장과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전 피해지역과 오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사회 서비스 및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 보다는 내전 피해지역에서의 지역개발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ICA의 경우 2차에 걸쳐서 아비장과 인근 내전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초등학교 건립, 보건소 개선, 식수용 관정 설치, 화장실 개선 등 주민주도형(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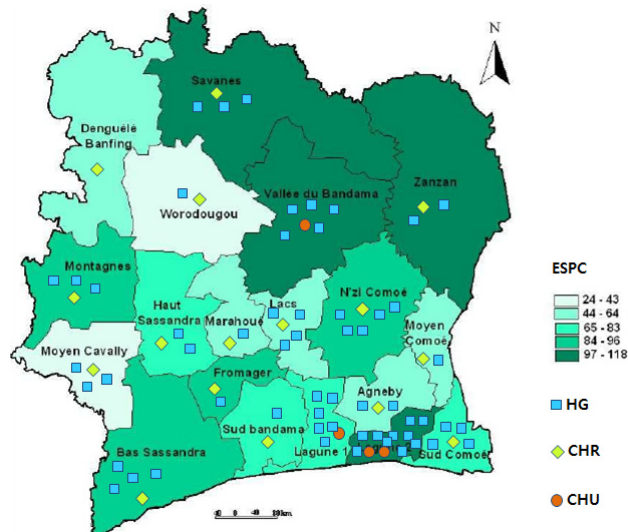
모자보건 지원과 관련해서는 2차 의료기관(Hospital General 및 CHR) 내 출산분만 관련 시술설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다. 누관치료, 제왕절개 등 출산 및 분

만과정에서 모자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내전 피해지역 내 2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시설개선, 기자재 지급,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전 중 서북부 지역 학교의 90% 가량이 폐쇄되는 등 서북부 지역의 교육시설 및 인프라가 크게 손실되고, 상당수 교사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많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동 지역의 초등학교를 확충하여 기초 교육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건분야 지원과 함께 지역 개발형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추진 지역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취약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취약지역은 아비장과 부아케, 산페드로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과 내전 피해지역인 코트디부아르 서부의 Tonkpi, Cavally, Guemon, Haut-Sassandra, 북부의 Poro, Tchologo, Bagoue 주가 해당된다. 특히 서부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부아케의 경우 아비장을 제외하곤 유일한 3차 의료기관(CHU)을 보유한 보건의료 중점도시로서 사업추진 시 고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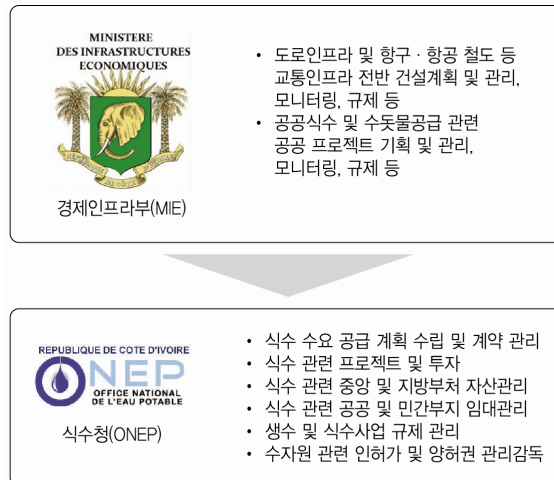
[그림 4-3] 코트디부아르 의료기관 분포지도(2008)



자료: 보건위생부(2010) Carte Sanitaire 2008 de la Côte d'Ivoire

모자보건 사업의 경우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식수 사업의 경우 경제인프라부 소관으로서 산하의 식수담당 국가기관인 ONEP가 실행기관으로서 관여되어 있다.

[그림 4-4] 식수공급 관련 유관부처 및 실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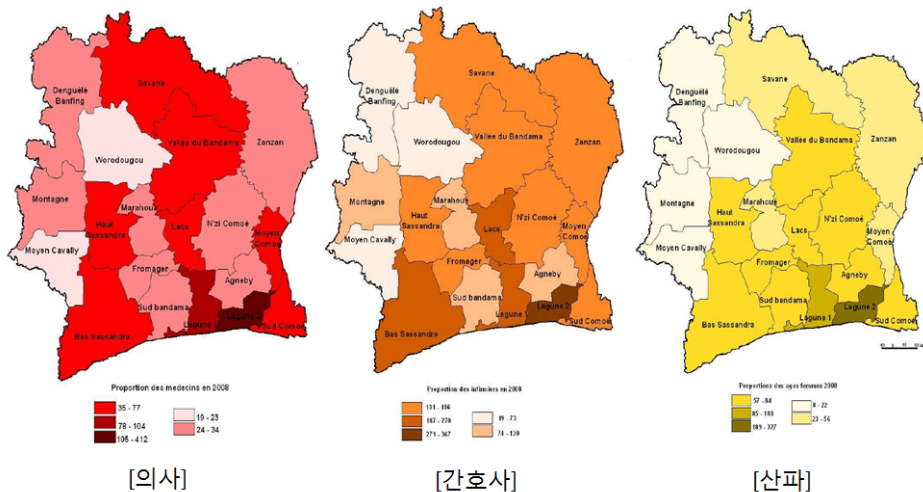
자료: 경제인프라부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코트디부아르 서북부 지역의 경우 치안이 불안정하고, 언어적인 어려움 및 한국과의 보건의료시스템 차이 등의 이유로 KOICA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기 보다는 UNFPA, AFD 등 Multi/Bi 기관과의 협력 또는 현지에서 사업경험이 풍부한 INGO와의 협력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KOICA의 경우, UNFPA와 함께 부아케 및 북부 코로고 시에서의 누관치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후속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JICA의 경우 내륙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시 UN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AFD의 경우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ECHO(유럽 인도적지원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4개의 INGO와 협력하고 있다. 지역별 협력기관은 아비장의 경우 Terre des Hommes Italia, 산페드로의 경우 Medecins du Monde(MdM), Tonkpi의 경우 IRC, Cavally-Guemon의 경우 CRF이다.

## 나. 기초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 사업

모자보건을 위한 인력양성에 있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와 산파의 양성과 교육이 절대적이다. WHO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인구 1만명 당 의사수 1.4명, 간호사 및 산파수 4.8명으로서 아프리카 평균치인 의사 2.7명, 간호사 및 산파 12.4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sup>66)</sup> 코트디부아르의 지역별 의사, 간호사 및 산파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심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서북부지역의 간호사와 산파양성 및 파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코트디부아르 지역별 의사, 간호사 및 산파 분포현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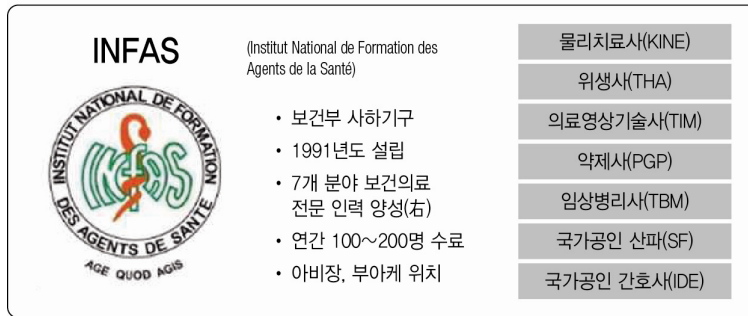


자료: 보건위생부(2010) Carte Sanitaire 2008 de la Côte d'Ivoire

간호사와 산파는 코트디부아르의 모자보건 인력양성기관인 INFAS에의 지원을 통하여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현재 INFAS는 아비장과 부아케 2곳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물리치료사, 위생사, 국가공인 산파 및 간호사 등 7개 분야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66) WHO. 2015.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그림 4-6] INFAS 개요



자료: INFAS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유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ICA 및 AFD와의 협력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JICA는 11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와 간호사 및 산파 교사 훈련사업(2013-2017)을 통해 불어권 아프리카 내 기초보건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AFD는 INFAS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9> JICA의 불어권 아프리카 보건분야 인력양성 사업 개요

|         |                                                                                                                                                                              |
|---------|------------------------------------------------------------------------------------------------------------------------------------------------------------------------------|
| 사업명     |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간호사 및 산파 양성학교 교사 역량 강화 2차 연수(Stage d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s Enseignants des Ecoles d'Infirmiers et Sages-femmes des Pays Francophones d'Afrique Phase 2) |
| 사업 기간   | 2013-2017년(5년)                                                                                                                                                               |
| 사업지     |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DR콩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토고 등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11개국                                                                                                 |
| 사업 목적   |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보건분야 전문 교사 양성                                                                                                                                                    |
| 사업 구성요소 | 기술협력: 간호 및 산파 양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교수법, 품질관리, 실험, 공중보건 등 5개 분야의 교수법 및 기술 이전                                                                                                     |
| 기대효과    | - 인적자원 문제 해결방안 도출<br>- 유능한 보건 전문가 양성<br>- MDG 달성에 기여<br>- 삼각협력 및 일본-아프리카 협력 도모                                                                                               |

주: JICA는 2008-2012년 ECOWAS 회원국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하여 세네갈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ction Sociale) 및 서아프리카 보건기구(Organisation Ouest Africaine de la Santé)와 협력함

자료: JICA. 재구성

## 2. 인프라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은 인구 포화, 내전으로 인해 낙후된 인프라와 다양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 도시 마스터플랜은 1994년도에 수립된 것으로서 아비장 인구 3.5백만명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현재 아비장의 인구는 당시 인구의 2배 정도로서 향후 2050년에는 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아비장 도시의 도로, 교통, 주택, 전력,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도시인프라 전반에 대한 복구 및 확충이 시급하다.

JICA에서는 2013-2016 간 아비장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Project of the Development of Urban Master Plan in Greater Abidjan)를 코트디부아르 건설주택위생 및 도시개발부(MCLAU)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함께 아비장의 Solibra 고가도로 건설, 아비장 곡물항만 확장, 도시지형정보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KOICA에서는 JICA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공급능력이 우수한 도로교통시스템 개선, 상하수도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간 KOICA에서 추진한 도로시스템 개선, 폐기물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10> 도로시스템,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KOICA 기존사업 내역  
(최근 10년 기준)

| 세부 분야     | 사업명(기간/예산)                                          |
|-----------|-----------------------------------------------------|
| 도로 시스템 개선 | 이라크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2005-06/5,430,922,275원)             |
|           |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 정보전산화사업(2013/257,674,543원)        |
|           | 카메룬 야운데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사업(2012/14,745,594원)             |
|           | 스리랑카 콜롬보 첨단 교통관리시스템구축 기술지원 사업(2013/828,034,094원)    |
|           | 가나 아크라시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659,202원)           |
|           |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2013/2,050,721,112원)        |
| 폐기물 처리    | 베트남 산업폐수처리 역량강화 프로젝트(2007/877,614,004원)             |
|           | 이집트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사업(2007-10/2,622,840,045원)           |
|           | 베트남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사업(2009-13/3,197,688,082원) |

| 세부 분야 | 사업명(기간/예산)                                         |
|-------|----------------------------------------------------|
|       | 몽골 울란바타르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사업(2013/9,572,000원)             |
|       | 스리랑카 콜롬보지역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2013/1,271,761,603원)   |
|       | 파키스탄 편잡주 고품폐기물관리 공동조사(2006/198,531,112원)           |
|       | 인도네시아 고품폐기물처리 타당성조사 및 상세설계사업(2013/955,196,653원)    |
| 상하수도  | 케냐 아שמ보 정수장 건립 및 상수도 개보수사업(2007-08/2,412,681,057원) |
|       | 이라크 아르빌 상수도침사지설치사업(2009-10/3,947,469,444원)         |
|       | 파키스탄 편잡지역 폐하수처리 및 식수공급사업(2011-13/3,240,945,824원)   |
|       | 라오스 우돔사이주 싸이군 상수도 공급사업(2013/470,743,613원)          |
|       | 파키스탄 카수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2012-13/47,355,383원)        |
|       | 페루 식수개발 및 상수도설치 타당성조사사업(2004-06/773,546,946원)      |
|       |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07-08/900,669,286원)  |
|       | 아제르바이잔 압세론 수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설계(2008-09/841,817,412원)  |

주: 2013년도까지의 KOICA 실적통계를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지출액은 2013년도까지의 집행금액의 총계임

자료: KOICA 실적통계

#### 가.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사업

도로의 경우, 아비장 내 주거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제한적이며, 관련 교량이 아직 건축 중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아비장 시내 및 공항 연계도로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교통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간대 별로 혼잡도에 따른 도로교통 관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비장 시내의 도로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형 변경 등 몇 가지 대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연계한 방식의 사업 추진은 매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 상 도로시스템 개선 컨설팅(DEEP)과 시범사업을 엮은 형태의 사업방식은 KOICA가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내기에 유리한 형태이다. 향후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서 교통관제센터(ITS) 구축 등의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도로시스템 개선사업의 유관 부처로는 경제인프라부와 교통부가 있으며, 각 기관의 소관업무 및 산하기관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7] 경제인프라부 및 교통부 소관업무 및 산하기관 편제



자료: 경제인프라부 및 교통부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를 수행한 JICA 및 유사 경험이 풍부한 WB, EU, AFD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J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비장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팀과의 협조를 통해 선행연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참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도로교통 개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WB, EU, AFD 등을 통해 현지 적격 엔지니어링 업체 및 시공업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건축사업 진행 시 최근 공사물량 급증에 따라 각종 전자재, 건축장비 및 기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관련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여유 있는 사업시행과 예비비 책정이 요구된다.

#### 나. 아비장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도로와 함께 아비장 내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부문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도시 곳곳의 나대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병해충 및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식수위생 환경도 매우 좋지 않다. 아비장의 인구는 2050년까지 천만명

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Yopougon, Abobo, Adjame 등 산업주거 밀집지역과 Cocody 등 신시가지는 인구비율도 높고, 쓰레기 수집량도 높은 실정이다.

현재 아비장 내 생활폐기물은 약 200만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수집률은 50-65%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미비 및 관리기구의 역량미비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비장 내 유일한 쓰레기 소각장이 2014년 10월 폐쇄된 이후에도 소각장 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점 등 즉각적인 폐기물 관련 대응이 필요하며, KOICA는 현 생활폐기물 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개발조사 및 시범사업의 추진과 실행기관인 ANASUR의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비장 시의 폐기물 처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4-8] 코트디부아르 폐기물 관련 유관부처 및 실행기관



자료: ANASUR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도시 내 상하수도 설비도 전반적인 개선 및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비장의 하수처리 시스템은 1970년/80년대에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2009년 IMF의 빈곤극복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아비장 도시 내 하수처리장 23km<sup>2</sup> 및 2,000km에 달하는 하수처리 네트워크, 51개의 펌프 및 사전처리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 분야에서도 현재 하수처리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DEEP)과 시범사업 형태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실행기관인 ONAD의 역량강화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코트디부아르 상하수도 유관부처 및 실행기관



자료: SODECI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개선과 관련해서 세계은행 2008년부터 추진된 PUIUR 사업을 통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아비장외의 도시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였다.

[글상자 4-4] 세계은행의 PUIUR 사업 개요

- 사업명: 도시 인프라 긴급 재건 프로그램(RCI- Emergency Urban Infrastructure)
- 사업 목표: Abidjan 및 Bouaké 지역의 인프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접근성 개선
- 사업 기간: 2008년 6월 - 2014년 3월
- 사업 예산: 총 1억 4,400만 달러(IDA측의 무상증여로 진행되었으며, 추가 지원된 금액 합산임)
- 사업 지역: Abidjan, Bouaké, Korhogo, Man, Agboville, Assini, Tinho(Bloléquin), Mayo(Soubré), Attigué(Tiassalé) Divo, Daloa 및 San Pedro.
- 사업 내용: 도시 수자원공급, 도시 위생, 고체 폐기물 관리, 도시 내 도로 재건, 지역사회활동 지원

본 프로그램은 World Bank와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라 부 간의 협력 사업으로써, 국가 내 주요 도시인 Abidjan 및 Bouake의 사회 인프라·서비스 재건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국가 내전으로 인해 도시 내 인프라가 파괴되고 북부의 난민들이 대거 남부지역의 주요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사회 인프라·서비스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총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본 사업이 2008년에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PUIUR 세부 사업내용>**

|             | 예산    | 사업 내용                                                                                                                                                                                         | 효과                                         |
|-------------|-------|-----------------------------------------------------------------------------------------------------------------------------------------------------------------------------------------------|--------------------------------------------|
| 도시 수자원 공급   | 40.00 | 1) 관정 및 수자원 처리시설 확장<br>2) 배급수관망 확대(Djibi 및 Petit Bassam 지역)<br>3) 수도공급 불가 지역 내 금수탑 설치<br>4) 학교, 병원 등에 급수 지원                                                                                   | 개선된 수자원<br>이용인구:180%달성<br>수자원 이용시간: 100%달성 |
| 도시 위생       | 27.20 | 1) 양수장 재건(Abobo, Marcory, Cocody, Koumassi, Marcory 및 Treichville 지역)<br>2) 하수처리장 재건(Koumassidigue 지역)<br>3) 저집기를 이용한 지역 내 하수의 2차 처리 강화(Abobo, Adjame, Treichville 지역)                        | 개선된 위생시설<br>이용인구: 120%달성                   |
| 고체 폐기물 관리   | 19.96 | 1) 무단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clean city 프로그램<br>2) Willamsville 폐기물 처리시설 재건<br>3)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 실시<br>4)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지원<br>5) 폐기물 소각 인근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학교 및 의료시설 신축(Akoudeo 지역)<br>6) 고체 폐기물 관리시설 재건 | 정기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구: 112.5% 달성              |
| 도시 내 도로 재건  | 47.00 | 1) 운영 중단된 도로 재건<br>2)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및 도로 재정비<br>3) 보행자 도로 공사<br>4)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및 교량 공사<br>5) 도로표지판 및 도색 공사<br>6) Bouaké 지역 도로 재건 공사<br>7) Abidjan 내 혼잡지역 도로 재정비                            | 반경 500m 내 설치된 도로 이용가능 인구: 115% 달성          |
| 지역 사회 활동 지원 | 7.00  | 1) 지역사업 10개 선정 후 지원                                                                                                                                                                           | 직접수혜자 중 여성 인구: 125% 달성                     |

주: 프로젝트 관리로 284만 달러 사용

내전지역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긴급하게 지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기존 대비 모든 부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의 바탕에는 전문성을 갖춘 TTL(Task Team Leader) 중심의 전문화 된 사업 팀 구성,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체계 구성은 단순 긴급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사업요소와 관련하여, 고체 폐기물 관리사업을 실행할 때 지역 인근에서 방문하는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문제로 인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사업 실행하는데 있어 관련 시설 및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지역외 거주자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노출 빈도를 높여 지역 환경 개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도공급 불가 지역에 금수탑 설치를 할 경우,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법 수자원 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해야 하며 마을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세워져야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학습이 있었다.

아비장 내 도로공사 현장



자료: APA. 2014. "Pus de 30 milliards de FCFA investis pour améliorer et renforcer la voirie à Abidjan(PUIUR)". <http://www.rti.ci/actualite-8883-pus-de-30-milliards-de-fcfa-investis-pour-ameliorer-et-renforcer-la-voirie-a-abidjan-puiur.html>.(2015.06.09.)

자료: Diop, Makhtar et al. 2015.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 3. 기타 분야

#### 가. 공공행정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을 겪으며 행정자료 및 데이터 소실이 발생하고 거버넌스 운영방식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치적 안정 회복 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범정부적인 e-Governmen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행정전산화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보화 및 e-Government와 관련해서는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이 아직 미비하며, 현지에서는 KOICA와의 협력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지난 KOICA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통해 120,000명 규모의 교육부 직원 간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높은 개발수요와 협조적 수원태세를 바탕으로 e-Government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 타 부처 인트라넷 구축 및 중앙·지방 정부 간 인트라넷 확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적 e-Government 사업의 경우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및 Action Plan 마련과 같은 컨설팅(DEEP)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부처별 인트라넷 구축은 소규모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중장기 자문단 및 정보시스템 관련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 효과의 지속성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트디부아르 교육부는 2009년 KOICA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 사업의 성과와 범정부적 e-Government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향후 ICT를 활용한 e-Education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KOICA와의 협력수요 및 개발의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 코트디부아르가 도입하고자 하는 e-Education은 행정 효율화 및 안정적인 정보 전산화 외에도 ICT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 교육 지원 및 관련 교원 양성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코트디부아르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ICT를 활용한 전자교육 및 교원양성,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을 함께 엮고 이에 대한 중장기 자문단 및 봉사단을 파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추진방식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사업인 아비장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구축강화사업('07-'08) 및 교육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인트라넷사업('08-'09)의 사후평가를 토대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AFEC 2013/2014 사업으로 수원국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수립 및 액션플랜 수립을 지원한 바 있어, EDCF 및 AfDB를 통해 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분야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다.

#### 나. 교육분야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정치·경제적 안정을 되찾으며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고급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늘어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더불어 서아프리카 물류거점지로서 도로·항만·항구·철도 등 대대적인 인프라 공공 프로젝트들이 국가 전역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산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잉여 노동인구의 자질과 산업 수요가 적절히 매칭되지 않아 실업문제와 인적자원 부족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은 대부분의 민간 직업훈련센터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수요에 맞는 적절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으며, 투자금 부족으로 토목, 전자, ICT 등 고가의 장비 및 설비 구축이 필요한 기술훈련은 실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OICA가 잉여 노동인구,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설, 전자, ICT 등 유망 성장 분야의 산업수요에 맞춰 적절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면 코트디부아르가 당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트디부아르 공공사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이와 같은 산업인력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은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아지토 화력발전소 건설(현대엔지니어링)
- 시프렐 발전소 건설(한전기술)
- 아비장 제3대교 건설(재원산업)
- 아비장 도시철도 공사(동산엔지니어링)
- 코트디부아르 북부도로 재건공사((주)한라)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산업인력 수요가 높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아비장의 직업훈련센터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AfDB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경우에도 긴급 청년 고용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들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적 과제, KOICA의 기본 협력방향 및 중점지원 분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협력 프레임워크의 도출이 가능하다.

[그림 4-10] KOICA-코트디부아르 간 협력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KOICA는 코트디부아르의 내전 후 국가재건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내전으로 무너진 커뮤니티의 재건과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첫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와 역시 내전 과정에서 붕괴된 공공행정 및 낙후된 도시인프라의 현대화를 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에 따라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타(공공행정, 교육) 분야가 도출되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1) 지역개발형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과 2) 기초 보건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제시하였고, 현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양자 및 다자 공여 기관 및 INGO와의 협력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아비장 도시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1)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 사업 및 2) 아비장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관리 개선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발컨설팅(DEEP) 사업과 소규모 시범사업(Pilot)을 엮은 형태로 추진 시 예산 대비 높은 성과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JICA, World Bank 등 선행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의 사전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행정 현대화 및 인적자원 육성을 목표로 국가정보화 및 부처별 전자정부 도입 지원, 직업훈련 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개발형 모자보건 및 식수위생 사업 등을 통하여 내전 후 긴급히 요구되는 커뮤니티 및 사회서비스망 복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될 공공행정 부문과 아비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한 전략의 수립과 pilot사업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성과 측정,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엮은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결론

코트디부아르는 서부아프리카의 물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 성장세 및 외국인투자 확대 기조를 볼 때 향후 지역 내 경제거점지로서의 잠재성이 풍부한 국가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내전 과정에서 지역커뮤니티, 거버넌스,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붕괴되었고 특히 아비장 수도와 국토의 서북부 지역에서 교육·보건·식수·위생 등 사회간접서비스가 매우 열악해 짐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도 아비장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면서 빠르게 과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0여년 전에 구축된 도시인프라가 낙후된 상태이므로 교통·전력·상하수도·폐기물 관리 등 도시관리 전 영역에서의 인프라 개선과 관계기구 관리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양국 간 외교 및 경제관계는 확대심화 기조에 있다. 2014년 7월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투자, 인프라, 에너지, 농업, 제약 분야 및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진행 중이며, 최근 발전소·교량·도로·철도 등 해당국의 다양한 공공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코트디부아르와의 경제협력 잠재성을 고려하여 저마다 국가협력전략을 새로이 구성하고 있으며 원조금액도 두 배로 증액하는 등 전략적인 ODA 활용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KOICA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경제외교 관계 및 해당국의 지역내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의 개발환경 및 과제와 국제사회의 지원활동 특징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정량지표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성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적인 협력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별 목표, 중점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KOICA는 중점분야로 도출된 보건의료와 인프라 부문의 사업을 중심으로 내전에 무너진 커뮤니티의 재건과 인적자원의 육성, 그리고 내전 과정에서 붕괴된 공공행정 및 낙후된 도시인프라의 현대화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분야의 사업들은 코트디부아르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가과제에 대해 KOICA가 오랜 기간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국가가 오랜 기간 내전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낮아져 있거나 사적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실무급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협력부처를 정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KOICA는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거점이 될 코트디부아르의 핵심 과제에 대한 해결 및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해당국의 내전 후 국가재건 및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외교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정책 제언

코트디부아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향후 불어권 아프리카 주요 협력대상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현 와타라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및 평화민주주의 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금년 10월에 있을 대선에서 무난히 재임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트디부아르는 이런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7-8%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 서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전망에서, AFD, USAID, EU, World Bank 등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는 對코트디부아르 지원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역내 전략적 위상, 정부의 안정적 리더십, 급속한 경제성장 전망 및 여타 공여기관의 지원확대 동향, 양국 간 고위 협력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코트디부아르의 협력국 위상은 향후 중점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3월에 발표된 제2차 중점 협력국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해당국의 아프리카 중점 협력국 지정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 시점부터 3-4년 후를 바라보며 체계적으로 사업발굴과 함께 현지 사무소의 인력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지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현지 사무소장 및 인턴1명의 관리체계로는 향후 늘어날 업무를 관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사무소가 설립된 지 1년 남짓 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으로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부 인력의 사무소 배치가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타 공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리자급 현지 직원을 2-3명 채용하고 인근의 세네갈 사무소의 경험이 풍부한 현지 직원들을 단기간 파견하여 현지직원 워크숍 등을 추진함으로써 현지직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KOICA 업무에의 몰입도 및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지 공여국 협의체와의 적극적인 참여도 초기 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역시 관리자급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 원활하게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박영호 외. 2011.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11-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지역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홍식. 2011. 「2011년 아프리카지역 기초정책연구 코트디부아르: 서부 아프리카 선진국의 몰락과 희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04(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수출입은행. 2015a. 「코트디부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_\_\_\_\_. 2015b.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외문헌>

- AfDB Group. 2014. “Road development and Transport facilitation programme within the Mano River Union-Summary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 \_\_\_\_\_. 2013. “Côte d’Ivoire Combined 2013-2017 Country Strategy and 2013 Portfolio Review.” Tunis: AfDB
- AfDB Group, AU and UNECA. 2014.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4.” Tunis: AfDB.
- AfDB Chief Economist Complex. 2013. “The Afric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AIDI).” Tunis: AfDB.
- Ahossane, Kadio et al. 2013. “Côte d’Ivoire.” In West African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A comprehensive analysis. Chapter 5 pp 111-140. Washington, DC: IFPRI.
- Akinès, Francis. 2012. “Côte d’Ivoire: State-driven Poverty Reduction in a Context of Crisis.” NCCR North-South Dialogue, no. 46. Bern: NCCR North-South.
- \_\_\_\_\_. 2001. “Dynamique de la politique sociale en Côte d’Ivoire.” Politique sociale et développement document du programme no. 8. Geneva: UNRISD.

- Andrew L. Dabalen et al. 2012. "Estimating the Causal Effects of Conflict on Education in Côte d'Ivoir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Andrianisa, Anderson. 2013. "Gestion des déchets solides ménagers du district d'Abidjan."
- Beñat Bilbao-Osorio, Soumitra Dutta, and Bruno Lanvin. 2014.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 Rewards and Risks of Big Data,"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BNP Paribas. 2014. "Emerging Economies and Country Risk."
- Centre for the Study of the Economies of Africa. 2013. "Analysis of Bilateral Trade in UEMOA: The Implications of Trade Effects." Abuja: CSEA.
- Countdown to 2015. 2014. "The 2014 report."
- Cristian Bouquet. 2007. "La crise ivoirienne par les cartes."
- Diop, Makhtar et al. 2015.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Country Report: Côte d'Ivoire."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COWAS. 2012. "Annual Report 2012: Integr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in West Africa." Abuja: ECOWAS.
- Education policy and data center, fhi360. 2014. "National Education Profile."
- EU-République de Côte d'Ivoire. 2008. "Document de stratégie pays et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our la période 2008-2013."
- \_\_\_\_\_. 2014. "11ème 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Programme indicatif national pour la période 2014-2020."
- FAO. 2013. "Statistical Yearbook 2013." Rome: FAO.
- Foster, Vivien and Pushak, Nataliya. 2010. "Country Report: Côte d'Ivoire: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2014. "Summary report with key findings." Mo Ibrahim Foundation.
- IFPRI. 2013. "West African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A Comprehensive Analysis." New York: IFPRI.
- IMF and IDA. 2012. "Enhanced Initiative for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Completion Point Document and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 IMF Country Report No. 12/170. Washington, DC: IMF.

- IMF. 2012. "Côte d'Ivoir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ogress Report." IMF Country Report No. 12/183. Washington, DC: IMF.
- Jean Debie. 2012. "The West African port system: global insertion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Echo Géo*.
- Jean-François Arvis et al. 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Klaus Schwab,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KPMG. 2013. "Monitoring African Sovereign Risk Ivory Coast Snapshot."
- Ministère de l'Agriculture, 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 la Riziculture. 2012.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filiere riz SNDR 2012-2020."
- Ministère de l'Emploi,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olidarité. 2012. "Rapports sur l'Emploi et la Formation en 2011."
- \_\_\_\_\_. 2008. "Situation de l'Emploi à Abidjan en 2008."
-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de la Salubrité Urbain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2013. "Document de presentation de la thematique: Eau & Assainissement en Côte d'Ivoire."
-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Lutte contre le SIDA. 2015. "Projet pour l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de Côte d'Ivoire."
- \_\_\_\_\_. 2012.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2012-2015."
- \_\_\_\_\_. 2010. "Carte Sanitaire 2008 de la Côte d'Ivoire."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 et de l'Enseignement Technique. 2015. "Expression des Besoins en TIC du MENET."
- NCCR. 2012. North-South Dialogue, No. 46. "Côte d'Ivoire: State-driven Poverty Reduction in a Context of Crisis."
- N'Guettia, K. Ives. 2010. "Gestion des ordures ménagères d'Abidjan: Diagnostic."
- OCHA. 2013. "Besoins humanitaires en phase de transition." Abidjan: OCHA.
- \_\_\_\_\_. 2011. "Crise socio-politique en Côte d'Ivoire: L'impact sur la population et les groupes vulnérables en particulier." Abidjan: OCHA.
- Oxford Business Group. 2015. "The Report: Côte d'Ivoire 2015."
-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5. "OPHI Country Briefing January 2015: Côte d'Ivoire."

-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2015. "Revue du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PND 2012-2015; Tome 1: Rapport de la Revue Globale."
- \_\_\_\_\_. 2012.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2012-2015."
- \_\_\_\_\_. 2011. "Plan d'Action à Moyen Terme-PAMT Secteur Education/Formation 2012-2014."
- \_\_\_\_\_. 2009. "Stratégie de Relance du Développement et de Réduction de la Pauvreté."
- Port Autonome d'Abidjan (PAA). 2013. "Rapport d'Activités 2013." Abidjan: PAA
- Poster, V. and Nataliya, P. 2011. "Côte d'Ivoire's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 UN COMTRADE. 2012. "Côte d'Ivoire Trade Profile." Available at <http://comtrade.un.org/pb/CountryPagesNew.aspx?y=2012>
- UNCTAD. 2013.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Report 2013." Geneva: United Nations.
- UNDP. 2014. "Explanatory note on the 2014 HDR composite indices: Côte d'Ivoire."
- \_\_\_\_\_. 2013a.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New York: UNDP.
- \_\_\_\_\_. 2013b. "Rapport National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2013-Emploi, changements structurels et développement humain et Côte d'Ivoire."
- UNEP. 2010. "Plan de Gestion des Déchets Dangereux pour le District d'Abidjan."
- UN Habitat. 2014. "The State of African Cities 2014". Kenya: UN Habitat.
- UNICEF. 2014. "Statistical Tables". New York: Unicef.
- \_\_\_\_\_. 2013. "UNICEF Annual Report 2013-Côte d'Ivoire."
- UNIDO. 2013.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Nations; Looking back, forging ahead."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12/2013. Vienna: UNIDO
- United Nations. 20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4." Geneva: United Nations.
- \_\_\_\_\_. 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 Global Agriculture Information Network. 2014. "Grain and Feed Annual-2014 West Africa Rice Annual"
- Vivien Foster and Nataliya Pushak. 2010. "Côte d'Ivoire's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AICD).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14.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13.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Progress Report for Côte d’Ivoire for the period FY10-FY13.”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2010.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Côte d’Ivoire for the period FY10-FY13.”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IDA and IMF. 2013. “Joint Staff Advisory Note on the NDP 2012-2015.”
- World Economic Forum. 2014. “African Strategic Infrastructure Initiative: Managing Transnational Infrastructure Programmes in Africa-Challenges and Best Practice.”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WHO. 2015. “Côte d’Ivoire: WHO Statistical profile.”
- \_\_\_\_\_. 2014.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a glance: Côte d’Ivoire.”
- Yembiline, Pascal et al. 2015. “Country Notes-Côte d’Ivoire 2015”. African Economic Outlook 2015. Paris: OECD Development Centre.
- \_\_\_\_\_. 2014. “Country Notes-Côte d’Ivoire 2014.”African Economic Outlook 2014. Paris: OECD Development Centre.

#### <인터넷 홈페이지>

-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http://civ.mofa.go.kr/>
- 코트디부아르 정부. <http://www.gouv.ci>
- 프랑스 외교부. <http://www.diplomatie.gouv.fr/>
-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사이트. <http://stat.koica.go.kr/>
- African Development Bank. <http://www.afdb.org/>
-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http://www.afd.fr/>
- ANASUR. <http://anasur.salubrite.gouv.ci/>
- Bureau National d’Etudes Techniques et de Développement. <http://www.bnetd.ci/>
- CIA World Factbook. <http://www.cia.gov>
- E-Gouv. <http://www.e-gouv.ci>
- FAOSTAT. <http://faostat.fao.org/>
- IFAD Rural Poverty Portal. <http://www.ruralpovertyportal.org/>
- IMF data. <https://www.imf.org/external/data>
- Geo Currents. <http://www.geocurrents.info/>
- GIZ. <http://www.giz.de/en>
- ICRC. <https://www.icrc.org>
- ILO Statistics. <http://www.ilo.org/stat/lang—en/>

INFAS. <https://ci-infas.net/>

International Trade Centre Investment Map. <http://www.investmentmap.org/>

Jeune Afrique. <http://www.jeuneafrique.com>

Ministère des Infrastructures Economiques. <http://www.infrastructures.gouv.ci/>

Ministère des Transports. <http://www.transports.gouv.ci/>

Mo Ibrahim Foundation. <http://www.moibrahimfoundation.org/>

Map Action. <http://www.mapaction.org>

MDG global database. <http://mdgs.un.org/unsd/mdg/Data.aspx>

National Online Project. <http://www.nationsonline.org>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OECD/DAC. <http://www.aidflows.org/>

Open Data for Africa. <http://cotedivoire.opendataforafrica.org/>

RESAKSS. <http://www.resakss.org/region/monitoring-progress/c%C3%B4te-d'ivoire>

SODECI. <http://www.sodecinet.net/>

Statoids. <http://statoids.com>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World Bank CPIA Africa. <http://datatopics.worldbank.org/cpia/>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db/>

UNCTAD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

UN Data.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C%C3%B4te%20d'Ivoir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코트디부아르

---

## 부 록





[부록 1] 정량분석 방법의 분야별 지표 및 자료 출처

| 분류       | 분야별 지표                                                                | 자료 출처                                                            |
|----------|-----------------------------------------------------------------------|------------------------------------------------------------------|
| 교육       |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          |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                                                                  |
|          |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                                                                  |
|          |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                                                                  |
|          |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                                                                  |
|          | Internet access in schools                                            |                                                                  |
|          | Availability of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                                                                  |
|          | Extent of staff training                                              |                                                                  |
|          |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                                                                  |
|          | Mean years of schooling                                               | Human Development Index                                          |
|          | Expected years of schooling                                           |                                                                  |
| 보건<br>의료 | Tuberculosis cases/100,000pop.*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          | 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                                       |                                                                  |
|          | HIV prevalence, % adult pop.*                                         |                                                                  |
|          | Business impact of HIV/AIDS                                           |                                                                  |
|          | Infant mortality, deaths/1,000 live births*                           |                                                                  |
|          | Life expectancy/years*                                                |                                                                  |
|          | Density of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 WHO                                                              |
|          | Density of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per 1,000 population       |                                                                  |
|          | Health expenditure, public (of GDP)                                   | World Bank                                                       |
|          | Mortality rate, under-5 (per 1,000 live births)                       |                                                                  |
|          | Maternal mortality ratio (national estimate, per 100,000 live births) |                                                                  |
|          |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of population with access)          |                                                                  |
|          | Hospitals per 10,000 population                                       |                                                                  |
|          | Improved water source, rural (% of rural population with access)      |                                                                  |
|          | Improved water source, urban (% of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                                                                  |

| 분류   | 분야별 지표                                              | 자료 출처                                                            |
|------|-----------------------------------------------------|------------------------------------------------------------------|
| 농림수산 | GCI Agricultural policy costs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3)         |
|      | 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 / Total Land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      | Machinery & Equipment area of Agricultural area     |                                                                  |
|      | Agriculture, value added (of GDP)                   | World Bank                                                       |
|      | Fertilizer consumption (per hectare of arable land) |                                                                  |
|      | Cereal yield (kg per hectare)                       |                                                                  |
| 공공행정 | Property rights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
|      | Diversion of public funds                           |                                                                  |
|      | Public trust in politicians                         |                                                                  |
|      |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                                                                  |
|      | Judicial independence                               |                                                                  |
|      |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                                                                  |
|      |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                                                                  |
|      |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                                                                  |
|      |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                                                                  |
|      |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gregs. |                                                                  |
|      |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                                                                  |
|      | Business costs of terrorism                         |                                                                  |
|      |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                                                                  |
|      | Organized crime                                     |                                                                  |
|      |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                                                                  |
|      | Ethical behavior of firms                           |                                                                  |
|      |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                                                                  |
|      |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                                                                  |
|      |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                                                                  |
|      |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0-10 (best)*       |                                                                  |

| 분류        |           | 분야별 지표                                                | 자료 출처                                                                               |
|-----------|-----------|-------------------------------------------------------|-------------------------------------------------------------------------------------|
| 산업<br>에너지 | 산업        |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 UNIDO(2010)                                                                         |
|           |           | Share of Medium and High-Tech Activities in Total MVA |                                                                                     |
|           |           | Industry, value added                                 | World Bank                                                                          |
|           | 에너지       |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
|           |           | Electricity production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1)                                                  |
|           |           | Access to electricity                                 | World Bank(2010)                                                                    |
|           |           | Alternative and nuclear energy                        |                                                                                     |
| 인프라       | 교통<br>인프라 | Quality of roads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
|           |           | Quality of rail road infrastructure                   |                                                                                     |
|           |           |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                                                                                     |
|           |           |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                                                                                     |
|           |           | Airtransport,registeredcarrierdeparturesworldwide     | World Bank                                                                          |
|           | 통신<br>인프라 | Fixed telephone line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2013) |
|           |           |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                                                                                     |
|           |           | Internet users                                        |                                                                                     |
|           |           |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                                                                                     |

## [부록 2] 정성분석 상세결과

| 지표                                                           | 분석 내용                                                                                                                                                              | 결과   |
|--------------------------------------------------------------|--------------------------------------------------------------------------------------------------------------------------------------------------------------------|------|
| [ 교육 ]                                                       |                                                                                                                                                                    | 3.65 |
| 정책타당성<br>(25%)                                               | - 내전 이후 공공교육시스템 재정비 필요<br>- 의무교육 및 교육정보화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br>- 3개 교육부처 합동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됨<br>- 2차 PND에 교육접근성 확대가 적극 반영될 전망                                              | 5    |
| 수원태세 및<br>개발의지<br>(15%)                                      | - 현지조사 면담 시, 교육부 장관, 차관, 실무국장 등 고<br>위급의 적극적인 협조<br>- 후속 Technical meeting과 세부 자료를 제공하여<br>KOICA와의 협력의지 표명<br>- 단, 3개 교육부처 중 1개 부처만을 면담할 수 있었음                     | 4    |
| KOICA 사업과의<br>연계성<br>(40%)                                   | - 최근 10년간 2건의 프로젝트 진행<br>* 아비장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강화사업<br>(07-08/74.1만달러)<br>*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사업 (08-09/138만달러)<br>- 향후 포트폴리오 내 동 분야 지원예정 사업 없음                             | 3    |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 (20%)<br>* (에볼라 사태, 역내<br>경제역학관계 변화) | - 에볼라 사태에 대한 영향력 없음<br>-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 및 물류 거<br>점지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이 적<br>극 필요할 전망                                                                  | 3    |
| [ 보건의료 ]                                                     |                                                                                                                                                                    | 5.0  |
| 정책타당성<br>(25%)                                               | - 내전 이후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재정비 필요<br>- 보건전략에 따라 의료시스템 개혁, 국가의료보험 시행,<br>제약보급기관 민영화 등 정책적 개혁 진행 중<br>- 2차 PND에 보건접근성 확대가 적극 반영될 전망                                           | 5    |
| 수원태세 및<br>개발의지<br>(15%)                                      | - 현지조사 시, 차관 면담을 통해 국가 보건개발과제 파악<br>- 후속 국장급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현황 데이터 및 국<br>가보건과제에 대한 세부 자료 입수                                                                          | 5    |
| KOICA 사업과의<br>연계성<br>(40%)                                   | - 최근 10년간 3건의 프로젝트 진행<br>* 말라리아 감염 예방 사업 (10/5.3만달러)<br>* 부롤리케양치료소 역량강화 사업 (09-10/170만달러)<br>* UNFPA 누관치료 사업 (10-15/170만달러)<br>- 향후 UNFPA 사업 확대 예정 및 AFD 식수위생사업 계획 | 5    |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 (20%)<br>* (에볼라 사태, 역내<br>경제역학관계 변화) | - 에볼라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차단했으나 이에<br>대한 향후 대응을 위해 국가전반의 보건시스템 재정비<br>및 서아프리카 지역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 5    |

| 지표                                                          | 분석 내용                                                                                                                                                                                              | 결과   |
|-------------------------------------------------------------|----------------------------------------------------------------------------------------------------------------------------------------------------------------------------------------------------|------|
| [ 농림수산 ]                                                    |                                                                                                                                                                                                    | 1.85 |
| 정책타당성<br>(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개발과제는 카카오 등 현금작물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구조 전환으로 카카오 개혁 등 정책변화 시도</li> <li>- 주식작물에 대한 생산량 증대 정책 등 쌀 증산전략 추진 중</li> </ul>                                            | 3    |
| 수원태세 및<br>개발의지<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시 농업부와 면담은 가능했으나, e-Agriculture에 한정하여 협력가능의사를 표명함</li> <li>- 쌀 생산성 증대 및 농촌개발 등 광범위한 협력의사 확인이 어려웠음</li> </ul>                                         | 2    |
| KOICA 사업과의<br>연계성<br>(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 간 추진사업 내 동 분야 관련 사업 없음</li> <li>- 향후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li> </ul>                                                                                 | 1    |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20%)<br>* (에볼라 사태, 역내<br>경제역학관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볼라 사태로 인한 영향 없음</li> <li>- 주요 수출품목인 카카오 및 천연자원 국제가격이 경제 성장에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나 우리나라 ODA 지원과는 큰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li> </ul>                                           | 2    |
| [ 공공행정 ]                                                    |                                                                                                                                                                                                    | 4.15 |
| 정책타당성<br>(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전 중 공공행정 시스템 붕괴</li> <li>- 자료 정보화, 행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 필요</li> </ul>                                                                       | 4    |
| 수원태세 및<br>개발의지<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시, e-Governmen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교육부(e-Education) 및 농업부(e-Agriculture) 등에서 동 분야 발전을 위한 높은 협력의지 표명</li> </ul>                                               | 5    |
| KOICA 사업과의<br>연계성<br>(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 간 교육분야 전자정부 사업 추진 1건</li> <li>* 교육부 인트라넷 구축(08-10/170만 달러)</li> <li>- 향후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 사업 1건 협의 중</li> <li>* 전자정부(공공행정부)(2016(미정)/5백만 달러)</li> </ul> | 4    |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20%)<br>* (에볼라 사태, 역내<br>경제역학관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볼라사태를 방지하고 역내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 강화가 시급히 요구됨</li> </ul>                                                                                          | 4    |

| 지표                                                          | 분석 내용                                                                                                                                                                                               | 결과  |
|-------------------------------------------------------------|-----------------------------------------------------------------------------------------------------------------------------------------------------------------------------------------------------|-----|
| [ 산업에너지 ]                                                   |                                                                                                                                                                                                     | 2.7 |
| 정책타당성<br>(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전 이후 산업기반 재구축 및 발전량 증대 필요</li> <li>- 1차 PND에 따라 제조업 등 산업발전기반 마련 중</li> <li>-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 확충 중</li> <li>- 다국적 대기업의 HQ 복귀 등으로 향후 산업발전 예상</li> </ul> | 4   |
| 수원태세 및<br>개발의지<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에너지석유부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웠음</li> </ul>                                                                                                  | 2   |
| KOICA 사업과의<br>연계성<br>(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 간 해당분야 추진사업 없음</li> <li>- 향후 포트폴리오에 해당분야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li> </ul>                                                                                  | 1   |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20%)<br>* (에볼라 사태, 역내<br>경제역학관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볼라 사태로 인해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존재</li> <li>- 최근 경제회복세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선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발전 및 에너지 관련 지원이 필요할 전망</li> </ul>                                        | 5   |
| [ 인프라 ]                                                     |                                                                                                                                                                                                     | 4.2 |
| 정책타당성<br>(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전으로 인한 전국적인 인프라 복구 필요</li> <li>- 1차 PND 상 PPP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역내 물류허브로서의 입지 재구축 중</li> </ul>                                                       | 4   |
| 수원태세 및<br>개발의지<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시 현지사무소를 통해 경제인프라부 등 유관 부처의 협조적인 태도 및 원활한 사업 추진 현황 파악</li> <li>- 단, 현지조사 중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음</li> </ul>                                                    | 4   |
| KOICA 사업과의<br>연계성<br>(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 간 해당 분야 지원사업 없음</li> <li>- 향후 도로교통 관련 2건의 사업 추진예정</li> <li>* 아비장 도로시스템 개선사업(15-17/5백만 불)</li> <li>* 아비장 교통 마스터플랜(2015/120만 불)</li> </ul>            | 4   |
| 대내외<br>환경변화 및<br>국별 특수성(20%)<br>* (에볼라 사태, 역내<br>경제역학관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볼라 사태로 인한 영향 크지 않음</li> <li>- 서아프리카 물류허브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항만, 도로, 교통, 철도 등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필요</li> </ul>                                               | 5   |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5-15-172

---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코트디부아르**

---

발 행 2015년 8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트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